



선후배 手談으로 뭉쳤다!

4회 동문 바둑대회... 역대 가장 많이 참가



본회(회장 林光洙)는 지난 7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동문 및 재학생 2백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개인전 최강조·A조·B조·C조·D조와 단체전(이하 변형토너먼트리그: 승자간 대결방식)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인전은 5국, 단체전은 4국을 치러 승자를 가렸다. 3회까지는 스위스리그로 치러졌으나 이번 대회는 첫 대국부터 박진감 있는 진행을 유도하고, 정확한 순위를 매기기 위해 변형토너먼트가 도입됐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林光洙회장, 孫一根상임부회장, 尹勤煥·孔大植부회장, 許璿사무총장, 본보 許英燮논설위원을 비롯해 모교 李長茂총장, 崔松和 前부총장, 朱鍾南 발전기금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또 본회 朴熙伯부회장, 姜寅求보대원동창회장 등이 선수로 참가했으며, 첫 대회부터 수고해준 洪鍾賢(프로9단)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인 SBS 申秉湜논설위원, 중앙일보 朴治文 수석전문위원, 명지대 바둑학과 南治亨(프로초단)교수가 올해에도 참석해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다. (관련기사 3면)

관악출추

외국인 서울대 동문이라면 실감이 나는가? 학부나 대학원에서 강의를 듣고 학위를 받아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 동창생이라는 동류의식을 갖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서울대 출신들은 워낙 '국가'의 아들딸이지 서울대라는 '학교'의 아들딸이라는 소속의식이 희박한 게 사실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깊이 새기고 살아야지 애교심 같은 건 뭔가 찻찻하지 못한 것처럼 치부되는 분위기까지 있었기에 내국인 졸업생 사이에도 동창의식이 약한데 외국인 졸업생의 경우야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의 많은 대학들이 국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다시피 하면서 서울대에도 외국인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현재 수천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서울대에 머물고 있으며 서울대 외국인 학생회(SISA)에 가입한 학생수만 6백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동안은 외국학생이 오면 오고가 보다 가면 가는가보다 했을 뿐 그들을 적극적으로

외국인 동문에 대한 인식

로 유지하려는 노력도 관심도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학들 간의 경쟁적인 국제화 노력이 가열되면서 외국인 학생의 수는 조만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 대학을 졸업한 한국 사람들이 귀국해서 미국 대학 동문회를 만들고 정례 모임을 갖는 일은 당연한 것이 됐다. 살만해 지면 자기가 다녔던 미국 학교에 기부금을 쾌척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 그런데 서울대를 거쳐간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의 각계각층에서 엘리트로서 활약하고 있다지만 동창 모임을 갖는 경우는 드문 것 같다. 현지에서 한국인 중심의 서울대 동창회는 분명히

있어도 그 모임에 현지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은 것 같지 않다. 그 외국인 졸업생들이 서울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부했다는 소식은 더더구나 별로 듣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우리가 그들을 '외국인'으로 보았을 뿐 '우리학교 졸업생'이라는 동문 의식으로 대한 적이 없어 그들 스스로도 서울대인으로서의 소속감이 희박한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외국인 동창들은 서울대가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데 있어서 아주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이들이 서울대인으로서 유대감을 지니고 활약할 수 있도록 전 세계에 산재한 서울대 동창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朴明珍논설위원)

알림

제3회 서울대 동문 골프대회

9월 10일(월) 렉스필드CC

모교의 발전기금 모금 증대를 위한 분위기 조성과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제3회 총동창회장배 동문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각 단과대학(원) 및 특별과정·직능지부 동창회와 지방·해외지부 동창회가 모두 함께 하는 행사이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 시: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장 소: 경기도 여주군 산북면 상품리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전화: 031-880-0300)

◇참가대상: 단과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 직능지부·지방지부·해외지부 동창회별로 2개팀 출전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가능 (접수는 해당 동창회에 문의)

◇진 행: 샷건방식

◇시상내역: 단체전 및 개인전(여성부 별도)

이글, 행운, 감쪽상 등 시상

출원원상은 최고급 승용차 예정

◇기타사항: 참가비 등은 전년과 동일함

※ 대회 일정이나 운영방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서울대학교

노리나무광장

광주비엔날레 미술감독으로 선임될 뻔했던 신정아 씨의 가짜 학위 사건 그리고 뒤이어 터진 인기 영어강사 이지영 씨의 가짜 학위 실효로 학교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이 사건을 두고 ‘학위’가 인격과 품성, 실력을 대변하는 학벌지상주의 사회에 제대로 한방 먹었다는 찬평도 나온다.

신정아 씨 사건을 보면서 ‘유진 오켈리’를 떠올렸다. 유진 오켈리는 53세의 나이에 미국 4대 회계법인의 하나인 KPMG그룹의 회장 겸 CEO로 등극, 사회적 성공의 표본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비즈니스의 화신이었고 효율성의 신봉자였으며 스스로 ‘높은 산꼭대기에 앉아 세상을 내려다보는 거대한 독수리 같다’고 느꼈고 실제로도 그랬다.

하지만 그는 회장에 취임한 지 3년이 채 안된 2005년 5월, 말기 뇌종양 판정을 받았고 3개월 후 세상을 떠났다.

유능한 회계사이자 타고난 CEO였던 유진 오켈리는

자신에게 남겨진 1백일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차근차근 적은 다음 초인 같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깨끗이 마무리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먼저 1천명 이상의 지인들에게 편지, 이메일, 전화 혹은 맛있는 음식과 와인인 있는 식사자리를 통해 ‘작별의식’을 치렀다. 장례식 계획을 직접 세웠으며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의 1백일을 책(인생이 내게 준 선물)으로 남겼다.

신정아 그리고 유진 오켈리

蔡 耕 玉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차장
본보 논설위원



그는 현대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동기도 없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그들의 인생에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문하는 법도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18개월 앞까지의 스케줄이 달력에 표시돼 있고 몇 분 후의 일까지 내다보며 살았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 60초 후의 일은 60년 뒤의 일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하며 ‘매 순간을 살아가라. 단순한 생활을 즐겨라. ‘현재’라는 완벽한 순간을 음미할 뿐 아니라 스스로 그런 순간을 만들어내라’고 조언했다.

올 초 외국유학을 마치고 교수로 임용된 한 동문은 “최소한 미국에서는 일주일 정도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정말 하루, 한 시간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고 푸념했다.

눈이 팽팽 돌 정도로 바쁘게 살면서 우리는 삶과 일의 본질에 대한 생각은 고사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체계마저 마비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다.

올 여름 휴가 때는 유진 오켈리처럼 삶이 1백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해보고 깊은 사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관악시단

파도여

金 勳 東(농학63-69)수원예총 회장·시인

무덤다, 나도 너처럼
나도 네 몸짓처럼
나도 네 마음처럼
그 속에서 마냥 뒹굴고 싶다.

내밀고 내밀어도
내보일 수 없었던 양심
삼백예순다섯 날
뛰어오르며
넘어지며
숨가쁘게 풀어헤친다.
행간을 떠다니는 허연 부유물들
멍석말이처럼
밀려왔다 밀려간다.
그것은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이다.
마술이다.

후덥다, 나도 너처럼
장엄한 몸짓으로
거친 숨을 토해내며
그 속으로 내달리고 싶다.

동문칼럼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먹어간다. 이것은 자기 일생의 정해진 수명을 갇잡고치 빼먹듯 점차 먹어가는 것에 비유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생 초기에는 천진난만해서 먹는 곳감 맛을 잘 모른다. 그러나 점차 그 곳감 맛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개척하고 가꿔 가느냐에 따라 천차만별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 일생의 수명 자체도 단명하거나 장수하게도, 허술하고 불행하거나 또는 꽤 찬 행복한 것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즘 엄습하는 ‘고령사회’ 이슈를 대하며 새로운 고령복지사회 패러다임이 논의되고 있다. ‘노인’이라는 관행적 시각에서 벗어나 나이 든다는 것이 늙어 가는 것이 아니라 보

갈구에 쫓기며 자신의 職에 부여된 召命(Beruf)을 다하는 훌륭한 자아실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끄러운 점은 없는가를 철저히 반성하고, 그러한 삶의 끝 무렵의 불행한 諦觀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에서 오는 행복한 達觀을 얻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은퇴’라든가, ‘한물 간 인생’이 아니라 지난 인생동안 갖고 닦아온 정신적, 도덕적, 지식·정보·기술적, 신체적, 물질적 축적 위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존엄성, 자율성 및 자아실현이라는 인생의 이상에 더욱 가깝게 온전히 누리며 사회에 보다 큰 도움이 되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질이 나이가 많아질수록 고양됨을 말한다. 이 ‘삶의 질’은 수입, 즉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높아지지 않는다. 물론 어느 정도 족해야 하지만 그 외의 기타 제반 사회적 변수들(other social variables), 즉 올바른 가치관, 건강, 가족, 주거, 교육,



李 光 榮
(사회58-62)
한국노년유권자연맹
부총재

나이를 먹는다는 것

다 원숙하고 적극적이고 활기찬 삶을 영위하는 황금기가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령화를 ‘적극적 고령화(active aging)’ 또는 ‘발랄한 고령화(resilient aging)’라고 하나, 필자는 이것을 ‘원숙화하는 고령화(maturing aging)’라고 칭하고 싶다.

이와 같은 사회에서 인간이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은 신(들)의 삶(완전 聖人的 삶)이나 짐승들의 삶(완전 俗物的인 삶)이 아니고 인간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덕을 드러내 보여주는 행동의 삶’이라 할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돈, 권력, 지위, 명예에 대한 탐욕적

교통, 운동·문화환경, 가정 및 생활환경, 자연환경, 친밀한 인간관계 공동체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 각자가 인생 초기로부터 百行之源인 효도(현대화된)의 근본을 세워 정직(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 : 양심이 최우선)과 타인배려(利他)를 가장 기초적 토대로 하는 가치관과 태도 교육으로 높은 인격을 함양해야 한다. 이에 기초해서 심신의 바른 건강을 육성해 가야 한다.

과거를 잊고, 현재를 등한시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짧고 슬픔으로 가득 차게 된다. 죽음에 도달할 때에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은 ‘그들이 아무 것도 성취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서울大同窓會報 참여·협력·영광

발행인 林 光 洙
편집인 孫 一 根
편집주간 許 瑄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e-메일 snua@paran.com

논설위원 金哲洙, 朴世熙, 林炯斗, 南仲九, 金鎮銅, 李炯均, 宋丙洛, 安炳燦, 丘月煥, 宋鎮赫, 金好俊, 洪性萬, 李五峰,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慶衡, 李元馥, 金鍾勳, 文昌克, 金仁圭, 徐玉植, 高永才, 李元燮,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珉, 尹在錫, 鄭世溶, 李東植, 朴聖姬, 曹炳喆, 朴勝俊, 許英燮, 金玄浩, 鄭興寶, 趙在鏞, 金鎮國, 李容式, 李相起, 鄭恩玲, 蔡耕玉
편집장 安興燮 편집부 기자 表智媛, 金南柱 광고부장 金千鶴



2백40여 동문 盤上의 멋진 승부 펼쳐

지난 7월 8일 모교 관악캠퍼스 연구공원 본관에서 열린 제4회 동문 바둑대회에서 본회 林光洙회장은 대회를 통해 “최고의 승부수를 던져 멋진 승리를 거둬보자”는 열의와 함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바둑에 심취해서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정과 일터에서 승리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둑의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모교와 동창회 역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동문들은 모교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로서 모교가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의 반열에 오르도록 돕고, 모교는 동문들의 뒤에 우뚝 서서 인생의 길잡이와 인도자가 돼주는 아름다운 관계가 더욱 알차게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모교 李長茂총장은 “지금 서울대가 세계수준의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이라며 “부디 마음에서부터 지혜롭게 대화하는 ‘바둑의 수담’이 이곳 모교의 운영에도 구현돼 대학발전의 포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본회 孫一根상임부회장은 대회 요강을 낭독한 후 “역대 최대 동문이 출전한 대회로서 교직원팀을 비롯해 여성 선수도 몇몇 참가해 공히 남녀노소를 불문한 대화합의 장이 됐다”며 “바둑에는 正道와 邪道가 있는데, 邪道는 과욕에서 비롯된다고 하니 경륜과 처세 그리고 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서 정정당당한 대국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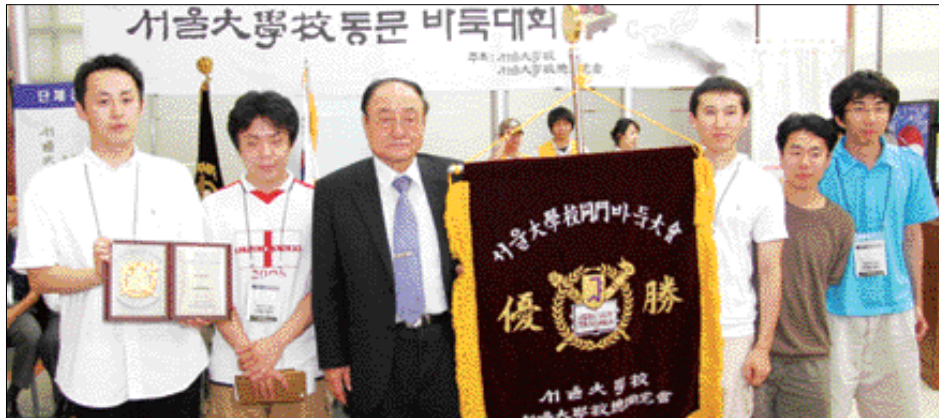
재학생A팀 단체우승 개인전에 安成文동문

단체전 결승전에서 작년 단체 준우승을 차지한 재학생A팀이 공대동창회2팀을 물리치고 짜릿한 3대2 승리를 거뒀다. 1국에서 재학생B팀에게 첫 승을 거둔 재학생A팀은 차례로 교직원팀·인문대 출신팀을 꺾고 결승에 올랐다.

梁建(프로8단)사범이 단체전 주장결승전 해설을 맡아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으며, 작년 단체전 준우승을 이끈 오경환(경영06입)군이 주장으로 나서 崔勳(토목공학63-67)동문을 물리쳤다.

감투상을 받은 대전관악기우회는 공동 3위와 동률을 이뤘으나 마지막 대국에서 상대팀 1명이 빠지면서 4명과 겨루게 돼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이날 우승한 재학생A팀은 林光洙회장으로부터 우승기를 전달받



단체전 우승 재학생A팀 : 좌로부터 양태우·오경환군, 林光洙회장, 지성욱·윤석원·박준영군



崔松和명예교수와 南治亨 프로초단의 시범대국

각 부문별 수상자

▲단체전

△우승 : 재학생A팀 박준영(전기공학01-05)동문, 지성욱(바이오시스템99입)·양태우(수리과학01입)·오경환(경영06입)·윤석원(의학07입)군.

△준우승 : 공대동창회2팀 崔勳(토목공학63-67)·朴基瓚(전기공학64-68)·李允浩(기계공학64-71)·李康國(화학공학65-69)·李楠基(섬유공학65-72)

동문.

△공동 3위 : 사대동창회팀 崔安基(지리교육70-79)·韓勝洙(화학교육72-80)·李相奎(불어교육75-82)·鄭原塚(지구과학교육80-84)·柳忠均(수학교육82졸)동문, 공대동창회1팀 李鍾冕(자원공학79-83)·李恃然(섬유공학82-86)·朴世華(전기공학84-88)·辛又煥(산업공학84-88)·鄭現文(산업공학84-88)동문.

△감투상 : 대전관악기우회 朴健寧(의학63-69)·高晟郁(경영78-83)·宋東鎬(공법82-86)·

安正雄(화학82-87)·崔承鎔(경영85-89)동문.

▲개인전

△최강조 우승 : 安成文(정치83-87)동문 △준우승 : 李在喆(농업토목86-91)동문 △공동 3위 : 崔宰薰(무역68-72)·尹辰薰(컴퓨터공학95-02)동문.

△A조 우승 : 宣石幾(중문75-79)동문 △준우승 : 姜창빈(체육교육03입)군 △공동 3위 : 柳辰烈(법학72-76)·鄭主烈(금속공학73-80)동문.

△B조 우승 : 白武欽(금속공학

84-88)동문 △준우승 : 高景淳(사회교육61-65)동문 △공동 3위 : 尹錫泰(화학교육73-77)·梁炫梏(수리학88-93)동문.

△C조 우승 : 白鍾敏(상학66-70)동문 △준우승 : 李泰鉉(상학66-70)동문 △공동 3위 : 李泰雨(생물교육60-64)·安昌燮(사회교육61입)동문.

△D조 우승 : 朴在權(행정58-62)동문 △준우승 : 金永容(사회88-99)동문 △공동 3위 : 李相完(의학55-61)·張基鎬(상학66-74)동문.



개인전 최강조 수상자 : 좌로부터 崔宰薰·尹辰薰동문, 林光洙회장, 安成文·李在喆동문



A조 수상자 : 좌로부터 姜창빈군, 鄭主烈동문, 孫一根상임부회장, 柳辰烈·宣石幾동문



B조 수상자 : 좌로부터 黃焰 프로기사, 白武欽·高景淳·梁炫梏동문



C조 수상자 : 좌로부터 姜寅求 모태원동창회장, 李泰鉉·白鍾敏동문



D조 수상자 : 南治亨 프로기사, 張基鎬·李相完·金永容·朴在權동문

았으며, 상대와 함께 1백50만원 상당의 상품권,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4강을 통과하며 결승전에서 李在喆(농업토목86-91)동문을 흑백계승으로 물리쳤다. 安동문은 4

강전에서 역대 우승전적이 있는 尹辰薰(컴퓨터공학95-02)동문을 누르고 결승전에 올랐다. 이날 安동문은 상대와 함께 4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온라인 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등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 최고령자인 魏在勳(의학52-58)동문과 현역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李枝馥(의학52-58)동문 등이 참가해 노익장을 과시했으며, 미대·사대·상대·인문대·치대 등 많은 단과대학 출신팀이 출전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대국이 진행되는 동안 홍콩에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여류 프로기사 黃焰(프로4단)씨와 南治亨교수가 동문들과 지도대국을 펼쳤으며, 지난 2005년 프로2단에 오른 자연대 물리학부 신입생 오주성 군이 참석해 선배 동문들과 친선대국을 가졌다.

여성동문·교직원 출전 등 대국방법·참가자 '다양화'

한편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기원의 박장우 사업기획팀장과 스태프들이 마지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세계사이버기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바둑사이트 '사이버오로'에서 온라인 바둑사이트 이용권 협찬과 더불어 생중계를 맡았다.

단체전·개인전 입상자 시상식이 끝난 후 본회 林光洙회장이 재학생 대표로 단체전 우승의 주역인 오경환(경영06입)군에게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본회에서 준비한 고급 손수건 세트와 한국기원에서 기증한 월간 '바둑'을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경품 추첨행사에서 노트북, 드림세탁기, 60Giga USB 저장장치, 진공청소기, 압력밥솥 등 푸짐한 상품을 받았다.

제5회 서울대 동문 바둑대회는 2008년 6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表)

장학빌딩 기금 정성 무더위도 날렸다

河相完치과원장 5천만원 쾌척

지난 6월 20일 신흥치과 河相完(치의학64-70)원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하고 분할납부를 통해 2천만원을 보내왔다.

32년째 영등포에서 진료를 해온 河동문은 “재학시절, 입학장학금을 받게 돼 인젠가는 모교에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동창회보에 장학빌딩 건립과정을 지켜보면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출연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학빌딩 건립 후 발생하는 임대 수익금을 통해 ‘河相完특지장

학회’ 명의로 모교 치주과학교실 재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河동문은 “장학빌딩 기공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준공식 때는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자리해 모교가 세계 일류대학으로 나아가는데 동참했다는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李涇鐸동문 3천만원

지난 7월 5일 유니팩트레이팅 李涇鐸(섬유공학57-61)사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3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다. 앞으로 형편이 어려워 등록금이 꼭 필요한 모교 재학생에게 ‘李涇鐸기금장학회’ 명의로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동안 공대 발전을 위해 조금씩 기금을 지원해온 李동문은 “이북 평남에서 태어나 해방 후 가족과 함께 월남해 어려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며 “대학 졸업 후 공장생활, 무역회사 간부를 거쳐 직접 회사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왔는데, 내년이면 70세가 되고 또 은퇴하는 시점에 이르고 보니 모교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돼 이제부터라도 돕겠다는 마음으로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李동문의 가족 중에 장녀 李賢振(수학교육85-89)동문, 사위 劉光烈(경제82-86)동문, 장남 李洋振(치의학88-92)동문, 며느리 金紀男(치의학91-95)동문이 모교 출신이다.

徐炳倫회장 2천만원

지난 6월 15일 로지스윅그룹 徐炳倫(농공69-73)회장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2천만원을 출연했다. 아시아태평양물류연맹 회장이자 한국물류협회장을 겸하고 있는 徐동문은 앞으로 ‘徐炳倫기금장학회’ 명의로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금장학회’ 늘어나

지난 5월 30일 신송산업 曹甲周(경제58-63)회장과 부인 鄭貞永

(불문62-66)동문이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해 개인 명의의 기금장학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6월 21일에는 엘코마 金相洙(자원공학73-77)대표가 장남 김태훈(건축02-07)동문과 공동명의로 본회 장학빌딩 건립기금으로 1천1백만원을 출연했으며, 6월 27일 홍익법무법인 安東壹(법학59-63)변호사가 1천2백만원을 쾌척했다.

또 7월 3일 안경상법률사무소 安景相(행정57졸)변호사가 부인 金正愛(가정교육54-58)동문과 공동명의로 1천만원, 7월 19일 삼안 金秉麟(토목공학55-59)고문이 ‘금계기금장학회’ 명의로 1천만원을 보내왔다.

한편 지난 7월 25일 吳相壕(전기공학48-55)동문이 1천2백만원을 출연했다. (表)

간호대학동창회

올해 장학기금 1억1천만원 모아

간호대학동창회(회장 李倫京·사진)가 간호교육 1백주년을 맞이해 펼치고 있는 장학기금 모금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동창회는 올해 들어서만 1억1천만원의 장학기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보유중인 총 기금(1억6천여 만원)의 70%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로써 동창회는 총 2억7천여 만원을 운용하게 됐다.

지난 1월 金南連(53-56)동문의 5백만원 출연을 시작으로 4월 李正子(63졸)동문이 3천만원, 5월 崔愛玉(47-50)동문이 5천만원, 6월 李倫京(65-69)회장이 2



천5백만원을 출연했다. 기존에 金南連동문과 李倫京회장은 2천만원과 3천1백만원을 출연한 바 있어 각각 2천5백만원과 5천6백만원의 특지장학금을 운용하게 됐다.

동창회는 기금으로 마련된 일반 장학금과 기부자 명의의 특지장학금으로 매년 5백만원 이상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대원동창회

명예회장단 모임

환경대학원동창회(회장 崔秉瑄)는 지난 6월 8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명예회장단 모임을 갖고 동창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서 동창회 기금확보와 대학원의 ‘지속가능 연구센터 설립’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모임에는 金利煥·金秉麟·李廷植·郭決鎬명예회장, 崔秉瑄회장, 全烘奎·吳榮泰부회장, 洪

誠約 前감사, 모교 환대원 金基浩원장, 李喜演부원장, 邊榮進교수 등이 참석했다.

SGS동창회

선진 도시 해외연수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동창회(회장 全烘奎)는 지난 7월 14~21일 프랑스, 스위스, 독일, 베네룩스3국 등 유럽의 선진 도시를 탐방했다.

이번 해외연수에는 동문부부 30여 명이 참가해 각 도시들의 환경을 살펴봤다.

동문 작품 지상 전시회

朴惠暎作



‘...물들다 (Autumn)’ Tapestry weave, 순모, 42×67cm, 2006.

〈작가약력〉

▲76~80년 모교 응용미술학과 졸업
▲96~현재 한국(춘천)가톨릭미술가협회전
▲97~00년 한나절의 일탈전
▲98~00년 강원도 미술협회전
▲01~97년 개인전 3회

▲01년 한일친선교류전
▲02년 한국가톨릭성물전
▲03년 세계가톨릭성물전
▲07년 서울대 개교60주년 기념전, 지성의 펼침전, 한중수교 15주년 기념 특별전
▲현재 한국(춘천)가톨릭 미술인협회 회원, 강원 여성예술인협회 이사

농화학과동창회

장학금 지원 의결

농화학과동창회(회장 韓胎龍)는 지난 7월 5일 서울 사당동 참배나무골 음식점에서 신임 회장단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문의 날 제정

과 소식지 발간, 기별 동문회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으며 응용생명화학 전공 재학생(3학년)에게 장학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모임에는 韓胎龍회장을 비롯해 李用益수석부회장, 李廷浩·金龍勳·鄭從柱·尹萬鎭·安重勳부회장, 吳基鳳상임간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예정

치과대학동창회

8월 30일 골프대회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洪禮杓)는 오는 8월 30일 오전 6시 경기도 용인 한화프라자CC에서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42-7082)

상과대학동창회

8월 30일 장학금 수여

상과대학동창회(회장 洪龍濤)는 오는 8월 30일 오전 12시 모교 관악캠퍼스 엔지니어하우스에서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761-2278)

AMP동창회

9월 12일 조찬세미나

최고경영자과정동창회(회장 金光石)는 오는 9월 12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조찬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6912)

동승클럽

9월 14일 11차 포럼

문리대 65학번 동승클럽(회장 宋常熙)은 오는 9월 14일 오후 6시30분 서울 삼성동 현죽빌딩 6층에서 제11차 동승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011-412-0757)

ROTC동문회

9월 15일 홈커밍데이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모교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 홈커밍데이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 880-6683) (南)



정치·외교학과동창회

세미나서 吳世勳서울시장 특강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學俊)는 지난 6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정례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서울특별시 吳世勳(SGS 7기)시장이 연사로 초청돼 ‘서울의 비전과 전략’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이날 모임에는 金學俊회장을 비롯해 韓甲洙(정치52-56)·南時旭(정치54-58)·崔東鎭(정치54-58)동문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동창회는 최근 홈페이지(www.snup.or.kr)를 새로운 모습으로 개편했다.



HPM동창회 한보연

文昌珍차관 강연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 산하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원장 姜普英, 이하 한보연)은 지난 7월 10일 서울 소피텔 엠배서더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차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초빙된 보건복지부 文昌珍(사회72-79)차관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현황과 과제’란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文차관은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의 수요는 자체개발 생산보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는 국민기대치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며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게 체계화하고 부작용 보고체계도 확고히 구축해야 할 것이며 신약개발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허가 심사 절차 기준마련, 수요자 중심의 제도절차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李昌圭·金方喆·白純之 명예회장, 姜普英회장, 모교 李承旭보건대학원장, 文玉綸교수 등 1백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한보연은 보건의료정책과정동창회가 지난 2000년에 설립한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매년 정책포럼과 농어촌 및 외국인 노동자 무료진료봉사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70)회장이 손톱깎이 세트 1백20개, 아이제이 趙基雄(66-73)대표가 만보기 40개를 협찬했다.

한편 동창회는 지난 4월 ‘서울대 화학과 60년사’를 발간해 동문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대학원동창회

새 회원명부 발행

대학원동창회(회장 河斗鳳)는 최근 새 회원명부를 발간해 8월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발간 후 7년 만에 다시 발행된 새 명부에는 8만2천여 명의 회원 연락처와 직함 등이 게재돼 있다.

河斗鳳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회원명부가 동창들의 정보와 의견의 교환처가 되고 동시에 친목의 마당 역할을 하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회원명부가 필요한 동문은 동창회 사무실(872-9100)이나 홈페이지(www.grad-snu.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ALP동창회

골프대회 5기 우승

법대 최고지도자과정동창회(회장 金亮沃)는 지난 7월 7~8일 제주 로드랜드CC에서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결과 5기 동기회가 단체우승을 차지했으며 송영규(5기)동문이 개인전 1위에 올랐다. 그밖에 민주식(5기)동문이 메달리스트상을, 전창영(5기)동문이 롱게스트상과 니어리스트상을 함께 받았다.

이날 행사를 위해 건국대 金敬姬(3기)이사장, 데니스코리아 박노준(4기)대표, 화창토산 송준영(5기)대표가 물품을 협찬했다.

〈南〉

만평

李元馥



문이 참석한 가운데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24회 동기회에서 6명이 참석해 끈끈한 동기

화학부동창회

모교서 등산대회

화학부동창회(회장 嚴榮燮)는 지난 6월 2일 모교 관악캠퍼스 교수회관 잔디밭에서 70여 명의 동

애를 과시했으며 17회, 20회 동기회에서도 각각 5명이 참석했다.

모임에 참석한 동문들은 극기도 시범, 창 소리 공연 등을 관람하며 관악에서의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날 행사를 위해 嚴榮燮(66-

교총 60년에 최초로 평교사 출신 회장

동문을 찾아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李元熙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올해로 환갑을 맞았다. 1947년 출범한 교총은 초·중·고교 교사와 대학 교수 등 18만명을 회원으로 거느린 宗家 교원단체로 전체 회원의 95%가 평교사이지만 32대, 스물 한 명의 회장이 거쳐 간 60년 동안 평교사 출신 회장은 한 명도 없었다.

대학 총장이나 대학 교수가 하는 것으로 당연히 돼왔던 교총 회장에 드디어 평교사 출신이 首長으로 뽑혔다. 李元熙(국어교육71-80)잠실고교 국어교사가 그 주인공. 제33대 교총 회장 취임식 하루 전인 지난 7월 19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교총 회장실로 찾아가 그를 만났다. 인터뷰 대상(interviewee)과 대담자(interviewer)가 同期인 관계로 편의상 ‘너나들이’로 진행했다.



대담 : 본보 尹在錫논설위원(국민일보 논설위원)

— 평가자 시절엔 가끔씩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이후로 통 보지 못하다가 이제야 다시 보게 되는군. 아무튼 18만 교총 회원 대표로, 그것도 60년 교총 역사상 최초의 평교사 출신 수장으로 뽑히네 데 대해 동문의 한 사람으로 축하하네.

“우중에 오느라 수고했네. 막상 되고 보니 양어깨가 더욱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군. 내일 취임하는데 요즘엔 사실 잠도 잘 안 와.”

— 이번엔 투표율도 87.4%로 상당히 높았고, 3명의 후보 중 절반 가까운 46.7%, 6만9천3백47표의 지지로 당선이 됐는데 그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는지.

“시대가 바뀌긴 바뀐 것 같아. 개발연대 시절엔 교육자는 존경을 받았지. 하지만 이른바 민주화시대 이후 특히 지난 10년 동안 정권은 ‘교육 후퇴’, ‘교육 정체’, ‘교육 퇴보’를 외쳐왔거든. 일견 맞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정권과 이 정권이 교육 개혁을 내세우면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관갈이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통을 토대로 변화해야 할 교육계가 너무 휘둘러 왔고, 그래서 힘 있는 교원단체를 바라게 됐고, 그런 면에서 현장과 교육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던, 또 실제로 교총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을 선택해준 것 같아.”

— 교총 회관 들어오면서 보니까,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정문에 붙어 있더군. 참 멋있는 구호인데, 오히려 공교육 붕괴를 한탄하는 현실하곤 거리가 상당히 먼 구호이기도 하고.

“맞아, 우리 교사입장에선 듣기 싫지만 공교육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 다만 원인은 두부 자르듯 어느 하나로 단정할 수는 없지. 사회사적 변화로 본다면 우리가 공부할 때는 소수 엘리트가 공부하던 시절이라 가르치는 분도 존경받았고, 또 배출된 교사들이 교육현장에 갈 때도 의미가 있었는데, 70년대 이후 대중교육시대가 되면서 평준화 정책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

떻게 하면 대량교육을 최소의 효율성으로 하느냐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질적인 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잖아. 그런데 평준화 제도를 포함해서 획일주의가 승하면서 ‘서울대 죽이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이처럼 제도적인 탄력성이 취약하자 요구가 다양한 교육소비자들은 아예 자꾸만 외국으로 가려고 하고.”

교권과 학습권 보호가 시급한 과제로

방과 후 교육 틀 바꾸면 공교육 효율 높아져

— 그게 동전의 양면이지. 평준화나 기회균등 원칙,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향평준화로 인한 인재배출, 그게 결국 국가 발전의 장애가 되는 거. 지금 서울대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뽑고 싶은 애를 잘 뽑을 수 없다는 거지.

“학벌은 타파해야 하지만 명문대라든가 유수한 대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학교 현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어. 천재와 범재가 한 교실에 있으니 선생님은 중간 수준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한쪽은 몰라서 졸고 다른 한쪽은 너무 쉬워서 조는. 좀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선 학교에서는 그냥 쉬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학원 수업을 집중적으로 받는 것이 낫고.”

— 결국 교육시스템 내지는 교육정책의 문제 아니냐.

“예컨대, 서울대가 수학 영재나 과학 영재를 마음껏 뽑아 기를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부여해야 되는데, 뭐도

안되고 뭐도 안되고 하니 솔직히 변별력이 없어지는 셈이지. 내신 1등급이 4%면, 서울에서 만도 2만4천명인데, 골라낼 시스템이 없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내가 교총 회장 당선 직후 내신적용 비율의 단계적 상향을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야. 서울대가 지역균형할당제를 운용해 사회적 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듯이 우수 학생을 선발하는 다양한 틀도 만들어줘야 공평한 거지.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숨통을 터줘야 하고.”

— 부적격 교사, 무능 교사 퇴출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교원 사기 문제 정말 심각한 데...

“범죄, 비리, 성희롱에 연루된 부적격 교사나 무능한 교사의 퇴출 그거 반대하는 선생님 아무도 없어. 그런데 교사들이 무능하다, 그러니 정년 단축하고 연금 축소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나가면 정말 안되지. 선생님들 잘못해서 그렇다고 말하기가 제일 쉬우니까, 대국민 선전용으로 좋지만. 물론 선생님들 급변하는 세상에 사이클 맞추기 쉽지 않아. 선생님의 전문성 제고, 이 부분은 노력해야 해. 누가 뭐래도 선생님은 아이들 잘 가르치고 앞서가야 하니까.”

— 그러기 위해선 재충전 재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하잖아.

“선생님들 재교육 안 받는다고 몰아치는 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순 거짓말이야. 현 시스템이라면 40만 교육자가 연수 한번 받으면 5년 이상 걸리거든. 3백억원이면 종합연수원 만들 수 있는데 들은 적도 안하고 선생님 평가만 얘기하고 있다고. 선생님들도 최소한 10년에 1년은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고 봐. 해외연수에 대한 폭도 당연히 넓혀야 하고.”

— 재충전도 재충전이지만, 도대체 요즘 같아서야 어디 선생 해먹겠어? 체벌한다고 학부모한테 무릎 꿇리질 않나, 심지어 학생으로부터 구타당하는 선생도 있으니, 원.

“선생이란 게 승진해서 존경받는 거 아니잖아. 존경은 못 받아도 최소한 존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개발연대 30년 동안은 선생님이 교육을 주도했고, 또 존경도 받았어. 그런데 민주화 과정 20년 동안 교사가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지. 이제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아울러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러의 선진국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도 교육이 희망이고 선생님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선생이 존경은커녕, 존중받지도 못해.”

— 공약으로 내놓은 것 중에 나름대로 획기적인 처방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다급한 부분은 바로 교권과 학습권 보호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지. 그래서 이번 교총 회장 선거 공약으로 ‘과외 출동 3HTF’라는 것을 내세웠어. 교권이나 학습권에 관련된 사태가 발생했을 때, 3시간 이내에 교원단체가 현장에 출동해서 사안이 객관적으로 수습되도록 지켜보겠다는 거지. 하지만 이게 근본 해결책은 될 수 없어. 중요한 건 선생님이 신뢰받는 분위기의 성숙이야. 민주화, 민주화 하지만 민주화가 이기주의로 왜곡되다보니 학부모가 선생님 먹살을 잡고 무릎까지 꿇리는 사태까지 온 거야. 각자 자기 성찰이 필요해. 그것을 제대로 된 규칙이나 문화로 만들어 내야 되는데... 먼저 선생님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도록 반성해야 될 거고, 학부모와 학생도 교육공동체에서 지켜야 될 틀을 지켜야 하고.”

— 교육의 본질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 최근에 학교 청소를 누가 할 거냐를 놓고 의견 대립이 첨예한 데 이것도 참 코미디 같더군.

“그거 참 좋은 지적이오. 어느 단체에선 ‘이거 인권 문제다, 왜 아이들보고 청소하라고 하냐?’ 그러는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화장실 청소도 교육인데 이걸 왜 못하게 하느냐?’ 하고, 이것이 인권 문제냐 교육 문제냐는 상당히 난해한 담론이지. 법이나 규정에도 없고, 그럼 하나하나 얘기해 보자고. 선진국 시대라고 내 방 청소 안 할 거냐? 내가 어질러 놓은 쓰레기 안 가져갈 거냐? 청소를 한다면 어디까지 할거냐? 청소엔 인권이 중시돼야 하나, 교육이 중시돼야 하나?”

— 공교육 붕괴의 문제, 가난의 대물림이 사교육 만연 등으로 악순환이 되고 있는 현실도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말이야.

“특하면 특목고고 뭐고 잘하는 애들 세습화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역시 잘못된 단선적 평준화야. 예전에는 보고서 하나 준비해서 공부만 잘해도 서울대 나오고 속된 말로 출세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시스템 아래서는 개천에서 용날 수가 없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속으면서 고통 받아온 대목이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 盧武鉉 정권이 소위된 계층을 위한답시고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것을 했어요. 협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도



“임기 중 최선 다하고 교직 복귀할 터”

☞ 어정쩡한 입장이었어. 그런데 가난한 애들을 불러다가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교실은 빌려주고 선생님들은 바쁘니까 수업을 못하고 학원 선생님이 와서 해. 아이들은 밥도 주고 하니까 오기는 하는데, 인풋에 비해 과연 아웃풋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 사교육을 누그러뜨리고 공교육의 효용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안이라도.

“어제도 고3 선생님들과 대화를 했는데, 예컨대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학교에 수학, 과학이 우수한 지역 학생들을 영재반으로 모아 달라 이거예요. 방과 후에. 그리고 사설 학원의 10분의 1 정도 실비만 받고 가르치는 거지. 현직교사들이 가서 하면 정말 수업 잘해요. 서울사대 동문들 참 많은데, 과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수업하면 애들이 정말 신나서 들을 거야. 방과 후 영재 교육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개편에서 용 나기도 가능할 거고.”

— 사회는 발전하는데 학교 자체가 이른바 쌍팔연도식 시스템인 것도 문제 아닌가.

“사회가 학교 욕만 할 게 아니라 보듬어 주는 배려가 필요해. 특정 신문을 말해서 좀 그렇지만, 최근 조선일보의 ‘스쿨 업그레이드’ 운동 같은 아이디어 얼마나 좋아. 비판하고 고발만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현실이 어떤지, 정말 자기애들이 화장실 가기도 힘들어하고 학교가 가장 가난한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데, 결국 그걸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아닌가?”

— 2007년 대선 후보별로 교육정책을 검증할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치집단이 세력을 잡느냐에 따라 교육은 확확 달라져. 지난 10년 교사 정년 단축부터 무자격 교장 공모제, 연금제까지 완전히 관습이 하겠다고 흔들어댔잖아. 그 동안 내놓은 수 백가지 정책을 보면 정말 골이 아파. 근본적으로 경제와 교육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盧泰愚후보 때부터 盧武鉉후보까지 토론회를 해보니 모두 교육대통령 되겠다 해놓고 실제로 뺑이야. GDP 대비 6%하겠다고 해놓고 한 사람도 안 지켰고, 심지어 자칭 교육전문가라고 하면서도 얘기해 보면 교육현장의 용어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었지. 왜? 교육을 대중대중 아니까. 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5년 단임제요. 그것도 꼭 12월에 대선을 치르는데, 후보들이 학부도 표를 의식해서 교육제도를 마구 흔들고 임시제도를 바꾸는 원인이 됐어. 어느 대통령은 ‘내 임기와 함께 교육부 장관은 간다’ 그래놓고 너무 바뀌어서 교육부 장관만 10명인가를 배출했어. 난센스지.”

— 어떤 식으로 검증하지.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교육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나, 옆에서 써준 교육 공약을 달달 외우다가 나중에 교육관을 흔드는 것 하지 않을까를 면밀히 살펴보고 해. 40만 교육자들에게 ‘이 사람의 공약은 이것’이라고 검증해 주기 위해 후보들을 초청해서 청문회식 검증을 거치는 거지. 그리곤 교육적 대통령의 자질이나 능력을 판별하고 선호도 투표를 통해 적격 후보를 고르는 거야.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교총, 전교조 모두 猛省해야 “전교조와 공조할 건 하겠다”

대선 후보도 청문회 통해 적격 후보 공개 지지

— 교원단체 중엔 증가 격인 교총 외에 전교조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쪽과

의 관계 설정이랄까, 특히 李東門의 민주화 투쟁 경력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혹시 李元熙가 전교조 성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교총 안팎에서 우려하는데. 사실 그쪽에 친구도 많지만 전교조 출발 때 나는 분명히 교육전문가의 길을 가겠다고 생각해 선을 달리 해왔지. 또 尹형 알다시피 내 민주화 투쟁 경력이란 게 그 시절 내가 사범대 대의원 의장이었기 때문에 한 거지, 무슨 이념이나 정치적 야심에 경도돼서 한 건 아니거든. 분명한 것은 최근에 전교조 산파역조차 전교조와 선을 그으려는 입장이라는 거. 이번 선거에서도 예전 전교조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 분들 하나 같이 이제 정말 새로운 교육운동이 일어날 때라고 걱정하시더군요. 교총도 너무 관변이나 어용 같은 색깔에서 벗어나고 바뀌어야 되지만, 전교조의 일부 강경 지도부(현 지도부는 아니지만)가 이념에 입각해서 고식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나아가 교육계에 불안감을 준 점도 猛省할 필요가 있다고 봐. 그렇다고 전교조와 적대하겠다는 건 아냐. 공조할 건 공조해야지.”

— 대한민국 교육이 잘 되려면 교육부를 없애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얘기 지금 많이 나와. 일면 맞는 얘기지. 특히 간섭과 규제를 능사로 아는 일부 교육부 관료는 타파되어야 해. 관료주의가 교육을 흔들면 교육은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 공약 중 눈에 띄는 거 하나. 연극으로 치면 조연이나 엑스트라급 정도로 스쳐지나갈 유아교육, 초등교육, 보건의교육, 특수교육에 대해서

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유아, 초·중등 이걸 합해서 보통교육이

라고 말하는데, 고등교육, 즉 대학은 경쟁력을 갖도록 자율성을 주면 돼요. 하지만 보통교육은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해. 그런데 지금 대학은 간섭하고 유아, 초·중등 지원은 소홀히 하니까 빠빠어지고 있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아교육을 정상적인 공교육 범주로 안아야 해. 초등학교 교육은 헌신적인 노력으로 잘 되고 있는데 30시간 가까운 살인적 수업시간이 문제야. 애들이 아침에 와서 갈 때까지 붙어 있어야 하거든. 화장실 가는 것 포함해서 말아야. 전문교과를 전담 교과화해야 해.”

— 교총 회장 자리 정말 막중하고 막강하지만, 한편으로 그간 교총 수장들의 행태가 그리 본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교총 회장이라는 자리, 국회의원이나 관직으로 가는 정류장이나 징검다리 같은 존재 아니었나? 李회장은 어떻게 할 건데.

“과거 총리, 부총리,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이 교총의 힘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분들이 우리나라 교육이나 교원들을 위해선 기여한 바가 거의 없어 배신감만 안겨준 것 또한 사실이거든. 더욱이 교육이 이렇게 고통 받을 때 정말 동병상련해 해주었느냐 생각하면 실망이 크지. 내 소명은 현장을 지키는 거야. 선거기간 동안 李元熙는 정치 성향이 있어 나중에 그 쪽으로 갈 거라는 마타도어가 나오기도 했는데, 나는 아무튼 3년간 현장만 보고 일한 뒤 현장으로 돌아갈 거야. 그것만은 확실해.”

— 누구든 말할 수 있는 한국 교육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건강이니 잘 챙기소. 하지만 한숨 돌린 후에 소주 한 잔은 해야겠지.

“오늘 먼 길을 해주신 李五峰선배님 하고 尹형, 업무 정리되는 대로 한번 뭉칩시다. 내가 동문으로서 기여한 바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부터라도 동창회에도 적극 관심 갖도록 하겠습다. 이 말씀 총동창회에 꼭 전해주소.”

(사진= 李五峰는설위원)

李元熙와 민주화 투쟁

李東門이 교총 회장에 당선된 직후, 그의 민주화 투쟁 경력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교총의 의식화(?) 내지는 좌경화(?)를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李회장은 사대 재학시절인 1973년 학생대표(대의원 의장) 자격으로 몇 번의 데모를 주동한 바 있다. 그러다가 민청학련으로 분류돼 수감생활을 했다. 그로 인해 동기보다 5년 늦은 1980년에야 졸업해 늦깎이로 평소 꿈꿔 온 교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그는 민주화 투사나 민주화 유공자로 불리는 것을 꽤나 부담스러워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스스로 밝혔듯이 유신시대로 불리는 1970년대 초반 누구보다 성실하고 소심한 국어교육학도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반정부 투쟁 논의를 위해 과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회의의 구심점을

위해 대의원 의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어교육과 대표였던 그가 의장에 선출되면서 곡절은 시작된다. 엄격한 유신정권과 이에 저항하는 학생세력은 훌륭한 국어교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고 있던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았던 것이다.

투쟁 수위를 조정하고 타 단과대학과 연대투쟁 방안을 논의하면서 시위를 주도하던 그는, 어느 새 투사가 되어 있었다. 결국 당국에 체포돼 李 哲(사회69-88)코레일 사장, 李海瓚(사회72-85)열린우리당 의원 등과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李 哲은 사형, 李元熙는 징역 15년, 李海瓚은 징역 12년이였다.

얼마 후 풀려난 그는 아이들과 뛰놀려던 소망을 유보한 채 대학 제적생 신분으로 세상에 던져진다. 다행히 선배들이 경영하는 수출업체에 취업해 몇 년을 지낸다. 무역사 자격증도 땀, 영어 회화도 열심히 배웠다. 순박한 국어교사 지망생이 독재정권이 가열차게 추진하던 수출현장의 역군으로 변신하는 아이러니를 연출

한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 교사는 접할 수 없는 꿈이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복교해 마지막 학기를 끝내고 평생의 꿈인 국어교사가 된다. 공립 중학교와 공립 고교 현장에서 일선교사로 봉직하던 그는 80년대 이후 EBS방송에 국어 및 언어영역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교육분야의 자문과 교총 활동을 통해 교권 향상과 교원 권익 옹호에 앞장서 왔고 드디어 제33대 교총 회장으로 입선했다.

‘함께하는 교총’을 기치로 △회원 25만 명 확보 △공무원사학연금 개악 저지 △‘한국교총공제회’ 설립을, ‘자랑스런 교총’을 기치로 △영향력 신뢰도 10위권의 명품 교총 △학생, 학부모와 함께 뛰는 사랑 교총 △교원 선호도 1위의 종가 교총을, ‘파워있는 교총’을 기치로 △07년 대선 후보 공개지지 △교원, 교총의 정치 활동 보장 △파워 출동 ‘3HTF’ 구성을 내세운 ‘李元熙 號’가 앞으로 3년간 어떤 항해를 할 지 지켜보자!

지난 2월 한국불어불문학회회는 1백30명에 달하는 연구진이 10여 년에 걸쳐 작업한 ‘새한불사전’(한국외대출판부·값4만원)을 내놓았다. 기존 한외사전과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과 내용으로 꾸며진 이 사전은 외국어 및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첫째, 불어만 집중적으로 다룬 게 아니라 국어-불어 2개어 사전학 연구를 바탕으로 기획 및 설계됐다는 점. 둘째, 사전의 내용은 국어학자와 불어학자가 한 팀을 이뤄 공동작업으로 이뤄졌다는 점. 셋째, 7만7천여 개에 달하는 현대 한국어 표제어와 10만개 이상의 용례를 엄선했으로써 국어 표현만 꼭 떼어내더라도 하나의 훌륭한 사전이 된다는 점. 넷째, 컴퓨터에 의한 전산정보처리기술을 학회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작업했다는 점이다.

화제의 동문

모교 불어불문학과 洪在星교수

불문학자이자 한국언어학회장이라는 남다른 이력을 지닌 모교 洪在星(불문64-68)교수는 불어불문학회에서 78년에 만든 ‘한불사전’을 개정하되 낡은 틀에서 벗어나 다른 한외사전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새한불사전’을 만들 것을 권유, 기획과 설계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다.

여름방학을 맞아 조금은 한산해진 관악 캠퍼스 인문대학 건물에 반은 불문학관련 도서, 반은 국어학관련 도서들로 빼곡히 채워진 연구실로 들어서자 洪교수는 먼저 한가지 약속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기존 한외사전 새 모델 제시

“‘새한불사전’과 관련해서 제가 다른 교수들보다 더 많이 기여했거나 고생한 게 절대 아닙니다. 모교 鄭智榮명예교수님과 李秉根명예교수님, 교열을 담당한 아주대 朴晚桂교수, 방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데 수고한 경희대 洪明喜교수, 고려대 기욤 장메르 교수를 비롯해 1백30여 연구진이 정말 합심해서 만든 사전입니다. ‘새한불사전’과 관련된 공로는 불어불문학회 회원 일동으로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과 대화할 때 가장 힘든 점은 아마도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꼭 맞는 표현’을 구사하는 일일 것이다. 이럴 경우, 다양한 예문과 뜻이 담겨있는 사전을 쉼겨봤다면 두 사람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새한불사전’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대역 명사, ~하더라는 동사와 함께 사랑스럽다, 사랑을 하다, 사랑을 받다, 사랑가, 사랑싸움, 사랑타령, 사랑병, 내리사랑, 짝사랑, 첫사랑, 풋사랑을 비롯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이 한글-불어로 친절하게 수록돼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불어권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알리는데 더없이 좋은 사전인 셈이다.

이처럼 한영사전에 맞먹는 풍부한 국어 표현을 선정하고 기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洪在星교수이다. 그런데 어떻게 불문학자가 국어사전 부분을 담당했을까?

“제가 처음 불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중학교 때 도서관에서 李最榮선생의 ‘조금 프랑스어’를 보면서부터입니다. 발음도 특이하고, 재미있어서 순식간에 빠져들었죠. 그런데 불문학과 교수를 하면서 외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을 살펴보니 그에 못지 않게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더군요. 불어를 아무리 잘해도 통·번역을 잘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반대로 내가 프랑스에서 국어학이나 한국문학을 소개하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국어, 특히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인드로 똑같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언어학과 국어학에 심취하게 됐고, 이후 제 이력에는 불문학자 겸 언어학자로 소개되고 있죠.”

‘새한불사전’을 기획하고 작업한지 10년이 훌쩍 넘으면서, 이를 기다리고 있을 많은 독자들을 생각하니 빨리 완성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고 한다.

“사전은 항상 미완의 텍스트입니다. 언어도 계속해서 진화하니까요. 연구실도 없이 선후배 동료들이 사비를 털어 매주 모여서 열띤 토론을 벌이고, 밤새도록 원고를 검토하고, 교열작업만 서너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1쇄판을 보니 수정해야할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좀더 신중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수정작업팀을 따로 구성해 내년 봄쯤 개정 3쇄판이 나올 예정입니다.”

洪교수는 ‘새한불사전’ 편찬을 계기로 한영사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소 부실했던 제2외국어 한외사전 편찬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한다. 그리고 어디에 내놓아도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한외사전이 탄생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 언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밑바탕이 됐기 때문이라고.

그래서일까. 불어와 한국어와의 비교 및 대조 연구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에 선출된 洪교수는 내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언어학회 올림피아드대회 조직공동위원장을 맡아 더없이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다.

“다양한 나라와 교류 필요”

특히 洪교수는 지난 98년부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21세기 세종계획’ 중 한글 전자사전 개발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활동해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를 추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그는 이와는 별도로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글 전자사전학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모든 언어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특정나라에만 관심이 편중돼 있어 외국 주류문화로 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면도 그냥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다양한 나라와의 언어·문화적 교류가 이뤄져야 어떠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表)

콩트 릴레이

내 눈아, 왜 이리 고달프나

鄭 鎬 暲

(국어교육52-56)

여수수필문학회 회장



요즘 들어 내 눈이 자주 침침해져서 안과 병원에 자주 들락거렸다. 눈알을 들여다보는 검안기에 간호사가 시키는 대로 유치원 아이처럼 눈을 대고 턱을 받혔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바쁜 걸음의 구두 소리가 다가오더니 “눈을 크게 뜨세요” 하는 의사 선생의 애교 있는 목소리가 바로 내 코앞에서 들렸다. 이어 검안기의 렌즈가 번쩍하면서 찰가닥 소리를 몇 번 내고 나더니 검사가 끝났는지 검안기를 옆으로 밀치면서 빠른 속도로 한 마디 했다.

“백내장 기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수술 하기는 아직 일러서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하면서 안약 한 방울을 내 눈에 떨어뜨리고

으로 노상 젖어 있어 지적지적하다는 것이다. 향간의 여자들 입으로 왕래하는 이 설이 바로 어머니 탓으로 돌리게 된 나의 분명한 이유였다. 어머니는 것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척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눈은 주변이 조금 지저분하다는 것일 뿐, 시력은 그런대로 정상이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본다면 이러하다.

초등학교 시절 여름철 마을 뒤 개울에서 꼬마들과 떡 감을 때 물 밑으로 몰래 헤엄쳐 들어가 눈을 부릅뜨고는 가슴까지 차오른 물 한가운데 서서 뭔가 종알대고 있는 그 녀석들의 아랫도리 심상한 웃고추의 형

면 10미터 앞의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눈 병신이 되어버렸다. 굵어 부스럼 낸 비극이 아닐 수 없었다. 어렸을 적의 눈병은 순전히 어머니 탓이었지만, 중학 시절의 약시는 문학에 대한 나의 철없는 욕망 탓이었던가.

내가 한 달 전에 서울에 일 보러 갔을 때 날씨도 화창하고 친구들이랑 만나 낙지볶음 점심도 얻어먹고 해서 즐거웠는데도 눈물이 자주 나고 침침해 곧장 병원을 찾았더니, 시골이나 서울이나 가는 곳마다 노소 환자가 북적거리기는 마찬가지였다. 눈을 검사하는 종류도 다양했다. 옛날에는 의사 선생의 그 무딘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까서 뒤집어 보는 것으로 검사는 간단히 끝났지만, 요즘은 그것이 아니었다. 현미경 같은 검안기로 간호사와 조교 의사 선생이 번갈아 들여다보기도 하고, 또한 놀라지 말라고 미리 경고까지 하면서 눈에다가 딱총 같은 소리를 평평 터뜨리면서 돈 많이 갖고 왔느냐고 겁을 주는 눈 검사도 있었다. 그리고 다음 날에는 눈동자를 팽창시켜 검사하기 위해 병원에 오기 두 시간 전에 집에서 넣고 오라고 준 약은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처럼 우중충했지만, 도리 없이 넣었더니 눈 속이 순식간에 수제비 국물 범벅이 되어 괜한 늙은이 병원 길에 아침부터 더듬어 허우적거리도록 만들었다.

인종이 많아 팔죽 솔처럼 꿇고 있는 이 서울의 한 복판에서 한 마디 유언도 남기지

가 그만됐다. 버스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핸드폰을 두 개씩이나 갖고 있는지 여기저기서 쉴 새 없이 잇따라 울려댔다. 이번에는 바로 내 옆자리의 핸드폰에서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왔다.

“금매 말이요, 애써 가꾸어논 고구매를 그놈에 밟게지들이 다 파 묵어부렀단 말이요. 시상에, 우리는 뭘 묵고 살까 모르겠소.”

70대 초반의 머리가 하얀 할머니의 걱정이었다. 휴대전화는 이쪽에서 걸기도 했지만, 걸려오는 전화가 더 많았다. 서울에 사는 아들, 딸들이 골라 넣어준 듯한 신호 음악도 가지각색이었다. 서울에서 백내장을 끊어버리고 온다는, 그 살벌한 말투의 주인공인 60대 초반의 남정네에게 내가 백내장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이유는 순전히 그의 핸드폰에서 울려나오던 장운정의 ‘짹짹’ 때문이었다. 그 노래를 나도 좋아하기는 했지만, 차 속의 승객들이 들으라고 앞자리의 머리 쪽에 다리를 치켜올려 뻗어놓고서는 비스듬히 드러누워 얼른 전화를 받지 않는 그의 저속한 몰치미가 알미워서였다. 차 속의 손님이 몇 사람 안 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싸가지가 있단 말인가. 자기 판에는 대단한 클래식인 줄 알고 내 노래 선곡 수준을 좀 평가해 달라는 심산이었던가.

그러나 나는 본의 아니게 번번이 체험하는 고속버스 안의 이런 잡치는 분위기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구수한 남도의 사투리와 함께 한 판 벌이는 동네잔치에 마음을 끌기도 했다.

시골집으로 돌아와서도 수술 뒤 끝내는 계속 좋지 않았다. 시나브로 낮겠지 하고 며칠을 참다가 결국에는 이곳 병원을 찾았다.

검안기를 들여다보더니 백내장을 수술한 눈임을 당장 알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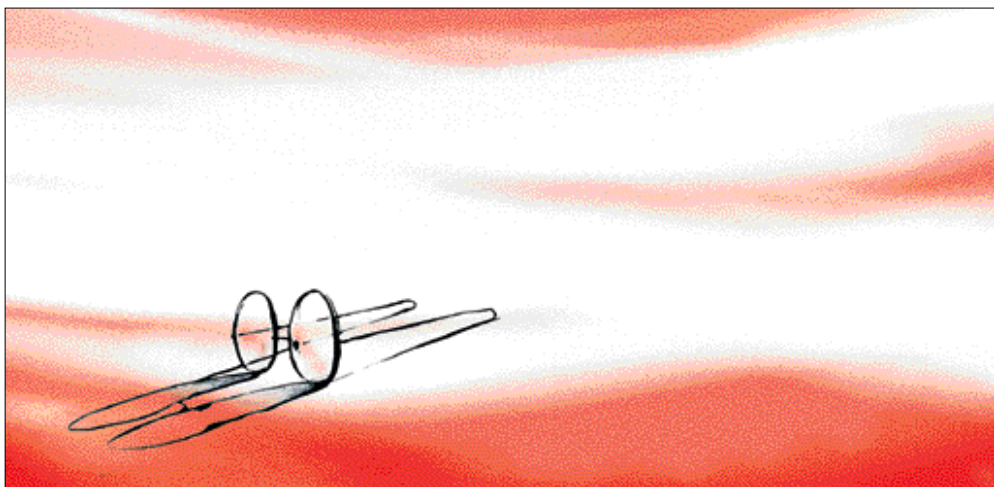
“수술을 서울서 했소? 시골 사람들 뭘 묵고 살라고 모조리 서울로 가버린대요.”

진찰 카드에서 종전의 내 병력을 다시 확인하고 있던 의사 선생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하더니, 서울에

서 수술한 환자는 치료 안 해준다고 농담 아닌 정색을 했다. 고객을 바로 앞에 앉혀 놓고 이런 횡포를 부릴 수 있나 싶었지만, 시골 병원의 분통을 이해할 만도 했다. 자잘한, 이런저런 눈병의 종일 치료보다 한 두 사람의 백내장이나 녹내장 수술의 수입이 컸기 때문이 아닌가 싶었다. 시골에서 애쓰고 돈 벌어서 서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 불신 현실에 대한 분통인가. ‘마른 놈은 보기만 해도 운다’는 속담도 있더니 시골에 사는 나도 그와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은 마찬가지였다.

나는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기가 무서웠다. 나의 이 침침한 백내장 때문이 아니라, 나날이 치솟는 물가가 나의 목을 죄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나라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허공에다 주먹질을 하며 목에 심줄을 돌우는 통치 지망자는 장꾼처럼 많지만,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오늘도 내 눈을 이토록 피곤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 그러니 차라리 지난번 고속버스 안에서 들던 ‘짹짹’나 다시 한 번 신나게 들으면서 잠이나 한 숨 푹 자고 나면 속이 한결 풀릴 것만 같았다.

“내 눈아, 왜 이리 고달프나.”



일러스트레이션 吳洙亨(서양화02-06) 동문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기가 무서웠다. 나의 이 침침한 백내장 때문이 아니라,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오늘도 내 눈을 이토록 피곤하고 슬프게 만들고 있었다.”

는 나가라고 했다. 나는 기다란 의자에 촘촘히 앉아 있는 눈병 환자들 틈에 끼여 한 시간이 넘도록 기다린 것이 억울해서 더 자세한 검사와 설명을 요청했지만, 바쁘다는 듯이 다음 환자를 호명했다. 나는 검사실 바로 옆 의자에 앉아 주사 맞는 차례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결눈으로 검사하는 상황을 살폈더니 나만의 속결처분이 아니라 나보다 더 빨리 쫓겨 나오는 늙은이가 있어서 속이 조금 풀렸다.

검사 결과는 백내장 초기라고 했지만, 내 눈은 그의 말과는 달리 종일 안개가 자욱해 어디서 뱃고동 소리라도 들릴 것 같은 낭만에 젖어들어 비린내나는 고깃배라도 빌려 타고 멀리 떠나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당장 한 줄의 글 읽기가 어려운 눈병 환자이고 보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내 눈은 어려서부터 말썽이었다. 언제나 눈 가장자리가 눈물에 젖어 있어 초등학교 시절의 수업이 불편했고, 그래서 성적은 보잘것없었지만, 나는 언제나 성적 불량을 수분이 많은 눈에다 핑계대면서 또한 나의 어머니를 원망했다. 오다가다 들은 동네 아줌마들의 말에 의하면 임산부가 아기를 가졌을 때 것갈을 먹으면 아기의 눈가가 배냇병

태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이었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물을 먹을까봐 입을 꼭 다물고는 웃음을 참고 있다가 잠수부처럼 자연스레 물위로 떠오르곤 하는 재주를 부리기도 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던가 싶다. 같은 짝의 친구가 안경을 끼고 다녔는데 그 모습이 하도 근사해서 한번 빌려 끼어 봤더니 옆에 있던 친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광수를 닮았다고 추켜세우는 바람에 나는 방과후에 슬그머니 안경집을 찾아갔다. 아무렇지도 않은 눈에 안경을 끼기가 염치없어서 검안을 할 때 시력 검사표의 2.0까지 보이는 것을 잘 안 보인다고 속여 몇 단계를 더 낮춰 검정테의 도수 안경을 맞춰 끼기 시작한 것이 한평생의 진짜 약시가 돼버린 것이다.

도수가 눈에 맞지 않은 까닭으로 처음에는 어지럽고 머리가 멍하면서 질판 글씨도 아른아른해 수업시간의 필기에 애로가 많았지만, 존경하는 대문호 이광수를 닮기 위해서 참고 견디다 보니, 두세 달 만에 그 멀쩡하던 눈이 도수 안경에 적응이 되어 몇평이 문학 소년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몇 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는 안경을 벗으

못하고 소리 없이 가는구나 싶어 세상이 어지럽고 귀찮았다. 이렇게 하여 얻은 검사 결과는 시골병원 검사와 마찬가지로 ‘백내장’이었지만, 우선 정도가 심한 한 쪽만 수술을 받고 시골로 내려와 버렸다.

서울에서 시골로 내려오는 다섯 시간의 버스길은 옛날 초등학교 시절의 신나는 수학여행과는 또 다른 흥겨움이 있었다. 기차와 자가용에 빼앗겨버린 버스의 승객은 불과 열 명 남짓한데, 호남고속도로 버스 안의 앞 천장에 붙여 놓은 텔레비전은 종일 연속극 필름을 돌려댔고, 핸드폰은 한여름 절간의 매미처럼 끊이지 않고 신나게 울어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드폰 신호음도 가정집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따르릉 따르릉 하며 주인을 부르는 촌스럽고 시끄러운 소리였는데, 이 몇 년 사이에 세상은 변해서 운통 노랫소리 천지가 되어버렸다.

“어이, 순환가. 나 지금 서울 가서 백내장 끊어버리고 오네. 세상이 험하셔, 내일 만나세. 술 값 좀 챙겨 갖고 오소잉.”

60대 초반의 술잔께나 비우게 생긴 남정네의 걸걸한 목소리였다. 나는 귀가 번쩍 띄어 세상이 험하게 됐다는 백내장 수술에 관한 자세한 것을 그에게 물어보려고 하

서울대 가족

金聖德 모교 마취과학교실 교수

부인 간호대 졸업·두 아들도 의사로 활약

“의협회장 시절, 동문 단합 계기 마련해 뿌듯”

지난 2006년 8월 11일, 환갑을 맞이한 모교 교수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소아호흡관리’ 2권을 펴낸 모교 마취과학교실 金聖德(의학65-71 소아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공)교수가 그 주인공. 金동문은 앞으로 자신이 이 책을 더 이상 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후배인 모교 마취과학교실 金鍾聲(의학71-77)·金熹秀(의학85-89) 교수와 공동저자로 2권을 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엄격하면서도 기분을 풀어줄 때는 저녁시간을 꼭 비워둘 정도로 자상하기로 소문난 스승에게 제자들이 감사의 뜻으로 마련해준 자리였다. 여기 소개된 가족 사진 등을 앨범으로 제작해서 金동문에게 선물해주기도 했다고.

“앞줄에는 아내와 처제(텔런트 朴貞洙)이고, 뒷줄 왼쪽에는 27년 후배인 장남 金勳燁이와 며느리, 그리고 아끼는 후배 교수 金熹秀동문, 金鍾聲동문과 그의 가족이네요. 경희대 의대를 졸업한 차남 俊燁이는 지금 전공의 2년차라서 얼굴을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바쁜 관계로 이날 참석을 못했어요. 환갑 모임 같은 건 할 생각이 없었는데, 우연히 책 출간일과 생일이 거의 비슷해서 제자들이 이를 알고 행사를 열어줬어요.”

이처럼 金聖德동문 가족 중 부인 朴桂洙(간호67-71)동문과 장남 金勳燁(의학92-98 모교 병원 내분비내과 갑상선전임의)동문, 가천의과학대 길병원 정형외과 전공의인 차남 金俊燁씨가 모두 의료분야를 전공했다. 또 부인 朴桂洙동문의 첫째 남동생이 치과의사, 둘째 남동생이 제약회사 중역, 막내 남동생이 정형외과 의사로 활동하는 등 어떤 가족 모임을 가져도 누구하나 심심해하는 경우가 없다고. 이밖에 동문으로는 처조카 朴柱性군이 올해 법대에 입학했다.



2006년 8월 환갑 기념 출판기념회에서 앞줄 좌로부터 朴桂洙·金聖德동문, 처제인 텔런트 朴貞洙씨. 뒷줄 좌로부터 金勳燁동문 부부.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아 협회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또 차기회장 후보로 나서는 등 정신없이 지내고 다시 돌아오니 살맛이 난다고나 할까요. 환자를 돌보느라 예전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힘들 때가 많았는데, 친정이나 다른 없는 병원에 오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파란색 수술복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중 유일한 교수인 金聖德동문은 당시 협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회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면서 2개월간 자신의 역량을 다해 대한의협을 이끌었다.

“대한의협 회장에 선출되지 못했지만,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후보로 나서는 동안 오랜만에 원로 선배부터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문들이 모임을 한번씩 가질 정도로 단합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동문간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하니 저도 동창회 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생각이에요.”

4남1녀 중 장남인 金동문은 개성에서 태어나 월남한 후 대학시절 유명한 축구선수였던 선친 故 金寬亨옹의 권유로 의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한다.

“할아버지께서 부친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셨는데, 뜻대로 안돼 교육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너는 의사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의대에 들어가게 됐죠.”

金동문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스포츠를 연마하고, 저녁에는 부인과 함께 동기모임, 학회모임 등에 빠짐없이 참여할 정도로 타고난 체력을 지녔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축구를 좋아해 오랫동안 학생 대표선수로 뛰었는데,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테니스를 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또 테니스 대표선수로 뽑히게 된 거예요. 다행히 공부와 스포츠, 둘 다 열심히 해서 모교에 입학했고요. 지금까지도 테니스와 축구는 동료

金聖德(의학65-71)동문 가족

부인

朴桂洙(간호67-71)

장남

金勳燁(의학92-98)

처조카

朴柱性(법학07입)

및 직원들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과 이런 취미활동을 함께 못한 게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지만, 대신에 자기를 희생해서 두 아들이 각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훌륭한 안내자 역할을 해주고, 남편이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헌신적으로 뒷바라지해준 아내를 위해서 어디든 함께 잘 다니는 편이에요. 가끔 인터뷰에서 건강비결이 무엇이라고 물어오면 ‘아내가 만들어주는 밥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국 아니면 찌개와 김, 생선 한 토막 등 정찬을 차려준 식사를 하기 때문에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金聖德동문이 대한마취과학회 이사장, 대한소아마취학회장, 보라매병원장을 역임하고 대한의학회 부회장, 의학 한림원 정회원 등 바쁜 대외활동을 하는 동안 부인 朴桂洙동문은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가 되겠다는 장남 金勳燁동문, 그리고 컴퓨터에 남다른 재능이 있었지만, 부친과 형처럼 의사가 돼야겠다는 공학도에서 의학도로 전향(?)한 차남 金俊燁씨와 함께 지금까지도 세 母子가 훌륭한 팀워크를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金동문은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어하는 영어, 한자, 컴퓨터 숙제도 틈틈이 봐주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아들들도 이를 이해하는지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무엇보다 자기 대신 부인에게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

“저희 집에는 ‘화목하자. 부지런하게 일하자. 진실 되게 살자’라는 자그마한 액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두 아들이 전문의가 되고 대학병원이든, 개원의가 되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게 우리 부의 바람이고, 그때가 되면 어릴 적 함께 가지 못했던 여행이나 실컷 가야죠.” <表>

2008년부터 제2전공 의무화

공·의·치·수의대는 제외

모교 소식

모교(총장 李長茂)가 2008학년도 1학기부터 복수전공, 연계전

공, 학생설계전공 등 제2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

모교는 최근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내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다. 이에 따라 지난 5년간 연평균 4백37명(복수전공 4백6명, 연합전공 31명)만 수강하던 제2전공이 모든 학생으로 확대된다.

모교가 의무화한 제2전공은 ▲2개 이상의 기본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해 만든 전공을 추가로 이수하는 연계전공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심화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

성하는 학생설계전공 등이다.

기존에 운영되던 복수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대의 복수전공자 선발도 추진한다. 또 사범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하고, 선발 기준의 성적 하한선(평점 2.7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학생들은 기본전공에 해당하는 39학점을 이수하고 심화·연계·학

생설계전공의 경우 21학점, 복수·연합전공의 경우 39학점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소속 전공과 제2전공의 전공과목이 중복될 경우 12학점까지 이수를 면제해준다.

다만 공학인증제가 실시돼 소속 전공 학점을 60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공대와 교과과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의대, 치대, 수의대 등은 제2전공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당 모교병원

‘광역학치료센터’ 개소

분당 모교병원(원장 姜興植)은 최근 최첨단 레이저를 이용해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없애는 차세대 암치료법인 ‘광역학 치료(PDT)’를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광역학치료센터를 오픈했다.

광역학 치료는 암세포에만 축적되는 광감작제를 암 환자에게 주사한 후 광감작제에 민감한 흡수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쏘여 암세포만 파괴한다. 상당수 조기암 치료뿐 아니라 보편적인 암 치료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 요법 등을 받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특히 중요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분당 모교병원은 광역학치료센

터를 통해 폐암(흉부외과 錢相勳·金亨烈교수, 호흡기내과 李在昊교수), 후두암(이비인후과 河廷勳교수), 식도암(흉부외과 錢相勳교수, 소화기내과 朴永秀교수), 위암(소화기내과 李東浩·朴永秀교수), 담도암(소화기내과 黃辰赫·李相協교수), 뇌종양(신경외과 金幸用교수) 등을 본격 치료할 계획이다.

자연과학대학

‘최고자문단’ 구성

자연과학대학(학장 吳世正)은 지난 7월 2일 국내 대학 최초로 사회 각계의 명망 있는 인사들로 짜여진 정책자문단인 ‘자연과학대 최고자문단’(단장 鄭雲燦)을 구성했다.

선배님,아세요?

다양한 상징물 ⑰

치대 새 천년 기념 조형물

지난 2000년 10월 모교 연건 캠퍼스 치대 교정에 설치된 새 천년 기념 조형물.

당시 치과대학동창회는 건립기금으로 3억3천3백여 만원을 모금했으며 이중 1억원을 모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조형물(가로 7m×세로 6m×높이 7.5m, 재질 스테인



레스)은 경기대 朴光一(조소 82-89)교수가 제작했으며, 전체적인 분위기는 영원하라는 의미에서 ‘원’을 강조했다며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달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이번 자문단에는 鄭雲燦(경제 66-70)前총장을 비롯해 녹십자 許永燮(금속공학60-64)회장, 金明子(화학62-66)국회의원, 삼성 SDI 孫郁(기계공학63-67)상남역, LG화학 余琮琪(화학공학65-70)고문, 중앙일보 洪錫炫(전자공학68-72)회장, 아주대 수학과 高季媛(수학69-73)교수, LG전자 李熙國(전자공학70-74)사장, 우리금융지주 朴炳元(법학71-75)회장 등 재계·학계 등의 유력인사

9명이 참여했다.

자문단 구성은 대학의 운영과 사업 방향에 대해 학교 밖의 다양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상시적인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吳世正학장은 “사회 명망가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한 것은 국내 대학 중에는 첫 사례”라며 “앞으로 매년 2차례 정기적으로 만나 자연대 발전에 대한 조언을 듣겠다”고 밝혔다.

기억 단백질 제어 가능

모교 세계 최초 발표

모교 두뇌한국(BK21) 인간생명과학사업단 연구팀이 지난 7월 23일 학습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 단백질들을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

모교 생리학교실 金相政(의학 86-90)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 ‘mGluR1 신호의 장기적 감소’를 세계 최정상 생물학 관련 학술지인 ‘뉴론’(Neuron)지 지난 7월 19일자에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Glutamate)의 여러 형태 가운데 소뇌의 특정 세포에서 발현되는 대사성 글루타메이트 수용체 1형(mGluR1)이 기억과 학습 활동을 조절한다.

mGluR1이 제거된 실험용 쥐는 자극이 반복돼도 새로운 것을 기억하고 배우는 데 장애를 겪으며 mGluR1이 발현된 신경세포가 해로운 전기자극을 받으면 신호의 세기가 점차 감소하다 사라져 기억과 학습 능력이 감퇴하는 현상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연구팀이 2003년 11월 mGluR1의 신호전달 기전과 관련해 ‘네이처’(Nature)지에 발표한 논문의 후속 작품이다. <燮>

모교 박사학위 6년반만에 가능

학+석사·학+석+박사과정 내년 도입

모교 교무처(처장 金完鎭)는 2008학년도 1학기부터 학부와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고 지난 7월 19일 밝혔다.

학·석사 연계 과정은 총 5년(학사과정 3.5년+석사과정 1.5년),

학·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은 총 6.5년(학사과정 3.5년+석·박사 통합과정 3년)으로 운영된다.

이는 모교가 이공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기초 수학·과학 과목의 수준별 분반 제도를 도입하고 최우수 학생들의 기초 과목 이수를 면

제해 주는 등 이공계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학부와 대학원 연계과정 진입 자격은 입학 후 4개 학기(2학년)를 이수한 뒤 직전 학기까지 평균 평점이 3.3점 이상이어야 한다. 선발 인원은 해당 학과 일반대학원 정원의 30% 이내이다.

선발된 학생들은 일반 학생에 비해 학기당 3학점을 더 들을 수 있으며 학사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약학대학 학장에

徐永鉅교수



지난 7월 15일 열린 약학대학 학장 선거에서 약학과 徐永鉅교수(사진)가 당선됐다.

신임 徐永鉅학장은 1975년 모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 동대학원에서 약품화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피츠버그대학에서 유기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8년부터 모교 약대 교수로 재직중인 徐교수는 약대 부학장을 등을 역임했다.

농생명대학 학장에

朴恩雨교수



지난 7월 15일 열린 농생명과학대학 학장 선거에서 朴恩雨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신임 朴恩雨학장은 1977년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농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일리노이대학교에서 식물병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모교 농생대 교수로 재직중인 朴교수는 모교 정보화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미술관

白溪 鄭埤永교수 기증 작품전

미술관(관장 鄭馨民)은 지난 7월 4일부터 20일까지 2003년 모교 미대 동양화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白溪 鄭埤永(회화56-60)동문(사진)의 기증 작품전을 개최했다.

미술관은 鄭동문이 모교 후학들을 위해 기증한 수묵 추상 작품, 드로잉 작품, 화첩류 등 총 66점을 판매해 발전기금을 모금했다.

鄭동문은 “평생 그려온 작업은 언젠가 누구에게 값있게 보이고 또 후학을 지도한 교육자로서, 작가의 소신과 업적을 보임으로써



좋은 대화의 장이 될 것을 확신하며, 영구히 안전하게 보존하고 학교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작품 기증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鄭동문은 82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 91년 제1회



잇혀진 것들-37, 한지에 수묵, 180×120cm, 1992.

MBC미술대전 초대작가 선정위원, 95년 동아미술제 심사위원, 99년 대한민국 문인회특별대전 심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대서 삼성카드 간부 대상 교육 실시

‘블루오션’ 개척하는 전문가 육성



모교에 신용카드 전문가를 길러내기 위한 산학협동 과정이 생겼다. 삼성카드(대표 柳錫烈 경영 70-74)는 모교 공과대학 대학원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과정에 ‘금융 마케팅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6주 동안 대리급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7월 3일 밝혔다.

이 과정은 삼성카드가 모교에 의뢰해 개발됐으며,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낸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金泰由(자원공학70-74)교수 등 모교 교수 7명과 연세대 교수 2명이 마케팅과 리스크 관리, 소비자 행동과 시장 수요 예측 등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

삼성카드 최종수 인사지원실장은 “금융업의 비중이 늘면서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실무자들이 업무 현장에서 체득한 마케팅 기법과 경영학 이론을 접목시켜 ‘블루오션’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대학

CEO인문학 과정 신설

모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최고위 과정’을 신설한다.

인문대학(학장 李泰鎭)은 이번 9월 가을학기부터 기업 경영자들

에게 ‘창조적 리더십’을 고양시켜 줄 수 있는 인문학 최고경영자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고 지난 7월 12일 밝혔다.

이 과정은 글로벌 경영, 창조경영, 윤리 경영 등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음대 기악과 교수에 피아니스트 박종화씨



음악대학(학장 申秀貞)은 최근 33세의 피아니스트 박종화(사진)씨를 기악과 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朴교수는 21세에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5위에 입상하는 등 국제적으로 실력을 인정받는 젊은 연주자로, 2005년 사임한 白惠善교수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된다.

朴교수는 일본 동경 음대 영재과정과 미국 뉴잉글랜드 콘서바토리, 독일 뮌헨 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등 주로 외국에서 경력을 쌓았다.

朴교수는 빠르면 9월부터 모교 강단에서 후진 양성에 나선다.

(변)

재학생의 소리

우리 열정이 선배들에게 기쁨되길



林鉉友

(언어03입)

서울대 기독인연합 대표

서울대에는 약 80여 개의 과 중 40여 개의 과에 ‘과 기독인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여 개 정도의 크고 작은 선교단체(CCC, IVF, 예수전도단, JOY 등)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기독인 연합은 이러한 모임의 연합체입니다. 매학기 개강, 종강예배를 드리고 있고, 겨울에는 기독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교수님들과 함께 신입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 탈북청소년 과외 및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울대가 부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너진 가치의 회복해야하고 과마다 기독인 모임이 있어야 합니다.

서울대는 정직하지 못함으로 많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난 것도 있지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안에 어두운 모습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0년 전 공대 교회를 담당하셨던 오대원 목사님(예수전도단)을 초청해 지난 학기에 집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직하지 못한 것과 음란했던 것,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변화할 것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대 안의 문화를 바꾸고자 기도하고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쟁으로 인해 황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도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모임이 세워진다면, 이들에게 다가가 위로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서울대의 80여 개의 과 가운데 아직 40여 개의 과에는 이런 모임이 없습니다. 나머지 과에도 과기독모임을 세워 모든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2학기, 9월에 ‘과기독 모임 한마당’(과기독모임을 위한 집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기독인 학생들이 과를 품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학내에 약 20%의 기독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내에서 자신을 크리스천이라 드러낸 학생은 2%정도입니다. 저희는 비록 적은 수라 위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울대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한국교회의 소망이 되고, 이 민족을 축복하며, 땅 끝까지 기쁜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이 선배님들께 기쁜 소식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동문기자 취재수첩

10년 전 이태원 살인사건

과학수사를 소재로 한 미국 드라마 ‘과학수사대 CSI’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쓸쓸한 기억이 하나 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가슴 한켠에 묵직하게 자리잡고 있는, 내겐 아주 특별한 사건의 기억이다.

신문사에 갓 입사해 수습기자로 서울시내 경찰서를 전전하던 1997년 4월 4일 새벽 3시쯤이었다. 용산경찰서에 들렀다가 살인사건 증거물을 수습하고 있는 형사들과 마주쳤다. 전날 밤 10시쯤 이태원의 유명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만 22세의 남자 대학생이 흉기에 난자당해 숨졌다고 했다. 피문은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이 발견됐고 그 속에서 여러 장의 증명사진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선한 인상의 잘 생긴 청년이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인적사항을 메모한 뒤 사진 한 장을 얻어 취재수첩 속에 넣어놓았다.

기초 취재를 끝낸 뒤 새벽 4시쯤 현장을 확인하러 햄버거가게를 찾아갔지만 어이없는 광경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노란색 테이프를 둘러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감식관원들이 현장을 살살이 조사하고 있으리라는 예상과 달리 현장을 지키는 경찰은 아무도 없었다.

밤을 샌 직원들만 매장에 남아 사건현장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직원들에게 따져 물었지만 “경찰들도 다 철수했고 현장을 보

존하라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다행히 범죄발생 이틀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군 범죄수사대(CID)가 제보전화와 탐문수사를 바탕으로 사건당일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이야기한 사람을 봤다는 증인을 찾아낸 것이다. 미군 속의 가족인 만 18세의 P가 범인으로 지목됐고 사건당시 마약에 취해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P는 미국 LA의 ‘노르데14’라는 갱단의 일원이었고 이 갱단의 범행수법은 이번 사건과 동일했다. 며칠 뒤 P와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갑의 재미교포 L도 검거됐다.

그 무렵 검찰팀으로 옮기면서 이 사건은 기억 속에서 지워진 듯 했다. 그런데 이듬해 1월쯤 ‘딱한 사정인데 도와달라. 만나서 이야기 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 아들이 이태원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율이 느껴졌다. 그 때 내 지갑 속에는 숨진 대학생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었다. 몇 번인가 버릴까 했지만 버리지 못하고 간직해왔다.

그때 비로소 검찰이 CID의 수사결과를 뒤집고 L이 범인이라고 결론지은 사실을 알았다. P가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L만 양성반응이



宋世永
(철학86-91)
국민일보 사회부 기자

나온데다 L의 초기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다. 흉기로 찔른 각도를 볼 때 범인의 키가 1백80cm 이상이어야 한다는 법의학자의 소견도 L에게 불리했다.

L의 아버지는 생업을 접다시피하고 아들의 구명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아들에 대한 맹목적 애정만은 아니었다. CID의 수사자료, 현장 사진과 증거물들에 대한 국내외 법의학자들의 소견 등 그동안 모은 다양한 증거를 바탕으로 아들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다.

CID와 수사검사 등에 대한 취재를 거쳐 한국 검찰과 CID가 상반되는 수사결과를 내놓았으며 검찰의 수사내용에 의문

점이 있다는 기사를 2심 판결 직전에 출고했다. 현장보존이 안돼 법의학자의 소견이 사진만을 근거로 이뤄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2심 선고공판에서도 L이 범인라는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량만 징역20년으로 줄었다. P는 살인방조죄가 적용돼 장기 1년6월, 단기 1년의 징역형만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같은해 10월 L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검찰이 재상고했지만 1999년 9월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P는 그 전 해 8월 특사로 사면돼 풀려났지만 숨진 학생의 부모가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 직후 살인혐의로 고소해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검찰은 대법원의 최종확정판결까지 재수사를 미뤘고 담당검사가 실수로 출국금지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P는 미국으로 도주해 버렸다.

숨진 학생의 부모는 검사가 직무를 소홀히 했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지만 아들을 숨지게 한 범인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엉뚱한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겨우 피했지만 다 잡은 범인을 어이없는 실수로 놓쳤다는 점에서 지금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진하게 남아있다.

동문기자 취재수첩

왜 레이스에서 탈락하는 걸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느냐’고 많은 이들이 묻는다. 뽀족한 대답이 있을 리 없다. 다만 묻는 이가 참을성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한다. ‘대선은 1년 동안 나라 전체를 하늘로 획 던졌다가 내려놓는 것’이라고…。 먹던 밥상을 들어 천장으로 던지면 밥그릇도 국그릇도 김치종지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제자리에 있을 리 만무하다. 하물며 나라 전체를 들었다 놓는 대선이야 오죽 하라.

연초의 선두주자는 집중포화를 맞고 패가망신하기 십상이고, 뛰어들기만 하면 게임 끝이라던 다크호스는 “애개개” 비웃음만 산 채 퇴장하기 다반사다. 바야흐로 대선은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의 온갖 욕망이 표출되는場이고, 그 과정에서 부모자식도 갈라놓는 편가르기가 벌어지기 일쑤다. 온갖 폭로전과 거짓말과 권모술수는 이렇게 꿈틀대는 욕망의 한 자락 그림자에 불과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대선 과정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마련이다.

‘대선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다. 대선은 예기치 못한 우여곡절의 홍수 속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의 게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를 보자. 당시 盧武鉉후보는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승산이 없어 보였던 당내 경선, 지지율 추락으로 인해 당 내부의 후보 흔들기,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후보단일화 등 술한 우여곡절을 돌파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여러 모로 조건이 훨씬 좋았던 李會昌후보가 ‘병풍’ 하나를 돌파하지 못한 점과 대비된다. 어느 쪽의 난관이 더 어려웠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결국 매순간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이 있느냐 없느냐가 승부를 갈랐다.

역대 대통령들을 돌이켜 보면, 하나 같이 한 번쯤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초대 李承晩대통령은 망명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朴正熙, 全斗煥, 盧泰愚 前대통령은 쿠데타라는 死線을 넘었다. 金泳三, 金大中 前대통령도 민주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고, 현직 盧武鉉대통령은 남들이 죽는 길이라는 선거구를 찾아다니다시피 했다. 반면 그런 과정 없이 권좌에 올랐던 張勉 前총리나 崔圭夏 前대통령은 허망하게 물러나고 말았다.

올 대선과정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어김없이 목격된다. 범여권의 가장 강력한 잠재후보였던 高建 前총리나 鄭雲燦 前서울대 총장의 낙마가 대표적이



朴成來
(정치90-97)
KBS 정치외교팀 기자

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권력의지의 부족’이라고 말하는데, ‘권력의지’는 ‘죽더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마음가짐’에 다름 아니다. 두 사람의 경우 꽃가마 태워주기를 기다릴 뿐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은 찾기 어렵다. 겉보기엔 대통령이 될 만한 조건들을 누구보다 잘 갖추고도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은 서울대 출신이다. 서울대 출신들이 보장된 길만 쫓고, 위험이 수반된 길을 가는 데는 머뭇거리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한다면 지

나친 일반화일까? 그렇지 않다면 서울대 출신들이 다른 분야에선 정상급 성공을 거두면서 유독 정치 분야에서는 그렇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다. 정치는 예측가능하고 보장된 길이 아닌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헤겔의 ‘認定鬭爭’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벌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면서까지 인정받기를 바라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보다는 목숨을 구하기를 바란다. 목숨을 아낀 後者는 굴복해 奴隸가 되고, 목숨을 건 前者는 主人이 된다. 시대에 따라 양태는 다르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주인들 가운데서도 頂點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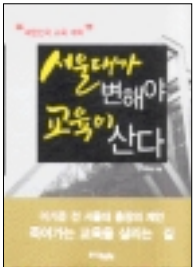
올 대선에서도 많은 서울대 출신 정치인들이 출사표를 던졌다. 온갖 우여곡절에 맞닥뜨릴 테고 매순간 죽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뜻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들에게 목숨을 걸라고 부추기려는 의도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죽어도 좋다고 덤비는 열에 아홉은 진짜로 죽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될 기회조차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대선에 나선 정치인들이 선택할 문제다.

신 간

■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

— 李基俊 지음



모교 공대

화학생물공학 부李基俊(화학 공학 57-61) 명예교수가 죽어가는 우리 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학 개혁을 제안한 책.

대학 개혁의 절실한 필요에서 출발한 이 책은, 모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현재 대학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보고 있다.

모교 총장을 역임한 저자는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대학들의 사례와 우리의 현실을 비교하고 분석해, 우리나라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저자는 현행 우리나라 국립대학, 특히 모교와 같은 대학 운영체제로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또 대학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앙북스刊·값15,000원>

■ 시간의 부드러운 손

— 金光圭 지음



1971년 계간 '문학과지성'으로 등단한 이래, 30년이 넘는 시력을 통해 시대와 삶에 대한 통찰을

맑은 언어로 옮기는 작업에 매진해온 金光圭(독문60-64 한양대 명예교수)동문의 아홉 번째 시집. 2003년 여름부터 4년 동안 발표한 72편의 작품이 수록돼 있으며, 36년간 몸담았던 교직에서 물러나 전업시인의 길로 들어선 시인의 마음자리 안팎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소박하고 작고 안락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그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와 다른 별천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늘 부딪치며 살아가는 일상의 세계이다. 우리는 미처 체감하지 못하고 지나친 그 따뜻한 세상을 시인의 시를 통해 비로소 다시 산다. <문학과지성사刊·값6,000원>

■ 태초에 하나님이

— 裴庸燦 지음



문을 깨는 이야기.

裴동문은 세상을 바꾸는 일도,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의 역사도 모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裴동문은 현재 멜버른한인교회 장로로 활동하며, 호주 교계 월간지 '크리스찬 리뷰'에 글을 연재하고 있다. <예영커뮤니케이션刊·값11,000원>

■ 현대인도 못 알아먹는

현대미술

— 趙英男 지음



가수 겸 화가, 畫手로 불리는 趙英男(성 악 64 입) 동문 이 쓴 현대미술 안내서. 어려운 현대미술을 어떻게 봐야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를 현대인에게 알려주는 경쾌한 길잡이다. 화가로서의 趙동문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비평안과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풀어내는 그의 글솜씨를 함께 만날 수 있다. 미술작품 앞에서 무조건 주눅 드는 사람들, 혹은 어렵다고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현대미술 보는 법을 알려준다.

이 책은 현대미술의 맥을 정리한 본격적인 미술개론서이다. 趙동문이 '현대미술의 진짜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마네부터 비디오파트라는 새로운 미술을 개척한 백남준에 이르기까지, 현대미술이 시작된 순간부터 현재까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길사刊·값18,000원>

■ 별들의 노래

— 吳鍾權 지음



법 무법인 새한양 吳鍾權(법학 65-69) 변호사가 양심적 병역 거부로 법정에서 젊은이들을 소재로

죽음, 믿음, 자유, 양심 등 인간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형상화한 장편소설.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사회적 이슈를 소설로 녹여낸 이 책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당연히 병역 거부를 하고 당당히 맞서는 젊은이의 노정에서 겪게 되는 난관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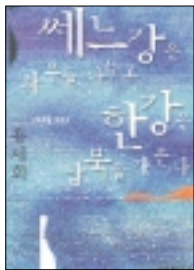
또한 이를 둘러싼 법관, 변호사,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대학 생활과 젊은 날의 사랑과 방황을 흥미 있게 담았다.

인생이라는 흐름에 따라 어른이 되어가고, 각기 사회인이 되어가면서 각기 나름의 직업을 가지면서 나름대로의 삶의 의미부여를 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중명출판사刊·값9,800원>

■ 세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 洪世和 지음



평에세이.

파리에 살면서 체득한 유럽문명의 실상을 드러내고 한국사회에 잘못 알려진 허상을 밝혔다.

책의 제목을 통해 우선 '한강은 서울을 강남과 강북으로 가르며 흐르고, 세느강은 파리를 좌안과 우안으로 가르며 흐르는데,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 반세기를 넘겼고 프랑스는 현재 좌우 동거 중에 있음'을 의미있게 되새겨 보게 한다. <한겨레신문사刊·값8,500원>

■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코끼리 모독

— 金碩禧 옮김



할리우드의 저명한 동물 조련사인 랠프 헬퍼가 집필한 이 책은 70년 동안 3개 대륙에 걸쳐 전파되

는 코끼리 모독과 브람의 모험 그리고 우정을 담은 실화소설이다.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번역해 화제가 된 金碩禧(불문 72-76)동문이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흥미진진한 모험담, 송고한 사랑이 주는 위대한 감동, 삶의 지혜와 통찰이 담긴 잠언과도 같은 문장이 돋보인다. <동아시아刊·값9,800원>

공연

■ 申敏定 피아노 독주회

— 8월 19일 예술의 전당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이사인 피아니스트 申敏定(기악85-89)동문(사진)이 오는 8월 19일 오후 3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갖는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민속춤을

소재로 샤르벵카, 파데레프스키, 시마노프스키, 모스코프스키, 쇼팽 등 폴란드 음악가들의 대표적인 피아노곡을 선보인다. <공연문의: 예인예술기획 586-0945>

■ 건강하게 사는

63가지 비결

— 黃義鉉 지음



한국공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黃義鉉(외교79-83)동문이 펴낸 건강이야기.

이 책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는 법, 일상생활의 웰빙테라피로 건강하게 사는 법, 여행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스트레스 해소로 건강하게 사는 법,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명상으로 건강하게 사는 법 등 6개 주제로 구성됐다.

黃동문은 이 책에서 마음상태와 신체건강이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서술하며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영적 측면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비결을 설명하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에 자신을 가둬놓지 말고 고통의 실체를 파악해 한 차원 높은 곳에서 그것을 내려다보라고 강조한다. <책과사람들刊·값12,000원>

■ 테라피

— 權赫俊 옮김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저작권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학자 제바스티안 피체크가 쓴 소설을 權赫俊(독문83졸)동문이 번역했다.

사라진 딸을 찾는 정신과 의사와 미모의 여작가가 벌이는 정신분석 게임. '내 눈앞의 모든 것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인가'라는 화두를 담은 작품으로, 타인의 뇌 안에 잠재해있는 비밀을 분석하는 정신과 의사가 '목격자도 없고 사체도 없고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 파피용

— 전미연 옮김



'천사들의 제국', '뇌',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신작 장편소설을 전미연(불문 88-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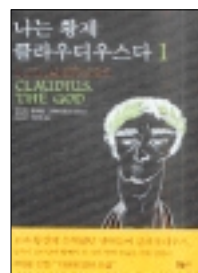
한국의국어대 강사)동문이 우리말로 옮겼다. 태양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대한 우주 범선 '파피용'을 타고 1천년간의 우주여행에 나선 14만4천명의 마지막 지구인들. 인간에 의해 황폐해진 지구를 떠나 새로운 희망의 별을 찾아 나서는 모험담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다.

우주를 무대로 한 이 소설은 과학과 문학을 결합시키는 작가 특유의 재능이 잘 드러나 있다. <열린책들刊·값9,800원>

■ 나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다 1·2·3

— 오준호 옮김



잉글랜드 워블턴 출신인 로버트 그레이브스가 말더듬이 황제 클라우디우스를 통해 로마 초기 황제시대를 흥미롭게 복원한 역사소설.

전문번역가 오준호(국문05졸)동문이 우리말로 옮긴 이 책은 로마의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손자였으나, 짐을 흘리는 말더듬이에다 실수투성이의 절름발이였던 황실의 천덕꾸러기 클라우디우스가 권위 있는 황제로 변모하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냈다. <민음사刊·각권 값10,500원>

동 정

수 상

▲徐世鈺(회화46-50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한국화가)=오는 9월 5일 제52회 대한민국예술원상(미술 부문) 수상.

▲鄭海湧(법학63-68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지난 6월 8일 한국정보시스템학회·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공동학술발표대회에서 제1회 한국경영자 대상 수상.

▲林憲媛(기악68졸 성신여대 교수·한국반주음악연구소장)=지난 7월 24일 한국음악평론가협회로부터 제23회 서울음악대상 수상.

▲左承喜(경제67-71 경기개발연구원장)=지난 7월 16일 서울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25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대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慶奎漢(경제68-76 리바트 사장)=지난 6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가 주최한 '2007 국가환경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수상.

▲成英熙(간호72-76 삼성서울병원 간호본부장)=지난 7월 4일 건강보험제도 도입 30주년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鄭海文(무역72-76 전주그리스대사·부산시 국제관계자문대사)=지난 6월 14일 그리스의 최고수교훈장인 '피닉스 대십자 훈장' 수훈.

▲金英任(간호73-77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지난 7월 2일 제4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을 맞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金信培(산업공학74-78 SK텔레콤 사장)=지난 6월 13일 서울한국경제신문 다산홀에서 제16회 다산경영상(전문경영인 부문) 수상.

▲朴仁皓(물리교육74-78 인천대 교수)=지난 7월 8일 과학기술부가 제정한 '이달의 과학문화인상' 수상자에 선정.

▲權東一(금속공학75-79 모교 재료공학부 교수)=지난 7월 4일 포르투갈리스본에서 열린 국제해양 및 극지공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 수상.

▲趙仁鎬(화학공학83졸 SK에너지 수석연구원)=지난 7월 9일 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수여하는 '이달의 엔지니어상'(대기업부문) 수상자에 선정.

▲金甫源(경영84-88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난 7월 16일 서울매경미디어센터에서 제25회 정진기언론문화상 장려상(경제경영도서부문) 수상.

▲金希媛(인류89-93 한국일보 기자)=지난 7월 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제8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신문·잡지부문) 수상.

▲朴相熙(AMP 26기·ACAD 24기 중소기업포럼 회장·미주오토크 회장)=지난 7월 13일 한국중소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공로로 한국국제경상교육학회로부터 '2007 중소기업 CEO 대상' 수상.

▲李義鉉(AIP 20기 대일특수강대표·중앙대 객원교수·한국광생보호공단 이사)=지난 7월 19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수여하는 '2007 글로벌비즈니스경영대상'(중화학제품부문) 수상.

▲李承漢(SGS 11기 삼성테스코 사장)=지난 7월 11일 서울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한국표준협회가 제정한 제1회 '2007 대한민국 창조경영인상' 수상.

▲姜德壽(GLP 8기 STX그룹 회장)=지난 7월 15일 사단법인 해양산업발전협의회로부터 제1회 대한민국 해양대상 수상.

인 사

▲金琦洙(행정47-51 前브라질 대사·한국유도회총본부 상임고문)=최근 사단법인 한국한시협회 임시총회에서 3년 임기의 제10대 이

사장에 선임.

▲玄炳九(채광학49-54 모교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朴秉濠(법학50-55 모교 법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星珍(교육53-57 모교 교육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張潤宇(응용미술56-62 성신여대 명예교수·한국종이접기협회장)=지난 7월 2일 서울 여성개발원에서 열린 한국종이접기협회 총회에서 제6대 회장에 재선임.

▲趙東一(불문58-62·국문66졸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柳莊熙(경제59-63 이화여대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林繁藏(체육교육60-64 모교 체육교육과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高在丞(치의학60-67 모교 치의학과 명예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泰鎭(사학61-65 모교 국사학과 교수·인문대학장)=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李正馥(정치63-67 모교 정치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吳 明(전자공학64-66 건국대 총장·본회 부회장)=지난 7월 20일 육사 화랑회관에서 열린 육사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7대 회장에 선임.

▲洪在星(불문64-68 모교 불어불문학과 교수)=지난 7월 13일 대한민국 학술원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원에 선출.

▲張周鎬(행정대원69졸 한국체육인회장)=최근 2008년에 열리는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조직위원회 부위원장 겸 집행위원장에 위촉.

▲朴明潤(보대원74-76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사장·관악회 이사)=지난 7월 1일 임기 2년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에 임명.

▲金相浩(ACAD 26기 예비역 육

군 중장)=지난 7월 16일 (주)중앙고속 대표이사에 선임.

▲金道淵(HPM 13기 비경한의원장·경희대 외래교수)=지난 7월 1일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한수로타리 클럽 제17대 회장에 취임.

행 사

▲李長茂(기계공학63-67 모교 총장)=지난 7월 16일부터 3일간 미국 시애틀에서 열린 '2007 마이크로소프트 연구소 패컬티 서밋'에 참석해 컴퓨터 관련 학문 발전에 대해 논의.

▲金九植(국어교육55-59 모교 국어국문학과 명예교수·문학평론가)=최근 '일제말기 한국인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론'(서울대출판부) 출간.

▲俞東濬(잠사56-60 한국단미사료협회장·수원지부동장회장)=지난 6월 28~29일 충남 대천소재 환상의 바다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단미·보조사료 품질 및 위생·안정성 교육 실시.

▲李基俊(화학공학57-61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명예교수)=지난 7월 10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

이 산다'(중앙북스) 출판기념회 개최.

▲李炳熙(농학57-63 모교 명예교수·한국블루베리협회장)=지난 7월 6~8일 경북상주시에서 '블루베리의 생산현황과 유통'을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夫賢一(회화58-64 제주대 명예교수)=지난 7월 18~23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58년 입학동기들의 작품으로 제23회 58동문전 개최.

▲李秉錫(회화58-62 서울은평미술협회장)=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린 '2007 국제현대미술제'에 출품.

▲奉鍾憲(전문기상60-66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지난 6월 29일 서울 대방동 공공회관에서 기상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7월 26일 서울 정동 세실에서 '2·13합의와 한반도 평화-북한의 국제법적 과제'를 주제로 월례발표회 개최.

▲李仁濟(행정68-72 국회의원)

=지난 7월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라에서 백두를 보네'(시사미디어) 출판기념회 개최.

▲徐浩錫(의학68-75 고려대 교수·동아시아 인류유전학회 회장)=오는 12월 6~8일 중국에서 제7차 동아시아 인류유전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南相宇(행정원73졸 충북 청주시장)=지난 7월 17~25일 미국 UN본부에서 열린 '직시심체요절 홍보 특별전'에 참석.

▲朴院哲(법학69-76 흥사단 민족통일본부 상임대표)=지난 7월 25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에서 '통일 지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이란 주제로 흥사단 통일포럼 개최.

▲裴圭漢(사회70-7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지난 7월 20일 서울 중앙대에서 '다문화 청소년 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李長熙(대학원75졸 한국외대 대외부총장)=지난 7월 23일 일본 도쿄 재일한국YMCA호텔에서 '일본의 우경화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로

국제세미나 개최.

▲李東傑(경제73-77 한국금융연구원장)=지난 7월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회사의 스톡옵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卞東炫(대학원77졸 서강대 교수·한국방송비평회장)=지난 7월 19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한국 텔레비전 방송의 윤리성에 대한 비평'이란 주제로 제3회 좋은 방송 포럼 개최.

▲朴室相(AMP 9기·ACAD 20기·AIC 9기 월드조인트 사장)=지난 7월 5일 경남 김해 월드조인트에서 AMP영남지부

서경회 회원들이 부부동반으로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 개최. 또 26일 부산 건설회관 로얄백패에서 朴室相동문의 모친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제1회 효자·효부 시상식 개최.

명복을 빕니다

본회 閔復基고문



로 별세했다.

1913년생인 고인은 1937년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뒤 1939년 경성지법 판사가 됐다.

제5·6 대 대법원장을 지낸 본회 閔復基고문이 지난 7월 13일 모교 병원에서 노환으

▲金貞淑(ACAD 27기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지난 7월 22~28일 전북 덕유대 청소년야영장에서 미국, 뉴질랜드, 케냐 등

30개국 1만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2007 국제도전캠프' 개최.

▲朴永享(ACAD 43기 한국기업경영연구원 회장)=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주최한 특별연수회에서 '신임 감사가 점검해야

할 중점사항과 관련법규 및 표준모델'이란 주제로 특강. 또 7월 13~16일 몽골 울란바토를 방문해 기업투자 환경조사를 마친.

▲梁在吉(GLP 5기 춘곡 대표·복지사회를 위한 4050연대 상임공동대표)=지난 6월 28일 서울 잠실 교통회에서 복지사회를 위한 4050연대 정기총회 개최.

광복 후 법무부 검찰·법무국장을 거쳐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고, 1968년부터 10년간 대법원장을 지내 역대 최장수 대법원장 기록을 갖고 있다.

고인은 1974년 7월부터 1980년 3월까지 본회 5~7대 회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고문변호사로 활동했다. 197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2000년 제8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장남 경성 씨를 비롯해 2남2녀가 있다. 유해는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치됐다.

'동정'난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24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동창회보에 게재됩니다.

- 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서울대 연구공원 219호
- 이메일 : snua@paran.com 또는 snua1969@empal.com
- 전화 : (02)886-2219
- 팩스 : (02)886-2218

장학빌딩 건립기금 모금 운동은 계속됩니다

〈너도나도 베풀 한 장이라도...〉

계좌번호 : 국민은행 827-01-0248-017 / 신한은행 343-05-019330 / 농협 069-01-272391 [예금주 : (재)관악회]

목표액 : 300억원

◆ 50억원

△임광수(기계공학48-52)

◆ 15억원

△신명규(생물교육48-54)

◆ 10억원

△강신호(의학48-52)

△곽영필(토목공학56-60)

△구평희(정치학47-51)

△김상하(정치학45-49)

△김은중(경제학59-63)

△김정식(통신공학48-56)

△김중섭(사회사업66-70)

△김형주(토목공학46-50)

△신창재(의학72-78)

△오동영(조선항공54입)

·김찬숙(치의학56-60)

△정계영(상학61-66)

△정팔도(AIP 1기)

·이자행

△홍성대(수학57-63)

◆ 5억원

△김주진(법학54입)

◆ 3억원

△김병순(AMP 4기)

·이지호(의학77-83)

△이길여(의학51-57)

△정석규(화학48-52)

◆ 2억원

△이종기(경영학69-73)

△장학순(토목공학46-50)

◆ 1억6천만원

△기계동문화

◆ 1억5천만원

△故김도창(법학43-47)

·목춘5부자

△SNUA웨딩플래닝센터

◆ 1억1천만원

△수학과동창회

◆ 1억원

△강순걸(법학54-58)

△김두희(물리학52입)

△김문현(상학58-64)

△김정철(건축학52-56)

·김정식(건축학54-58)

△김창식(전기공학53-57)

△나공목(상학56-61)

△남정현(건축학57-61)

△노인환(경제학54-58)

·故한명화(가정교육60졸)

△류중희(기계공학53-57)

△명태현(기계공학46-50)

△박성훈(기계공학58-63)

△박실상(AIC 9기)

△박희백(의학51-57)

△서정화(법학51-55)

△故손치무(대학원70졸)

△안성철(행정학58-63)

·손윤숙

△故양은숙(간호학51-54)

△故오응현(섬유공67-71)

·추경옥

△오홍조(치의학56-61)

△우인성(기계공학58-62)

△유상부(토목공학60-64)

△이금기(약학55-59)

△이상범(법학53-57)

△이수범(행정학56-60)

△이예식(약학46-49)

△이준행(섬유공학48-54)

△이지호(의학77-83)

△이해원(행정학51-55)

△장세일(전기공학59-63)

△장중환(의학69-76)

△전동용(수의학52-56)

△정운환(임학56-62)

△정충시(화학공학72-76)

△조병우(섬유공학59-64)

△지원철(축산학73-77)

△최두형(행정학51-55)

△최상홍(기계공학54-58)

△최희장(섬유공학58-64)

△홍상옥(원예학83-87)

△보대원동창회

◆ 8천만원

△곽동현(법학61-65)

◆ 6천만원

△김유택(경대원68-70)

△엄병운(외교학60-64)

◆ 5천만원

△공대식(기계공학56-60)

△김정희(약학57-61)

△김중기(생물교육51-55)

△김중현(경제학55-59)

△류재명(AMP 34기)

△마국철(공업교육68-72)

△박명운(보대원74-76)

△박주탁(무역학69-74)

△손일근(법학51입)

△안 훈(수의학53-57)

△오인석(행정학58-62)

△유종해(법학50-54)

△이도경(농학56-63)

·이찬진(기계공학84-89)

△이승준(섬유공학56-60)

·이청원(자원공학67졸)

△이운주(의학83-87)

·오지은(인류학83-87)

△이재원(상학55-59)

△이종대(천문기상학69졸)

△이종현(경제학59-65)

△정대영(경제학51-55)

△정재봉(사회사업60-64)

△지창수(상학55-59)

△하권익(의학57-63)

△하상완(치의학64-70)

△황해근(토목공학54-60)

·故이금옥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

△농대 그린장학회

△일산회 :

김진의(축산학59-65)

△한우리SJM

◆ 3천만원

△고원호(기계공학48졸)

△박홍일(영어교육60-64)

△심형윤(토목공학52-56)

△원정수(건축학53-57)

·지 순(건축학54-58)

△유석홍(무역학61-65)

·박영희(기약70졸)

△이경택(섬유공학57-61)

◆ 2천만원

△강학순(기계공학64-69)

△김원일(건축학61-65)

·최미혜(성악66-70)

△김재백(약학52-56)

△서병륜(농공학69-73)

△윤세극(경제학45-51)

△조갑주(경제학58-63)

·정정영(불어불문62-66)

◆ 1천5백만원

△김철순(조경학76-83)

◆ 1천2백만원

△안동일(법학59-63)

△오상호(전기공학48-55)

△이내원(화학교육58-62)

◆ 1천1백만원

△김상수(자원공학73-77)

·김태훈(건축학02-07)

△정해남(법학72-76)

◆ 1천80만원

△서병태(의학54-60)

△조내규(약학58-62)

◆ 1천60만원

△김정범(치의학60-66)

△박준옥(약학55-59)

◆ 1천만원

△강용현(법학71-78)

△강행언(토목공학61-65)

△권동은(iIP 4기)

△권혁웅(불어불문59-63)

△금진호(법학50-58)

△김 철(기계공학64-68)

△김기춘(법학58-62)

△김두만(상학59-63)

△김미령(약학74졸)

△김백준(수학62-66)

△김병린(토목공학55-59)

△김선양(중어중문84-88)

△김연호(화학공학71-75)

△김영갑(법학74-78)

△김영석(경제학60-66)

△김원배(동물학55-60)

△김윤중(약학64-71)

△김일섭(경영학64-69)

△김재범(산업공학74-78)

△김중서(경제학58-63)

△김주환(토목공학57-61)

△김진규(기계공학61-66)

△문대원(경영학71-75)

△문성훈(식품공학86-92)

△박명학(영어교육61-65)

△박중국(농화학57-63)

△박준우(의학75-81)

△박진희(무역학76-80)

△박창우(경제학80-84)

△백사익(경성광전40-42)

△변상현(의학51-57)

△성백전(토목공학52-56)

△송명호(자원공학59-65)

△신방호(경제학67-71)

△신윤식(사학55-59)

△심이택(화학공학57-63)

△안경상(행정학57졸)

·김정애(가정교육54-58)

△양배덕(전기공학57-61)

△엄기영(사회학70-74)

△오병제(AMP 21기)

△오용섭(임학60-66)

△윤영석(경제학58-64)

△윤희진(축산학63-67)

△이강수(상학51-55)

△이경호(행정학61-65)

△이계우(행정학58-63)

△이병재(경대원69졸)

△이병형(화학67-71)

△이상현(정치학64-68)

△이석운(영어영문50졸)

△이영필(항공공학66-71)

△이재후(법학58-62)

△이전구(임학60-64)

△이종웅(기계공학65-69)

△이진규(치의학78-84)

△이창기(약학55-59)

△이형하(법학74-78)

△장무환(경제학45-51)

△장세권(농공학70-76)

△장지준(의학70-77)

△조길웅(HPM 14기)

△조정훈(자원공학75-81)

△최남해(상학52-56)

△최선집(사회교육75-79)

△최승철(기계공학66-70)

△최정길(금속공학52-56)

△최준기(조선항공57-61)

△하영기(정치학44-48)

△함정호(행정학53-57)

△허성길(경제학60-64)

△홍순자(독어교육61-65)

△황경로(AMP 11기)

△전북지부동창회

◆ 5백만원

△이현구(AMP 52기)

△법대37회 동교회

◆ 3백만원

△강영현(농경제학69-76)

△김영수(법학60-64)

△문규철(응용화학69-73)

△안재동(상학60-67)

△이성기(행대원63-65)

△하재규(농학53-57)

◆ 2백50만원

△정경모(행대원65-67)

◆ 2백만원

△문명국(기계공학73-75)

△이동수(건축학61-66)

△이준순(법학57-61)

△최창식(의학54-60)

△한규범(AMP 42기)

△우세홍(생물교육60-65)
 △우종호(중어중문60-64)
 △우효섭(토목공학72-76)
 △유필상(전기공학66-73)
 △윤옥영(수학58-61)
 △윤용혁(독어교육60-64)
 △윤원진(HPM 6기)
 △윤재석(화학교육71-75)
 △윤홍식(물리교육56-60)
 △이경렬(응용미술69-73)
 △이경재(화학59-63)
 △이광진(법학77-81)
 △이근수(신대원69졸)
 △이기봉(교육심리54-58)
 △이기준(경제학55-59)
 △이돈구(임학65-69)
 △이두현(행대원74졸)
 △이병목(의학54-60)
 △이삼휘(농화학66-70)
 △이상욱(경영학86-90)
 △이성호(AIP 32기)
 △이용우(공업교육64-68)
 △이인혁(섬유공학54-58)
 △이일훈(상학55-60)
 △이재식(교육학75-79)
 △이종대(독어독문64졸)
 △이종복(응용미술62-66)
 △이주한(역사교육53-57)
 △이중환(의학51-57)
 △이장건(전기공학49-54)
 △이창호(기계공학55-61)
 △이철주(상학59-65)
 △이태형(상학59-63)
 △이학숙(회화54-58)
 △이현재(경제학48-53)
 △이호인(응용화학66-70)
 △이희숙(영어교육61-65)
 △이희호(교육학46-50)
 △임광환(농경제학55-59)
 △임한조(물리학67-71)
 △장관봉(응용미술56-62)
 △장상원(영어교육57-61)
 △장철식(섬유공학49-55)
 △장혜실(성악69-73)
 △전병일(영어교육66-73)
 △전정구(경제학51-56)
 △전종갑(전문기상64-68)
 △전팔근(영어교육47-52)
 △정명희(의학65-71)
 △정민섭(임학59-63)
 △정병일(독어독문78졸)
 △정병해(정치학49-53)
 △정상조(행정학57-62)
 △정소성(불어불문64-69)
 △정영채(수리학56-60)
 △정완호(생물교육58-63)
 △정우식(항공공학80-84)
 △정정길(행정학61-65)
 △정흥숙(가정교육59-63)
 △정희준(법학57-61)
 △조무제(사대원65-67)
 △조병철(섬유공학59-65)
 △조영찬(중어중문74-78)
 △조완규(생물학48-52)
 △조원환(AMPP 6기)
 △조장환(농학53-60)
 △지철근(전기공학45-51)
 △진영춘(토목공학67-74)
 △진홍일(외교학62-66)
 △최동식(법학76-80)
 △최명재(상학48입)
 △최병순(화학교육69-74)
 △최종덕(물리학52-56)
 △최종운(의학77-83)
 △최환순(조선공학65-70)

△함종한(농업교육63-70)
 △홍성완(토목공학62-66)
 △홍순겸(AIP 5기)
 △황선용(사회교육57-61)
 △황성재(법학72-76)
 ◆60만원
 △부영옥(HPM 13기)
 △여인철(조선공학75-79)
 △이계홍(농공학56-62)
 △이범구(물리학69-73)
 △이정구(의학59-65)
 △이찬구(상학56-61)
 △이현구(화학공학58-62)
 △최병주(생물교육56-60)
 ◆50만원
 △강승호(수학교육67-71)
 △강일우(섬유공학71-75)
 △곽소진(신대원70졸)
 △권혁창(지구과학69-76)
 △김 신(경영학75-79)
 △김건중(정치학66-70)
 △김봉군(국어교육60-64)
 △김세겸(농공학59-63)
 △김용주(화학공학73-77)
 △김용진(대학원80졸)
 △김재현(경제학69-73)
 △김정우(상학67-71)
 △김진국(정치학78-85)
 △김혜경(생물교육70-74)
 △류재택(역사교육66-73)
 △박남훈(외교학68-75)
 △박양세(약학48-52)
 △박일재(화학공학78-82)
 △신동우(언어학71-75)
 △신정택(AMP 48기)
 △신한우(사회교육50-55)
 △어 당(섬유공학68-72)
 △오진환(법학75-79)
 △유성삼(기계공학59-65)
 △유종상(중어중문66-70)
 △유창용(의학84-88)
 △윤 백(기계공학78-82)
 △윤석용(채광학50-54)
 △이용팔(HPM 13기)
 △이은주(간호학90-94)
 △이인재(지질과학64-72)
 △이찬영(상학55-59)
 △이춘배(의학85-89)
 △이홍석(농학52-56)
 △임상규(금속공학68-72)
 △장영일(치의학64-70)
 △장희수(AMP 45기)
 △정상명(행정학68-72)
 △정성호(사법학81-85)
 △조달호(AMP 7기)
 △조성근(행대원61졸)
 △조수호(회화47입)
 △조영옥(가정교육58-62)
 △조용철(종교학64-68)
 △채경옥(경영학86-90)
 △최동수(경영학65-70)
 △최순철(치의학73-79)
 △최은규(국어교육78-82)
 △최현수(전기공학76졸)
 △황건호(경영학70-74)
 △홍석주(경영학72-76)
 ◆40만원
 △강만식(생물학51-55)
 △연대성(영어교육60-64)
 △이병효(공업교육63-67)
 ◆30만원
 △강창수(조선공학48-53)
 △고재홍(자원공학75-82)
 △곽영철(농공학59-65)
 △구본무(농공학62-66)

△구인환(국어교육50-54)
 △금명자(간호학76-80)
 △김기락(의학68-76)
 △김동완(행대원83-88)
 △김상원(농경제학52-56)
 △김상호(중어중문58-62)
 △김세재(동물학85졸)
 △김신원(응용화학64-72)
 △김영대(SGS 12기)
 △김유원(신대원72-74)
 △김응진(대학원49졸)
 △김정석(공예89-93)
 △김철중(물리학70-74)
 △김태수(영문학57-64)
 △김학근(법학75-79)
 △남창렬(화학교육65-69)
 △류해주(상학65-69)
 △문영도(경제학50-59)
 △박강문(국어교육63-68)
 △박경석(사학55-59)
 △박경엽(전기공학75-79)
 △박길상(사회학72-76)
 △박동우(농공학70-74)
 △박우규(토목공학70-75)
 △박정수(농공학61-69)
 △박현상(법학76-80)
 △백운택(영어교육63졸)
 △서경석(행정학67-71)
 △서육식(동양사학69-73)
 △소병수(사회학76-80)
 △손창수(AMP 41기)
 △신부길(농화학63-67)
 △안소연(공예89-93)
 △안재후(광산학52-56)
 △엄정식(신대원71졸)
 △연기호(행대원67-70)
 △유기수(물리학53-57)
 △유기홍(법학58-64)
 △유도봉(약학66-74)
 △유인광(수리학81-85)
 △유정열(기계공학65-69)
 △이건호(농경제학67-72)
 △이경형(사회학66-70)
 △이광찬(사회학58-62)
 △이남우(국제경제82-86)
 △이도전(임학55-60)
 △이만성(상학64-68)
 △이명호(iIP 3기)
 △이상훈(법학78-85)
 △이승복(기계공학61-65)
 △이연자(기약59-63)
 △이영기(법학71-75)
 △이종완(독어교육72졸)
 △이종휘(경영학66-70)
 △이천진(수학교육66졸)
 △이철근(조선항공58-64)
 △이향철(경제학54-58)
 △이희근(광산학55-70)
 △임수진(ACAD 56기)
 △임유철(국제경제84-88)
 △임주환(지질과학62-67)
 △장성종(축산학58-64)
 △정연국(식물학64-68)
 △정장환(AIC 11기)
 △조성수(의학62-66)
 △조효승(경제학84-88)
 △천주훈(섬유공학64-68)
 △최병덕(물리학55-61)
 △한동수(의학59-65)
 △한동주(응용미술70-74)
 △황덕연(토목공학60-64)
 ◆25만원
 △안대준(기계공학83-91)
 △이기준(iIP 2기)
 ◆23만원

△진재관(역사교육79-83)
 ◆20만원
 △강경돈(영어교육70-77)
 △강신홍(체육교육53-57)
 △강효식(치의학57-61)
 △고병철(국어교육61-65)
 △고정애(제약학87-91)
 △곽연구(AMP 34기)
 △권기술(AMP 9기)
 △권동환(ALP 2기)
 △권중화(ACAD 62기)
 △김광순(약학59-63)
 △김남용(축산학53-57)
 △김동암(축산학52-56)
 △김병문(AMFR 17기)
 △김봉규(영어교육52-56)
 △김상구(영어교육60-64)
 △김성로(토목공학52-56)
 △김용규(경제학78-82)
 △김용득(임학71-77)
 △김우전(AMP 7기)
 △김의식(상대전문46-49)
 △김일용(HMP 6기)
 △김창경(역사교육61-65)
 △김창근(법학51-55)
 △김철진(법학50-58)
 △김충섭(약학65졸)
 △김통호(건축학70-74)
 △노복길(원자핵공83-90)
 △노승권(사법학84-88)
 △노정학(수학교육73-77)
 △류종택(외교학56-61)
 △문동민(화학공학57-61)
 △문명호(영어영문59-64)
 △박병룡(경제학80-84)
 △박세운(농생물학76-82)
 △박윤해(공법학84-88)
 △박응복(수리학48-53)
 △박종만(치의학69-75)
 △박찬정(건축학73-77)
 △박철근(법학55-59)
 △배석필(행정학56-62)
 △변창훈(건축학70-77)
 △서문원(농학74-79)
 △선우종원(법학41졸)
 △송창기(중어중문57-62)
 △신경식(토목공학49-55)
 △신석우(보대원65-67)
 △신용일(교육심리53-57)
 △신한풍(농학59-63)
 △신현영(화학62-70)
 △심재엽(상학63-71)
 △안국정(사학63-70)
 △안태호(경제학45-53)
 △양세련(경제학92-97)
 △양흥석(전기공학46-47)
 △엄신흠(HPM 14기)
 △오규원(행정학65-69)
 △오근영(심리학59-65)
 △유봉환(기계공학56-61)
 △유석기(경제학57-61)
 △유정복(행대원86-88)
 △유태환(기계공학66-70)
 △유형식(치의학59-65)
 △육강화(사회학74-78)
 △이강소(회화61-65)
 △이경국(농학78-82)
 △이기태(불어교육59-65)
 △이동수(사회교육63-67)
 △이동일(노어노문85-89)
 △이민철(응용화학67-71)
 △이석우(경제학63-67)
 △이승훈(법학80-84)
 △이영옥(법학52-56)
 △이영운(수학교육58-62)

△이원욱(GLP 11기)
 △이유희(가정학64-68)
 △이재창(농학57-63)
 △이재전(법학52-56)
 △이준재(농화학57-63)
 △이한동(행정학54-58)
 △이형기(행대원70졸)
 △이흥탁(영어교육59-64)
 △임광순(GLP 7기)
 △임병문(토목공학58-64)
 △장기남(경제학61-68)
 △전남수(농화학54-58)
 △전도진(경대원70-72)
 △전임탁(가정관리81-85)
 △정규능(화학공학58-64)
 △정규수(물리학63-67)
 △정동성(농공학57-63)
 △정용권(조선항공58졸)
 △정윤용(화학71입)
 △정의조(수리학64-68)
 △조대승(조선공학81-85)
 △조두현(법학49-58)
 △진준현(고고미술77-83)
 △최 일(대학원72졸)
 △최광만(영어교육49-59)
 △최길선(조선공학65-69)
 △최병완(경제학57-61)
 △최성곤(법학78-82)
 △최수강(건축학70-77)
 △최흥락(경제학57-61)
 △한정길(농생물학63-70)
 △허영섭(지리교육74-78)
 △허운옥(철학57-64)
 △현소환(정치학57-61)
 △현호인(농화학53-57)
 △홍계화(상학66-70)
 △홍석기(AIC 9기)
 △홍종용(사학65-72)
 △황근영(생물교육50-54)
 ◆15만원
 △김명훈(교육학49-58)
 △김태영(ACAD 29기)
 △송창현(사법학88-93)
 △신동수(농공학55-61)
 △이승운(경영학93-97)
 △전동렬(물리교육75-82)
 △조 만(건축학56-60)
 △조혜중(지리교육61-65)
 △최돈형(물리교육68-72)
 △홍기갑(행정학66-70)
 ◆12만원
 △김정규(농화학84-88)
 △윤기숙(기약82-86)
 △정대수(신대원61-70)
 △정수봉(임학60-65)
 △최근수(법학81-85)
 △한홍진(대학원92-94)
 ◎태국지부
 ◆1천달러
 △김석근(농경제학50-55)
 △이정우(독어교육64-71)
 ◎인도네시아지부
 ◆1천달러
 △배상경(경제학56-61)
 ◆53명 1만달러
 △김 훈(임학76-80)
 △김두영(전기공학69-74)
 △김상진(임산가공71-75)
 △김석래(토목공학65-69)
 △김승부(상학61-65)
 △김영옥(전기공학69-73)
 △김영하(경영학70-74)
 △김익희(영어교육79-83)
 △김정환(자원공학80-84)
 △김춘성(국어교육81-85)

△김해근(토목공학73-77)
 △김현식(요업공학77-81)
 △민성식(자원공학71-75)
 △민형식(경영학73-80)
 △박성민(조선해양88-94)
 △박영근(화학공학71-75)
 △박종호(임학81-87)
 △배도운(언어학79-83)
 △배충복(경제학65-69)
 △백승배(섬유공학79졸)
 △백한미(수학교육83-87)
 △서기운(자원공학73-80)
 △소만호(경제학71-75)
 △신돈철(산업미술83-89)
 △안봉수(윤리교육81-85)
 △안석희(서어서문85-89)
 △염창진(경영학81-85)
 △오승환(경영학73-77)
 △윤창식(경영학72-76)
 △이기훈(산업공학72-76)
 △이병희(자원공학87-91)
 △이상복(언어학68-75)
 △이선현(화학공학74-78)
 △이원제(임학64-69)
 △임경진(경제학86-93)
 △장기남(자원공학74-78)
 △정 열(경제학70-74)
 △정무웅(상학60-64)
 △정용완(경제학88-92)
 △조관호(화학70-78)
 △최강호(금속공학76-80)
 △최장원(임학69-77)
 △최진한(섬유공학70-74)
 △최형순(임학69-73)
 △하석수(섬유공학68-72)
 △하창빈(언어학82-87)
 △한상규(영어교육72-76)
 △한상재(농업교육72-76)
 △한성국(국어국문81-89)
 △한승도(국사학84-91)
 △허광복(임산가공76-82)
 △허군옥(상학68-72)
 △황세호(수학교육80-84)
 (이상 2005년 10월 1일부터 2007년 7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2005년 10월 이전에 특지장학금을 출연해 주신 분 포함)

 ◆10만원
 △강성민(경영학94-00)
 △권기성(행대원77-79)
 △김 희(토목공학63-70)
 △박경희(응용미술75-79)
 △박상균(공법학81-85)
 △배정길(농공학61-67)
 △배종섭(경제학58-63)
 △석기병(화학85-91)
 △오강돈(정치학83-87)
 △오성종(역사교육58-62)
 △오인식(재료공학72-79)
 △윤영희(언어학68-72)
 △이상기(서양사학81-87)
 △이성윤(국사학94-01)
 △이원진(농경제학88-92)
 △이용휘(경제학57-61)
 △이한구(철학64-68)
 △정세용(철학72-76)
 △조현주(신문학79-86)
 △최창호(사법학84-88)
 △하철경(농화학55-61)
 △홍한표(생명과학98-05)
 (이상 2007년 6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출연해주신 분)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평생회비 : 2007년 6월 납부자 / 연회비 : 이사(07. 5. 3.~6. 28)·일반(07. 5. 1~6. 29)

원내 숫자 : 입학년도(미확인시 졸업년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 장 단

△부회장 尹勤煥 = 50만원
△부회장 徐廷和 = 1백만원
△부회장 李吉女 = 1백만원
△부회장 李海遠 = 1백만원
△부회장 朴熙伯 = 1백만원
△부회장 崔斗衡 = 1백만원
△부회장 閔丙俊 = 1백만원
△부회장 金謙淑 = 1백만원
△부회장 李瑛鎔 = 1백만원
△부회장 郭永駟 = 1백만원
△부회장 洪性大 = 1백만원
△부회장 孫京植 = 1백만원
△부회장 李相禹 = 50만원
△부회장 崔秉烈 = 50만원
△부회장 河權益 = 1백만원
△부회장 許鎮奎 = 1백만원
△부회장 孫吉丞 = 1백만원
△부회장 吳 明 = 50만원
△부회장 玄在賢 = 1백만원
△부회장 洪錫炫 = 1백만원
△부회장 張重桓 = 1백만원
△부회장 鄭忠始 = 1백만원
△부회장 具本俊 = 1백만원
△부회장 柳 津 = 1백만원
△감 사 朴英俊 = 30만원
△감 사 朱成民 = 30만원

관 악 회

△이 사 明泰鉉 = 30만원
△이 사 李禮植 = 30만원
△이 사 安聖哲 = 30만원
△이 사 張世一 = 30만원
△이 사 金秉順 = 30만원
△감 사 金一燮 = 30만원

상임이사

△崔永喆 문리대동창회장 = 20만원
△李載厚 법대동창회장 = 20만원
△林香淳 사대동창회장 = 20만원
△洪龍濤 상대동창회장 = 20만원
△鄭英彩 수의대동창회장 = 20만원
△徐桂淑 음대동창회장 = 20만원
△洪禮杓 치대동창회장 = 20만원
△姜寅求 보대원동창회장 = 20만원
△金貳煥 언대원동창회장 = 20만원
△崔秉瑄 한대원동창회장 = 20만원
△金光石 AMP동창회장 = 20만원
△全烘奎 SGS동창회장 = 20만원
△李敬俊 AIC동창회장 = 20만원
△金亮沃 ALP동창회장 = 20만원
△南仲九 관악언론인회장 = 20만원

평생회비

(이사) △김국현 인문72
△김문수 경영70 △김우호 의대74
△김창홍 법대56 △문양수 문리59
△박동은 자연73 △박종대 미대62
△서영웅 AMP21 △성진근 농대64
△심덕룡 공대73 △안상춘 공대64
△유영주 가정57 △유인의 법대61
△윤봉순 공대54 △윤옥영 문리58
△이기연 약대58 △이만희 미대82
△이승우 상대53 △이신자 미대50
△이원우 사대63 △이철영 상대63
△최병선 사회77 △최연택 법대76
△최용묵 의대61 △한 영 치대79
△황규준 AIC14 △황덕연 공대60

(일반) △권기수 공대69

△권순희 사대87 △기만덕 의대77
△김관형 공대82 △김미나 의대83
△김상기 공대77 △김세순 사대83
△김순자 미대62 △김양자 사대61
△김영남 공대66 △김영덕 의대71
△김영삼 공대70 △김용환 법대79
△김은혜 가정71 △김정근 사회11
△김정섭 공대69 △김정은 음대91
△김종욱 GLP14 △김충기 공대61
△김학철 공대70 △남태현 경영88
△문이숙 간호51 △박병덕 공대84
△박상렬 법대45 △박찬익 공대00
△박희석 공대53 △변미혜 음대75
△서배수 사회84 △서승화 AMP52
△서호석 HPM19 △손명호 공대64
△손영민 사대86 △손정호 농생96
△손현석 경영92 △신병진 문리57
△심재홍 자연83 △안명숙 미대67
△안영인 자연84 △오응택 사대62
△우종욱 사대60 △이경희 인문81
△이기영 농대66 △이기은 미대82
△이만달 농대57 △이부경 농대50
△이승재 상대44 △이승훈 공대75
△이윤희 ACPM3 △이재령 음대80
△이재연 자연02 △이재현 공대92
△이재홍 의대57 △이한용 공대95
△이형길 GLP9 △장홍래 공대71
△전노원 의대78 △정민화 자연84
△정영국 자연81 △조규선 의대86
△조성만 문리65 △조재현 의대93
△최병천 공대75 △최우철 의대84
△최주완 상대58 △최해천 의대81
△한승수 의대58 △황장연 공대86
△황종식 AIP27

이 사

◆인문대 △임흥식77 △조철원76

◆사회대 △김 영79 △김철기72
△박성민77 △서동영79 △이동관76
△정해일72 △최금락76 △홍석규75
◆자연대 △박덕배72 △박송용74
◆간호대 △신은숙65
◆경영대 △김선구73 △문영국81
△박용환72 △오진환77 △왕영철72
△우기종75 △이윤호73 △이호선75
△장영철76 △장종현78
◆공대 △강일구50 △강창렬79
△고유진69 △공태근61 △곽태현69
△구본응71 △구영창48 △권명옥76
△김덕우81 △김덕재54 △김덕중70
△김명진78 △김병욱76 △김승권68
△김영식66 △김영표75 △김웅기66
△김종구68 △김준식73 △김진철67
△김형준71 △박기철72 △박상호76
△박세형73 △박재규56 △박태원49
△배상기67 △성낙현67 △송재협69
△송철상61 △안순신69 △양동렬69
△양정웅68 △양화섭78 △염사연64
△오세범72 △오재건61 △오창석69
△원윤상76 △윤경훈71 △윤재호78
△이 철68 △이계환62 △이근명63
△이금석59 △이남순72 △이대락62
△이상만70 △이상준64 △이선계65
△이원국52 △이윤섭73 △이장무63
△이정인59 △이희달70 △이희발72
△인주선63 △장기욱53 △장현구60
△정무진64 △정태현73 △조연제61
△조재현75 △조종희72 △지성균71
△최길영71 △최병두67 △최병홍78
△최완철69 △허욱렬70
◆농대 △권순국60 △김민근81
△김양재78 △김일종69 △김진수70
△김태수66 △김현구50 △문철명60
△변영숙70 △부경생60 △신용석61
△오정형60 △유 석59 △윤경섭65

△윤여창74 △윤재수63 △이건일60
△이윤호68 △이정재69 △이희수80
△정시식61 △정진구65 △한정남65
△허유만63

◆문리대 △고 건56 △고흥길62
△권방웅60 △김관식56 △김기근69
△김성태62 △김영철67 △김재봉64
△노재봉53 △류지웅51 △민경덕59
△박동수46 △박동영67 △박병진60
△박봉기62 △박영환54 △송대성69
△신상우64 △신용하57 △신중식60
△오광근70 △유영익55 △윤흥근63
△이광호68 △이승렬67 △이영일58
△이항주56 △전중수52 △정영채62
△정용두53 △조병환65 △치영구73
△채영수68 △홍두표55

◆미대 △김홍규83 △배형경74
△신현장65 △이주숙70 △임훈순48
△정치환60 △조정송59 △한혜경75

◆법대 △강신욱63 △고현철65
△고흥달68 △공영규59 △곽익훈60
△김길중61 △김동호56 △김세권50
△김세돈72 △김영우56 △김용균73
△김용환60 △김용환72 △김일천65
△김재덕73 △김정수59 △김종근61
△김종국65 △김진영69 △김효종61
△남문우55 △노신영50 △민병국57
△박승문78 △박승준80 △박철연61
△박현문71 △백대현54 △서정신58
△석동현79 △성패문60 △송병대67
△송진원59 △신기남70 △신인식74
△신현옥66 △신현일77 △양동관67
△오시열75 △유남석76 △윤보옥66
△이기웅50 △이무룡65 △이세형68
△이수영64 △이술진60 △이인상60
△이재성69 △이창희65 △이천수61
△이호원71 △임안식73 △정계성69
△정대권75 △정해운57 △천인수59
△최병구67 △최석원52 △최종립54
△최희준54 △한광수65 △허홍구62
◆사대 △강경돈70 △강봉근67
△강한철73 △곽형기71 △김기주69
△김상철68 △김성대59 △김수관70
△김수형61 △김용균65 △김홍섭73
△김희수70 △박규홍69 △박남기50
△박세원70 △박찬구56 △박창수58
△방재욱68 △신광근65 △양금석54

△양남식73 △양신근70 △유정숙64
△이숙영59 △이신구59 △이영덕47
△이주연79 △정광삼58 △최종학80
△형남규67
◆상대 △강원구54 △고경식61
△구본영66 △김만경53 △김만유67
△김사철55 △김성규57 △김영환54
△김정훈46 △김종욱58 △김창달53
△남상덕69 △맹정주67 △문영도50
△백창기61 △서정도66 △성유경61
△손석주46 △송기태52 △신명수60
△연건호66 △유재운68 △윤익수56
△이계문70 △이남수62 △이성구60
△이영훈70 △이호유54 △조근복55
△조원래57 △조창제57 △최명규46
△최부완54 △최종인61 △최준환66
△추한식54
◆생활대 △정대숙80
◆수의대 △김용팔75 △김윤수74
△나종국54 △박용호74 △박종영61
△오효성77 △윤화중54 △이기주61
△이원철74 △장 영62 △정용근67
△차종상56 △최병조76
◆약대 △김동현76 △김명수71
△김영택61 △박경래57 △설성화63
△손정식73 △신화용46 △원용한78
△이민화55 △이옥희73 △이주형67
△최근욱74 △허 상58
◆음대 △김승영68 △송치경73
△정복주66 △최문진73
◆의대 △김귀곤66 △김병국64
△김삼현68 △김영균43 △김종환50
△문태준44 △문한규51 △박경호47
△박상용57 △박주배68 △유경상64
△유병훈67 △유세화65 △윤경애79
△윤세희68 △윤용범66 △이동철77
△이상근73 △임태환70 △정을삼60
△정창생66 △조수철67 △최세준53
△홍순찬76 △홍윤철81 △황순욱72
◆치대 △강근수63 △강대준62
△김상욱67 △김우성62 △김종훈73
△남승우63 △라윤영60 △문복강62
△박영길64 △박찬유65 △유영세60
△이영대70 △이용오62 △정원용52
△조행작64 △주관철59 △홍성호60
◆대학원 △강희갑67 △김응진49
△나까르미80 △문두길87 △민경식79

△백대균82 △신경환69 △양일석73
△이광재78 △임대윤84
◆경대원 △박영휘90 △양희석86
△이기현71
◆보대원 △구성희67
◆사대원 △송정호66
◆신대원 △김태문71
◆행대원 △강병규77 △강성남80
△권기성77 △신순우74 △유정복86
△차정균97 △편호범75 △현경병85
◆현대원 △권 완76 △석영철71
◆AMP △기 옥40 △박정훈29
△송장식34 △신현규57 △이동희58
△이완근27
◆AIP △권영렬19 △김태형31
△남형수31 △이명호20 △이억기30
△조규승20 △조성환21
◆ACAD △곽기영54 △김성조54
△배윤도54 △안중기39
◆SGS △강택상7 △박종영10
△유장식6 △이기채3
◆APC △이재덕5
◆HPM △성치용4
◆AIC △서희석16 △양봉기9
△임봉순15 △최세근9
◆IIP △제갑영일1
◆GLP △손영수3

일 반

◆인문대 △강상혁99 △김민정02
△김선아93 △김성우74 △김성윤74
△김태은02 △김학균89 △김형준95
△남호식94 △박병주98 △박유진00
△박현찬82 △서선령87 △송정기97
△오성민97 △윤태일83 △이다니엘01
△이석경00 △이소일81 △이용두74
△이종서86 △정은영00 △조연수89
△최승리99 △최현원00 △한희승02
◆사회대 △강나영04 △고영일84
△구병성01 △김경수90 △김광덕82
△김성수02 △김성완91 △김소영03
△김수영98 △김순태03 △김우성00
△김원철78 △김유식84 △김재범84
△김종성81 △김태호86 △김태훈98
△김현민01 △노창현87 △박원명00
△박지현01 △박해선82 △방진욱91

△백승구90 △백승준00 △백승호94
△송현종83 △신영기96 △엄지웅99
△오동석99 △오인혜05 △오종협71
△오철수82 △유승두97 △유재영81
△윤동한01 △윤성업01 △윤재혁84
△이근태85 △이남우82 △이덕선82
△이미영02 △이수천91 △이영진91
△이은영02 △이재열80 △이주옥00
△이주홍88 △이지훈99 △이호준86
△임 업88 △장우진93 △정석영86
△정성훈99 △정태석73 △정해영98
△정현우01 △최은미00 △한형종81
△홍성창89 △홍승석85 △홍지연03
△황민연71
◆자연대 △강경란88 △계정일88
△고영광01 △김성훈75 △김영규79
△김훈민01 △류상욱03 △류지훈02
△박세미03 △반병준96 △범진욱83
△서인석03 △성하운74 △손병용68
△이건영00 △이승민82 △이억재96
△임민혁02 △장지원99 △정순규96
△정진욱90 △정태철78 △현민아02
△홍석의83 △홍한솔03
◆간호대 △강혜란03 △곽향자75
△김재희84 △유주화81 △이인실04
△이지현05 △황애영68
◆경영대 △고광호85 △고봉찬81
△공현주02 △김 겹81 △김경화01
△김기성73 △김신아02 △김운호88
△김혜민01 △남태현88 △박수민86
△박초이02 △방한솔00 △백동호90
△사진우84 △서정모91 △서진국81
△서학수82 △신진창88 △여두현05
△오선영83 △윤승욱83 △이영욱00
△이정규79 △이종석84 △임성균77
△임정오68 △정성원84 △정준희89
△정회정94 △조성훈79 △허일섭73
◆공대 △강민희85 △강병기51
△강우식54 △강은실03 △강인권76
△강진모03 △강태훈95 △고근희54
△고병렬48 △고승희66 △고형석85
△공순호00 △구교환75 △국천표60
△권민호02 △권용재01 △김경락57
△김경원83 △김관홍75 △김근환86
△김대웅61 △김대환91 △김동건85
△김동필49 △김민수00 △김상락79
△김서희03 △김선구02 △김선호75

△김성만57 △김성언71 △김세진65
△김수현05 △김순호72 △김시훈68
△김엽동52 △김영균71 △김영휘48
△김용백61 △김용성82 △김윤석84
△김재형51 △김종인68 △김준호75
△김진만54 △김찬희03 △김철순53
△김춘영58 △김태한00 △김택규53
△김택중56 △김현환02 △김혜령02
△김희봉83 △김희중02 △김희철03
△나형주73 △라종민05 △류 훈83
△류정우94 △류춘희64 △마신형98
△명대광99 △문 광70 △민병선54
△민수홍00 △박경현88 △박기석59
△박남석49 △박선영75 △박성수95
△박승균63 △박신통69 △박여종62
△박영도69 △박용성95 △박우성96
△박원희58 △박익남49 △박재환79
△박정주78 △박종태61 △박철수61
△박해민02 △박형순60 △박환형01
△박희웅89 △방우섭59 △배원근50
△배진우91 △백상진94 △부상훈90
△서무석00 △서성우00 △서을상53
△서정민93 △석인영79 △손주환99
△송대호64 △송준영94 △신재기79
△신지수45 △신혜연01 △심창생60
△안 인70 △안국찬77 △안병규99
△안세호03 △안용석93 △양승철99
△양준석01 △연관희86 △예동해00
△오권영01 △오상훈02 △오세범00
△오창은00 △오현명00 △우종민97
△원승식99 △원진희48 △유경모03
△유일상57 △윤석호51 △윤의병51
△윤지호85 △이경신82 △이계호58
△이관형70 △이규한99 △이기재93
△이낙주47 △이동선61 △이문성92
△이상하02 △이소영96 △이수영91
△이승률55 △이승훈98 △이양훈86
△이완상52 △이용석67 △이용훈49
△이윤식55 △이재우98 △이정우03
△이정욱99 △이종길87 △이종윤03
△이주협83 △이주휘03 △이진기46
△이창석92 △이태경98 △이태환75
△이학준99 △이현규81 △이홍근65
△임광수74 △장기혁93 △장봉진53
△전창선58 △정민웅00 △정보현01
△정상구62 △정재부83 △정차수73
△정철수71 △정치권60 △정해준48

△정희성00 △조국영92 △조기호03
△조민욱02 △조병목79 △조성환99
△조은형03 △조정호61 △조진우92
△주경재53 △주병국98 △지태용51
△채경선83 △채운들99 △최강윤79
△최건영00 △최성범05 △최수인75
△최승호92 △최양식85 △최인영63
△최태선80 △최현수85 △최홍석85
△추선엽97 △하경표89 △한병록46
△한승우89 △한창석68 △한충수98
△허 정96 △허창수83 △허환호77
△홍성표38 △홍영화66 △황보민영03
△황정하72 △황종열69 △황철수62
△황정정59
◆농대 △강승우95 △고재윤48
△권원준56 △김경수51 △김규환47
△김동윤48 △김명록46 △김무렬64
△김억년61 △김영각49 △김영은90
△김용환72 △김용환77 △김원봉88
△김원수56 △김장섭84 △김정교49
△김정화60 △김진호01 △김학기65
△김홍년00 △김희진01 △남상운80
△노수경87 △문양수82 △박관식54
△박관우79 △박순흥85 △박장렬53
△박창용55 △박관규55 △박형주56
△박홍목56 △백상덕59 △백주영02
△서승덕55 △서정미02 △설권석54
△송종익55 △송태희56 △신상혁53
△신언근54 △안승요51 △양춘웅63
△예경희78 △오희정57 △유지성59
△윤용근52 △윤지원98 △이 옥99
△이경영92 △이관선54 △이길영79
△이대직48 △이문호04 △이병래82
△이원규58 △이을룡53 △이재영52
△이종렬50 △이종석65 △이태영54
△이호겸67 △이화용53 △임상섭90
△임승룡55 △장석환58 △장세종66
△장영진86 △전종갑72 △정성호51
△정수봉60 △정회진84 △조규환63
△조대호64 △조성진48 △조재명52
△지원철73 △최무재53 △최봉근69
△최영균03 △최용호00 △최지협54
△최태진46 △하성훈86 △한석현52
△한익상61 △홍택영57
◆문리대 △김광규60 △김근수65
△김남현66 △김명정64 △김봉영58
△김영도52 △김영성62 △김은수71

△김희준⁶¹ △두진만⁶⁴ △류민성⁷¹
△문영순⁵¹ △박용오⁷⁰ △박응철⁵⁷
△방경조⁵⁶ △배우근⁵⁹ △서승벽⁴⁸
△서창모⁶¹ △소광희⁵³ △손보기⁴⁶
△송길상⁴⁸ △신표근⁷⁵ △신행철⁵⁷
△안남순⁵⁴ △안표순⁵² △안현수⁶⁹
△양 원⁵⁵ △양천식⁶⁹ △여무중⁶⁸
△오태환⁷⁰ △우영익⁶³ △유지현⁶⁷
△이승훈⁶⁵ △이양길⁶⁰ △이용길⁶²
△이우용⁶⁴ △이종복⁴⁹ △이진희⁶⁶
△이춘기⁵⁴ △이홍춘⁶² △전만수⁵⁵
△정서구⁶⁵ △정한택⁴⁶ △조규일⁶¹
△조무현⁶⁸ △한철순⁵⁸ △황재운⁵³
◆미대 △고경래⁸⁸ △김광숙⁶⁹
△김병중⁷⁴ △김순자⁶² △김재운⁰²
△박은경⁷⁴ △박정기⁶⁴ △박종규⁶⁹
△성낙인⁴⁶ △손문일⁰⁰ △송소영⁶²
△송원한⁸³ △양진석⁹⁹ △원하연⁰²
△유인수⁶⁶ △이근민⁰¹ △이우성⁵²
△이주태⁵² △임채욱⁹⁵ △장상만⁵⁹
△정선화⁵⁶ △정영섭⁵⁶ △주진희⁷⁴
△차시은⁹³ △최광훈⁹⁸ △함영희⁷⁷
△홍경희⁶⁶ △황인혜⁶⁵
◆법대 △강동진⁶⁷ △강석균⁵⁰
△강신섭⁷⁵ △김기경⁸⁵ △김기형⁵⁰
△김래니⁸⁸ △김병철⁸³ △김병호⁸²
△김선현⁵⁸ △김승호⁹⁰ △김신영⁰¹
△김용환⁷⁹ △김유동⁸⁶ △김재천⁶⁶
△김재춘⁵⁶ △김준섭⁶¹ △김지아⁹⁹
△김창완⁰⁰ △김태후⁶⁸ △김해산⁵⁷
△김희용⁶⁰ △노승권⁸⁴ △동 훈⁵³
△마경태⁰¹ △민만식⁵⁰ △민석기⁵⁰
△박교선⁸² △박규필⁸² △박상형⁴⁸
△박용승⁷² △박대경⁸¹ △배성범⁸⁰
△배종만⁵⁶ △변광호⁸⁴ △손영재⁸¹
△송석봉⁸⁷ △송준채⁶⁴ △신승호⁹⁹
△신완수⁵⁴ △신진민⁶⁰ △신호양⁵⁹
△안반일⁶¹ △양승상⁵⁶ △여상원⁷⁷
△오태환⁹⁴ △유원석⁵⁹ △유해돈⁵⁵
△이건호⁵⁷ △이광진⁷⁷ △이광철⁶⁵
△이대우⁶⁷ △이민재⁷² △이상용⁶⁷
△이성재⁴⁸ △이승철⁹² △이재덕⁸²
△이재호⁰¹ △이종욱⁵⁷ △이종환⁵⁹
△이형섭⁹⁴ △임동철⁶⁸ △임승환⁶⁷
△장재운⁸² △장재형⁷² △전병덕⁴⁷
△전수일⁵⁸ △전오영⁸² △정원진⁸⁸
△조균석⁷⁷ △조병선⁵⁷ △조훈갑⁰⁰

△조희래⁶¹ △차유경⁷³ △최동섭⁵⁵
△최병태⁶⁰ △최영룡⁷⁸ △최진영⁸⁶
△최창무⁸³ △한재영⁹⁴ △한주상⁶³
△홍순범⁴⁷ △황경진⁵² △황선무⁵⁸
△황지운⁰³ △황창익⁵⁹
◆사대 △강현영⁰¹ △권문한⁷⁴
△김남송⁵⁸ △김대용⁰⁰ △김명자⁴⁵
△김미숙⁷¹ △김성곤⁴⁹ △김영규⁰⁰
△김용식⁸⁰ △김윤정⁰² △김은숙⁵¹
△김인숙⁶¹ △김정용⁷⁸ △김종화⁶⁸
△김주경⁵⁵ △김지원⁰³ △김찬기⁷⁶
△김현주⁷⁷ △김혜우⁶⁴ △김황수⁴³
△니영봉⁷⁹ △남경걸⁵⁴ △남정렬⁶⁵
△문제세⁷¹ △민정욱⁴¹ △민혜식⁵²
△박 재⁴⁴ △박강진⁸³ △박규완⁷¹
△박명규⁸⁵ △박성호⁶⁰ △박정식⁰²
△박희문⁵⁶ △배영철⁷⁹ △백영묘⁹⁸
△성숙영⁵⁵ △송재숙⁷¹ △신각범⁵⁴
△신일윤⁶⁶ △심영자⁵⁹ △안영숙⁵²
△양택배⁶¹ △염성일⁶⁰ △오기세⁷⁴
△오해균⁷⁷ △유봉호⁴⁸ △유오진⁵⁸
△유의식⁷¹ △윤덕성⁴⁴ △윤석원⁶⁸
△윤희숙⁵⁷ △이길오⁷³ △이병무⁵²
△이상교⁶¹ △이석선⁵⁴ △이소윤⁹⁷
△이시훈⁵⁷ △이일철⁴⁸ △이재근⁴³
△이재만⁵² △이재홍⁶⁸ △이정호⁹⁶
△이종희⁴⁰ △이향수⁸⁶ △이현복⁵⁸
△임원종⁵² △장혜정⁰¹ △전병화⁷³
△정부길⁵⁹ △정상섭⁹³ △정현선⁸⁹
△조주현⁰⁴ △진현선⁸⁸ △최계숙⁵²
△최정현⁶⁴ △하봉욱⁶² △한상윤⁸⁸
△한상현⁶⁸ △한준근⁸⁶
◆상대 △김 택⁵² △김광조⁵⁹
△김규석⁵⁵ △김동엽⁶² △김범수⁵⁷
△김성주⁵⁵ △김성호⁵⁷ △김웅태⁵³
△김종원⁵⁶ △김창일⁵³ △김철환⁵³
△김흥배⁶⁶ △마재창⁵⁴ △박경상⁵⁷
△박원규⁵⁸ △북한재⁵² △서규상⁵³
△서덕규⁵⁴ △송용상⁵⁶ △신동현⁵⁶
△안홍환⁷⁰ △양재국⁵⁰ △오정현⁵⁴
△원한영⁵⁶ △유근성⁶⁶ △윤록현⁵⁹
△윤정희⁵⁴ △윤찬여⁵⁴ △이 단⁵⁰
△이 연⁵⁹ △이강전⁷¹ △이건재⁵²
△이계훈⁵¹ △이규홍⁶⁸ △이성재⁵³
△이종렬⁴⁹ △임동승⁵⁶ △정해운⁴⁶
△제환석⁶⁷ △조성진⁵⁵ △조용구⁵⁹
△조한영⁴³ △최재혁⁴⁹ △최준철⁵⁹

△태응렬⁷¹ △홍순태⁵⁶ △황병선⁴⁵
△황보연⁵⁵
◆생활대 △김민정⁰⁴ △김성은⁸³
△김지영⁶⁹ △박인경⁰⁰ △박주희⁸⁵
△백선자⁶⁴ △송금숙⁸² △안영희⁵⁷
△오명숙⁷⁰ △오현숙⁶⁸ △윤지원⁰¹
△이성란⁸³ △이신영⁸² △이영남⁷⁷
△조희은⁰⁰ △홍윤정⁹¹
◆수의대 △김승중⁶⁹ △김영춘⁵⁴
△김재하⁵² △박수원⁸³ △송남훈⁶⁴
△안수경⁰⁰ △안환길⁶⁴ △오병철⁹⁴
△윤영원⁶³ △이우재⁵⁷ △이형우⁵¹
△임정수⁶⁴ △정영화⁵⁶ △조수식⁵²
△조영선⁷⁸ △홍종수⁵⁵ △황대우⁶²
◆약대 △강순철⁵⁹ △구창모⁷³
△김남중⁹⁸ △김승대⁸¹ △김용정⁵⁸
△김장숙⁵⁸ △박경림⁷⁰ △박인수⁶²
△박정옥⁸³ △박준성⁸⁶ △서성수⁵³
△손동하⁴⁶ △송희성⁶⁰ △유주현⁰¹
△이선구⁹⁰ △이원욱⁰² △이정석⁷⁵
△정경호⁷⁷ △정희경⁸⁴ △허진종⁶¹
△홍승철⁵³
◆음대 △김 선⁰⁴ △김순옥⁷³
△김영희⁸⁸ △김의창⁶² △김제니⁰³
△김홍박⁰⁰ △박혜정⁰² △방영호⁸⁰
△성양자⁶⁰ △송민정⁰³ △심요한⁹⁹
△안성준⁶⁹ △오애리⁸⁶ △윤규선⁶¹
△이선주⁰³ △이영자⁵⁶ △이원주⁷⁵
△이정미⁸¹ △이지영⁸⁷ △이태윤⁰⁰
△임창주⁰² △조동건⁵³ △차세정⁹⁵
△최윤정⁹² △최지은⁰³ △홍주희⁸³
◆의대 △강성범⁸⁸ △강조자⁶²
△고학종⁶⁶ △권선주⁹⁴ △김상덕⁹³
△김성년⁹⁸ △김성민⁰³ △김영덕⁵⁶
△김중식⁵⁹ △김지용⁷⁹ △김형일⁰⁰
△류희철⁸³ △박성제⁹¹ △박수경⁰⁵
△박진홍⁹⁶ △박찬일⁵⁹ △박희욱⁵⁴
△변종화⁵⁰ △송두호⁵⁰ △송병호⁸⁶
△신시욱⁷⁵ △심성은⁹³ △안병선⁹¹
△오범조⁰⁰ △오형석⁰³ △우영남⁶¹
△유언호⁵⁴ △윤영모⁷⁰ △윤주영⁰¹
△이동명⁷³ △이명근⁵⁸ △이상일⁴¹
△이석배⁹² △이순조⁷² △이시영⁸²
△이영철⁴⁵ △이용길⁶⁰ △이은혜⁰³
△임승재⁸¹ △정영길⁵⁸ △전노원⁷⁸
△전동수⁴⁴ △정구현⁴⁴ △정상준⁰³
△정아영⁰⁴ △진영섭⁵⁸ △차명진⁰⁰

△최선종⁹⁷ △한수연⁹² △한태진⁰¹
△홍병수⁹⁴
◆치대 △공형규⁹² △김봉구⁷⁸
△김선해⁷⁴ △김영수⁵⁷ △김정현⁷⁷
△김재범⁰⁰ △김정우⁶¹ △김정태⁶⁶
△남태우⁷⁶ △박세운⁸⁶ △송영일⁵⁹
△심경숙⁸¹ △유세청⁵¹ △이병화⁸⁰
△이상표⁷⁷ △이인경⁸² △임병서⁴⁵
△임종수⁸¹ △장동재⁷⁹ △정관서⁷⁹
△정금태⁷⁶ △정평구⁵⁸ △조광현⁷⁰
△최동민⁰⁰ △최상훈⁸² △하정선⁸⁴
△홍현종⁸² △황정일⁶⁴
◆대학원 △강기병⁷⁷ △김경진⁸⁴
△김기혁⁸⁵ △김동식⁸⁵ △김진수⁸³
△문용자⁷² △민경부⁸⁴ △안수영⁸⁴
△엄기웅⁹⁸ △오형재⁸⁷ △원종국⁸⁶
△진선주⁶⁹ △채종근⁹¹
◆경대원 △구지일⁹³ △권영천⁶⁶
△김성원⁹⁰ △서동홍⁷² △이기화⁹¹
◆국대원 △박지훈⁰⁵ △황상환⁰⁴
◆보대원 △권기철⁹⁰ △김학기⁷⁶
△방옥근⁸⁵ △오세민⁶⁷ △조귀래⁰⁴
△최보을⁸⁵
◆행대원 △강성원⁶⁸ △김용길⁶⁸
△김현수⁸⁰ △노선호⁶⁸ △문병항⁶⁷
△서일수⁶⁷ △윤성일⁰⁵ △이권철⁰¹
△이기섭⁷⁷ △이현재⁷⁶ △전상현⁸²
△조병린⁸³ △채양이⁸⁶ △최재열⁸⁰
◆환대원 △고성하⁷⁷ △노승원⁰⁵
△윤종식⁸⁹
◆AMP △곽 진⁴⁹ △권익부³⁶
△김병오³⁶ △김병윤⁰⁹ △노재천⁰³
△박영신⁴⁷ △박은숙⁴¹ △박치현¹⁵
△박학경⁴⁷ △성백진³⁶ △손대성⁵⁵
△손언승⁵¹ △송형진⁴⁸ △신 함⁵²
△신말업³⁴ △신명철⁰⁸ △신문범²³
△염수한¹⁰ △유상욱³⁹ △유시종¹⁹
△윤동근⁴⁶ △윤충열⁴⁹ △윤태하³⁴
△이규범⁴¹ △이상갑²⁵ △이종환⁰⁷
△장주상²⁹ △전기철⁵³ △전동근¹¹
△정우현⁴⁶ △정하덕²³ △정흥기³⁰
△조문규⁵¹ △최영철²⁰ △한현수³¹
△홍성목²⁰
◆AIP △강인순⁰⁹ △고희수²⁵
△김성근¹⁸ △김승길¹⁰ △김영철²⁶
△김원배¹⁹ △김을식²³ △김익래⁰⁷
△김홍규²² △박상흥²³ △박영기²⁹

△서영복¹⁹ △오 현⁰⁵ △유인목³²
△이영삼⁰⁵ △이영하³⁴ △이중기⁰⁵
△정달홍³³ △조종제¹⁴ △최동수¹²
△허만일³²
◆ACAD △공윤현⁴⁷ △권영해¹⁵
△김병철⁴⁵ △김영광¹⁰ △김영길⁴⁹
△김종승²⁶ △김태환³⁸ △노재우¹⁶
△박성득²⁰ △변효철⁶¹ △안희수³³
△유성훈³⁴ △유영우³⁵ △이효규⁶²
△장해익³⁴ △전병순⁴² △하성환⁰⁸
◆ABP △박귀남²⁸ △이규현²⁶
△장인출²⁶ △정공훈²²
◆SGS △고상돈¹⁷ △곽순영⁰²
△구용호¹⁷ △서의권¹⁷ △정평화⁰⁶
△조규동¹⁷ △최상석⁰²
◆APC △윤규한⁰⁹
◆HPM △김광화⁰⁹ △김동기¹⁹
△김환준⁰⁵ △송종근⁰⁴ △조용선¹²
△최정국¹⁹
◆AIC △구자영¹⁰ △동상태¹⁰
△민형기¹² △박종원¹² △송상용²²
◆AMPFRI △김정주⁰² △김철호¹⁰
△박병욱¹⁰ △선일석¹¹ △송종근⁰³
△원병희¹⁴ △유재만⁰² △이강우⁰⁹
△이규태¹⁴ △이정자¹⁰ △정내영¹⁰
△최명규¹² △최병도¹² △허남준¹⁰
△황재웅⁰⁷
◆ACMP △신희돈⁰³ △안순철⁰³
△이윤희⁰³ △이종운⁰² △정휘복⁰¹
△최정구⁰³
◆IIP △이기준⁰²
◆GLP △고영상¹¹ △김성민⁰⁹
△김종욱¹⁴ △김태훈¹⁴ △임노원¹⁰
△정용기¹⁴ △정인태¹¹ △최종진¹²
◆ALP △김경일⁰³
◆ANMP △이숙자⁰³ △이인희⁰³
△이재순⁰³

6 월 계 : 74,550,000원
평생회비 : 35,000,000원
입 회 비 : 770,000원
총 계 : 794,004,283원



서울대학교 總同窓會

바둑특집

참여 · 협력 · 영광 | www.snua.or.kr

주관:서울대학교총동창회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18-2 (임시주소:서울시 관악구 봉천7동 산4-2 연구공원 219호) | 전화:702-2233 | 팩스:703-0755 | 발행:(주)한우리SJM 전화.2264-2114

제4회 (2007년 7월 8일 일요일)

서울대학교 동문 바둑대회



**운영
위원회**

공동대회장 임광수(동창회장), 이장무(모교 총장) / 운영위원장 손일근(상임부회장)

운영위원 박치문(중앙일보 전문위원), 신병식(SBS 보도본부 논설위원), 신현웅(동창회 부회장), 이정재(모교 학생처장), 허 선(동창회 사무총장)
홍종현(프로9단), 한국기원 사무총장 (가나다순)

심판위원장 홍종현 사범 / 심 판 위 원 남치형(명지대 교수 · 프로 초단)

개 회 사



임 광 수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尊敬하는 母校 李長茂 總長님, 그리고 先後輩 同門과 母校 敎職員 및 在學生 여러분, 두뇌스포츠로 불리우는 바둑을 통해 先後輩間 友情을 나누며 母校의 發展을 爲한 所重한 對話의 場이 될 第4回 同門 바둑大會를 開催하게 된 것을 기쁘게 生覺합니다.

바둑을 사랑하는 서울大人 여러분!

바둑이야말로 情緒 涵養과 頭

腦 啓發에 가장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의 優秀性을 世界에 알리는데 크게 寄與하고 있는 頭腦스포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最高의 勝負手를 던져 멋진 勝利를 거두어보자”는 熱意를 가지시고, 모든 근심 걱정을 털어 버리고 마음의 餘裕를 가지고 바둑에 心醉하여 새로운 契機를 만들어 여러분 家庭과 그리고 일터에서 勝利하시는 先後輩 同門 여러분이 되시기를 祈願하는 바입니다.

象牙塔인 學問의 殿堂에서 師弟간의 情이 끈끈하게 이어져 가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바둑의 世界에서도 스승과 제자의 特別한 만남에 對한 이야기가 있음을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母校와 同窓會 亦是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주어 同門들은 母校의 가장 든든한 後援者로서 母校가 2020

年에는 世界 10位圈 名門大學의 班烈에 오르도록 돕고, 母校는 恒常 同門들의 뒤에 우뚝 서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人生의 길잡이와 引導者가 되어주는 아름다운 關係가 더욱 알차게 形成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합니다.

사랑하는 同門 여러분!

지난 6月 25日 麻浦 同窓會館 자리에 總同窓會의 力點 事業으로 推進하고 있는 獎學빌딩의 起工式을 舉行했습니다. 앞으로 約 3年 뒤인 2010年 말이면 30萬 同門이 자랑스럽게 訪問하여 各種 모임을 열고 多樣한 文化生活을 즐길 수 있는 名所이며 母校 支援의 核心센터가 될 멋진 同窓會館이 들어서게 됩니다.

언제나 激勵와 支援, 그리고 精誠을 보내주신 同門 여러분께 眞心으로 感謝드리며, 누가 봐도 世界 最高의 同窓會館 이라고 自信있게 말할 수 있도록 竣工될

때까지 心血을 기울여 最善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獎學 빌딩에 벽돌 한 장을 보태는 心情으로 더 많은 關心과 支援을 付託드립니다.

이번 行事를 準備하는데 아낌 없는 支援을 해 주신 韓國 棋院과 世界사이버棋院을 비롯해 審査를 맡으신 洪鍾賢 師範과 南治亨 敎授님, 그리고 朴治文·申秉湜 委員님께 깊은 感謝를 드립니다.

특히 홍콩에서 바둑敎室을 運營하고 있는 中國의 女流 棋士이며 韓國棋院 소속으로 4단인 黃 焰 씨께 깊은 感謝를 드리면서, 오늘의 開會辭로 갈음합니다.

感謝합니다.

2007年 7月 8日
서울大學校總同窓會
會長 林 光 洙

축 사



이 장 무

서울대학교 총장

존경하는 임광수 서울대학교 동창회장님과 임원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및 동문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제4회

동문 바둑대회에 참석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본래 대회라는 것이 실력의 우열과 승부를 가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오늘은 그런 긴장감보다는 오랜 벗들 간의 화목한 기운이 이 대회장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승패를 가리는 것보다는 동문들 간에 오랜만에 만나 우애와 친목을 나누는 것이 이 대회의 취지임을 다들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진(西晉)의 학자 장화(張華)가 저술한 ‘박물지(博物誌)’에 전하기를 ‘요(堯)나라 임금이 바둑을 만들어 아들 단주(丹朱)를 가르쳤다’고 하고, ‘그 법이 지혜 있는 자가 아니면 잘 할 수가 없어 순(舜)나라 임금이 아들 상균

(商均)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하여 바둑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 공자가 이르기를 ‘바둑 두는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어진 일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으로 보아 바둑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지혜를 닦는 수련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바둑을 다른 말로 ‘수담(手談)’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바둑을 통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동문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바둑을 함께 두는 시간을 통해, 승패를 겨루기보다는 지혜를 깨우고, 말로 하는 대화가 아닌 수담을 나누면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서울대학교가 세계수준의 일류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진정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부디 마음에서부터 지혜롭게 대화하는 ‘바둑의 수담’이 이곳 서울대학교의 운영에도 구현되어 대학 발전의 포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대회의 개최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신 준비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 우리 대학의 과거와 현재가 함께 만나 정겨운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7월 8일
서울대학교 총장 李 長 茂

개 · 인 · 전

■ 최강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강호윤	공과대	70	5단
2	곽형준	약학대학	재학생	5단
3	김관형	공과대	79	4단
4	김길중	상과대	62	5단
5	김명근	공과대	77	4단
6	김선환	사회대	85	5단
7	김수동	법과대	64	5단
8	김희천	자연대	85	4단
9	류동렬	사범대	71	5단
10	박인균	공과대	75	5단
11	서상훈	자연대	86	5단
12	선석기	인문대	75	5단
13	손병용	자연대	68	6단
14	안성문	사회대	83	6단
15	안재걸	문리대	61	5단
16	오강묵	사회대	85	5단
17	유기철	사회대	73	4단
18	유원하	의과대	60	5단
19	윤진훈	공과대	95	5단
20	이강은	치과대	92	4단
21	이광우	농생대	56	6단
22	이상현	문리대	64	5단
23	이재철	농생대	86	5단
24	이태규	상과대	66	5단
25	이호원	공과대	재학생	5단
26	임기영	문리대	60	5단
27	임성빈	공과대	60	5단
28	최송화	법과대	59	5단
29	최재훈	상과대	68	5단
30	한만철	공과대	77	5단
31	한용술	사범대	71	5단
32	한유정	문리대	59	5단

■ A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권오룡	사범대	56	3단
2	권윤희	문리대	65	3단
3	권재홍	농생대	83	3단
4	권태일	농생대	72	3단
5	김경식	사범대	82	2단
6	김광석	법과대	56	4단
7	김선일	문리대	61	3단
8	김성우	인문대	74	4단
9	김영식	상과대	66	2단
10	김형철	행대원	94	3단
11	노영식	사범대	65	3단
12	박영철	인문대	71	3단
13	백진우	공과대	재학생	3단
14	서병현	문리대	53	3단
15	서형배	인문대	74	3단
16	염상현	농생대	재학생	3단
17	유지상	공과대	72	3단
18	이대용	상과대	70	3단
19	이동휘	공과대	재학생	2단
20	이석열	농생대	재학생	3단
21	이진호	사회대	재학생	2단
22	이진환	사범대	54	3단
23	임용준	치과대	65	3단
24	장낙영	공과대	62	3단
25	정기정	문리대	58	3단
26	정주열	공과대	73	2단
27	조성준	사회대	재학생	3단
28	진태훈	의과대	84(졸)	2단
29	천주훈	공과대	64	3단
30	천한우	경영대	79	3단
31	허영수	사회대학	재학생	2단
32	황금연	사범대	50	2단

■ B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강영진	문리대	65(졸)	2단
2	고경순	사범대	61	2급
3	국상중	법과대	81	1급
4	김남균	공과대	재학생	3급
5	김동길	치과대	74	1급
6	김승준	농생대	78	3급
7	김영환	공과대	56	2단
8	김왕근	사회대	80	1급
9	김풍오	공과대	68	3급
10	김형영	농생대	74	2급
11	남수환	패션산업학교경영학과	4기	1급
12	류진열	법과대	72	1급
13	문정두	법과대	60	1급
14	박성진	약학대학	69	3급
15	박창욱	사범대	81	3급
16	백무흠	공과대	84	1급
17	성상현	의과대	73	1급
18	양현국	수의과대	88	3급
19	염상현	농생대	재학생	1단
20	윤석태	사범대	73	3급
21	이건영	자연대	00	3급
22	이승엽	약학대학	재학생	1단
23	이승현	자연대	00	1단
24	이일영	치과대	66	3급
25	이정규	공과대	64	3급
26	인병식	사범대	61	1급
27	정대인	약학대학	67	1급
28	정준구	사범대	61	1급
29	조성준	사회대	재학생	1급
30	조한규	공과대	69	1급
31	최선웅	자연대	94	2급
32	한재정	자연대	80	2급

■ C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구슬아	자연대	재학생	5급
2	권영직	상과대	65	5급
3	김기휘	상과대	66	5급
4	김병석	약학대학	00	4급
5	김병식	상과대	68	4급
6	김선현	법과대	58	3급
7	김영석	법과대	95	5급
8	김창영	공과대	87	5급
9	김현수	사회대	88	3급
10	김흥만	상과대	66	5급
11	박 찬	법과대	63	4급
12	박병덕	약학대학	95	4급
13	박수환	사범대	65	4급
14	방형준	사회대	재학생	5급
15	백종민	상과대	66	3급
16	백훈상	상과대	66	3급
17	서용석	상과대	66	5급
18	서태영	인문대	74	4급
19	신규곤	음악대학	81	5급
20	신충렬	상과대	66	5급
21	신태수	법과대	58	4급
22	안창섭	사범대	61	4급
23	위재훈	의과대	52	3급
24	이광복	사범대	65	5급
25	이병주	의과대	61	5급
26	이태우	사범대	60	3급
27	이효선	공과대	재학생	5급
28	임종순	법과대	56	3급
29	조규식	공과대	재학생	3급
30	최창식	법과대	58	4급
31	하진구	교직원	교직원	4급
32	한주상	법과대	63	4급



■ D조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	곽회준	법과대	58	6급
2	금장태	문리대	62	7급
3	김광열	문리대	55	7급
4	김명관	대학원	87	7급
5	김창수	수의과대	64	7급
6	박재권	법과대	58	4급
7	배종섭	상과대	58	6급
8	송현석	공과대	62	6급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9	유건환	공과대	56	7급
10	유계하	공과대	56	7급
11	이상완	의과대	55	7급
12	이성원	공과대	56	7급
13	이지복	의과대	52	6급
14	이찬규	약학대학	재학생	7급
15	이태현	상과대	66	5급
16	이택주	법과대	58	6급

번호	이름	단과대	입학년도	기력
17	장기호	상과대	66	5급
18	장덕신	상과대	71	5급
19	전경훈	상과대	66	5급
20	정영재	문리대	62	6급
21	정희주	농생대	61	6급
22	조홍규	ACAD.국가정책	26기	7급

단 · 체 · 전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1	경상기우회	박건호	상과대	59
		심명기	상과대	59
		오정일	상과대	59
		이무언	상과대	59
		정현석	대학원	77(졸)
2	공과대1팀	박세화	공과대	84
		신우영	공과대	84
		이시연	공과대	82
		이종면	공과대	79
		정현문	공과대	84
3	공과대2팀	박기찬	공과대	64
		이강국	공과대	65
		이남기	공과대	65
		이윤호	공과대	64
		최 훈	공과대	63
4	대전 관악기우회	고성욱	경영대	78
		박건영	의과대	63
		송동호	법과대	82
		안정웅	자연대	82
		최승용	경영대	85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5	미술대학	김종선	미술대학	74
		이길원	미술대학	69
		이만재	미술대학	82
		장수홍	미술대학	69
		홍순모	미술대학	69
6	보건대학원	남철현	보건대학원	62
		정두채	보건대학원	80
		정문호	보건대학원	66
		정영일	보건대학원	65
		조길웅	HPM	14기
7	사범대	유충균	사범대	82(졸)
		이상규	사범대	75
		정원채	사범대	80
		최안기	사범대	70
		한승수	사범대	72
8	상과대	강 철	사회대	85
		김 현	사회대	85
		연건호	상과대	66
		오두환	사회대	82
		윤동현	사회대	82
		정용선	사회대	85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9	쌍육기우회	김상남	상과대	66
		이원민	상과대	66
		장인상	상과대	66
		장진원	상과대	66
		장태익	상과대	66
10	인문대	강형근	인문대	82
		박치문	인문대	68
		백우영	문리대	62
		신병식	인문대	73
		이 민	인문대	73
11	청조회	홍성윤	인문대	73
		김석조	법과대	58
		김선현	법과대	58
		김창국	법과대	58
		배찬린	법과대	58
12	호석사	최택규	법과대	58
		구윤희	공과대	58
		구진웅	공과대	58
		민규식	공과대	58
		유무웅	공과대	58
		이영상	공과대	58
		최창환	공과대	60

부문	소속	성명	단과대	입학년도
13	치과대	김병준	치과대	74
		이강운	치과대	92
		임동욱	치과대	66
		임용준	치과대	65
		한명도	치과대	75
14	교직원	김영태	교직원	교직원
		김재호	교직원	교직원
		이경영	교직원	교직원
		이기수	교직원	교직원
		홍성수	교직원	교직원
15	재학생A팀	박준영	공과대	재학생
		양태우	자연대	재학생
		오경환	경영대	재학생
		윤석원	자연대	재학생
		지성욱	농생대	재학생
16	재학생B팀	김동국	공과대	재학생
		김상준	사범대	재학생
		배 훈	공과대	재학생
		신연철	공과대	재학생
		최민호	공과대	재학생

-- 대회요강 --

1. 본대회의 진행과 운영 방법은 한국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릅니다.
2. 개인전은 출전자의 기력에 따라 5개조로 편성하였습니다.
3. 단체전은 5인이 한 팀이 되어 대국하게 됩니다.
4. 단체전 · 개인전 모두 변형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국합니다.
5. 대국은 모두 호선 6집반 공제로 하며 10분 자유시간에 30초 초읽기 3회로 제한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대국이 종료되지 않을시 프로기사로 구성된 심판위원들의 판정으로 승패를 결정짓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대진표는 한국기원의 추천방식에 따라 사전 무작위 자동추첨을 하게 됩니다.

시 상 품

▶ 개인전 최강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 상품권(4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명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3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명
공동 3위	■ 상품권(1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명

▶ 개인전 A조, B조, C조, D조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 상품권(3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1명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2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1명
공동 3위	■ 상품권(1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각조 2명

■ 용어풀이

- 승수 : 본인이 이긴 승의 합
- 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자의 승의 합
- 종합승점 : 본인과 대국한 상대방의 승점의 합

■ 순위 결정 방법

- 승수가 많은 자가 상위
- 위가 동률인 경우 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종합승점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수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내가 이긴 자의 승점의 합이 많은 자가 상위
- 위도 동률인 경우 승자승의 원칙
-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률로 처리

▶ 단체전

순 위	시상내역	기 타
우 승	■ 상패 ■ 상품권(15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팀
준 우 승	■ 상패 ■ 상품권(10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1팀
공동 3위	■ 상패 ■ 상품권(50만원) ■ ON-LINE바둑사이트 1년 이용권	2팀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상 핫 뉴스

제20회 후지쯔(富士通)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박영훈 후지쯔배 V2 ... 한국 대회 10연패

7월 9일 일본 도쿄(東京) 일본기원에서 벌어진 제20회 후지쯔(富士通)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에서 한국의 박영훈 九단이 이창호 九단에게 255수 만에 백 1집반승을 거두며 대회 두 번째 정상에 올랐다. 또한 박九단의 이번 우승으로 한국은 대회 10연패 및 통산 13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다.

박영훈 九단과 이창호 九단은 7월 7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각각 일본의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九단과 장 쉬(張) 九단을 꺾고 한국의 우승을 결정지었다. 후지쯔배의 우승상금은 1,500만엔(한화 약 1억 2,000만원)이다.



- ① 후지쯔배 결승에서 통산 일곱 번째 형제 대국을 펼치고 있는 박영훈 九단(왼쪽)과 이창호 九단.
- ② 우승 후 일본 바둑팬에게 사인하고 있는 박영훈 九단.
- ③ 공개해설장을 가득 메운 일본 바둑팬들.
- ④ 3·4위전에서는 요다 九단(왼쪽)이 장 쉬 九단을 꺾고 차기대회 시드를 확보.
- ⑤ 시상식을 기다리는 입상자들.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3경기

강동윤, 왕중왕 등극

7월 16일 한국기원 1층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제4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3경기 최종국에서 강동윤 五단이 이창호 九단에게 237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며 종합전적 2-1로 왕중왕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날 승리로 본격기전 첫 우승을 일군 강동윤 五단은 한국기원 승단 규정에 의거 七단으로 승단했다. (주)전자랜드와 서울전자자유통(주)이 공동 후원하는 전자랜드배 왕중왕전의 우승상금은 4,500만원이다.



- ① 최종국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강동윤 五단(오른쪽).
- ② 이창호 九단의 팬클럽 '두터미' 회원들이 이창호 九단의 패배를 안타까워 하고 있다.

제41기 KT배 왕위전 도전5경기

이창호, 왕위 12연패

7월 18일 한국기원 특별대국실에서 벌어진 제41기 KT배 왕위전 도전5경기 최종국에서 타이틀 보유자 이창호 九단이 도전자 윤준상 六단에게 220수 만에 백 불계승하며 종합전적 3-2로 왕위전 12연패를 달성했다.

왕위전 최종국에서 패하면 무관으로 전략할 뻔했던 이창호 九단은 백번 필승의 신화를 쓰며 자존심을 지켰다. 이九단은 1989년 KBS바둑왕전 타이틀 획득 이래 지금까지 한번도 무관인 적이 없었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KT가 후원하는 왕위전의 우승상금은 4,800만원이다.



- ① 최종국을 마치고 복기 중인 두 대국자.
- ② 30분 넘는 복기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일어서는 이창호 九단.
- ③ 취재진에 둘러싸여 인터뷰 중인 이창호 九단.



영상 핫뉴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지지옥션배 시상식 및 경매 행사 열려

제1기 지지옥션배 시상식 및 이벤트 행사가 7월 13일 한국기원 2층 대회장에서 벌어졌다. 국내 바둑 사상 처음으로 바둑용품을 경매에 부친 이날 행사에는 50여 명의 경매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국수의 손'과 '지지옥션배 기념바둑판' 등을 놓고 인터넷 경매 참가자와 함께 경매 릴레이를 벌였다. 이날 최고가는 215만원에 낙찰된 조훈현 九단의 '국수의 손'이 차지했으며 '국수의 손' 657만원, '사인바둑판' 724만원 등 총 1,400여 만원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경매 수익금은 전액 연구생 장학금 및 장애인협회 후원금으로 기탁됐다.

- ① 경매시장에 나온 '국수의 손' 조형물.
- ② 경매에 여념이 없는 참석자의 모습.
- ③ 지지옥션 강명주 사장(왼쪽)이 우승한 여류팀에 상금보드를 전달.
- ④ 연승 보너스를 받은 조훈현 九단 김은선 三단 박지연 初단.
- ⑤ 조훈현 九단과의 1 : 1 지도기 이벤트에 당첨돼 대국 중인 이동민 군(왼쪽).



조한승 · 홍민표, 태극마크 달아

7월 9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벌어진 제9회 농심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 예선 결승에서 조한승 九단과 홍민표 五단이 각각 홍기표 二단과 김주호 七단을 꺾고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4개조로 나뉘어 펼쳐지는 이번 대회는 각 조 우승자가 대표로 선발되는데 이세돌 九단은 조한승 九단에게, 이창호 九단은 원성진 七단에게 패하며 중도탈락했다. 연기된 나머지 2개조 대국은 8월 초에 열릴 예정이며 참가선수 한 명은 주최측인 (주)농심에서 와일드카드로 선정하게 된다. 한·중·일 국가대표 다섯 명이 출전해 연승전으로 승부를 가리는 농심신라면배의 우승상금은 1억 5,000만원이다.



프로여류국수전 개막식 열려

제13기 가그린배 프로여류국수전이 6월 22일 한국기원 2층 대국장에서 개막됐다. 27명의 여자기사들이 참가한 이번 예선전에서는 토너먼트를 통해 12명을 선발하게 되며 12명의 예선 통과자들은 지난 대회 우승자인 루이 나이웨이(芮乃偉) 九단을 비롯 조혜연 七단, 이영신 四단, 박소현 二단 등 시드멤버 4명과 함께 본선 16강 토너먼트를 벌인 후 결승 3번기로 우승자를 가리게 된다.



조남철 선생 1주기 맞아

7월 2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양평공원에서 고(故) 조남철 九단의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는 김인 · 조훈현 九단 고재희 八단 등 프로기사와 한국기원 임직원, 바둑서지학자 안영이 선생 등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영 상 핫 뉴스



수용자 바둑잔치, 인천구치소서 열려

수용자들을 위한 바둑잔치가 6월 21일 인천구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인천광역시와 인천구치소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와 한국기원 프로기사회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교정직원과 수용자들을 위해 10명의 프로기사를 초청, 지도다면기를 가졌다.

행사를 준비한 이재부 인천 구치소 소장과 서호영 교육교화 과장은 예상보다 좋은 반응에 흡족해 하며 “이런 행사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교화과정에 바둑을 넣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가 프로기사

김덕규·윤현석·양건 八단, 김영삼·한종진·김만수 七단, 나중훈·백대현 六단, 김광식 五단, 김찬우 四단

- ① 수용자들과 프로기사들의 지도다면기 장면. 인천구치소에는 약 1,600명(기결수 약 500명)의 수용자 중 500여명 정도가 바둑을 즐긴다고 한다.
- ② 성공리에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한 참가 기사들과 관계자들의 모습.
- ③ 행사 마지막을 장식한 경품 추첨 장면. 교정직원과 수용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강창배, 삼성화재배 아마예선 우승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제12회 삼성화재배 세계바둑 오픈 아마예선에서 강창배 6단(사진 왼쪽)이 강훈 5단에게 153수 만에 흑 불계승하며 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강창배 6단과 강훈 5단은 준결승에서 각각 김정환 6단과 김현찬 5단을 꺾고 결승에 진출했었다. 삼성화재배 세계바둑오픈 아마예선 4강 진출자들은 7월 26일부터 열리는 통합예선에 아마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10년 동면에서 깨어나는 신동

정응진의 新 기사론 - 김지석편

다고 할 순 없으나 ‘신동 김지석’을 생각한다면 다소 곱떠 보인다. 어떤 곡절이 있었을까.

조훈현이 탐낸 아이

1995년 11월 27일, 바둑TV 개국기념 프로그램으로 조훈현 九단과 광주에서 올라온 바둑신동 김지석의 4점 지도대국이 벌어졌다. 이날 신동은 승부에서는 6집을 졌으나 바둑황제를 단순히 때려서 졌다. 국후 인터뷰에서 조훈현 九단은 “어린 녀석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듯해서 두고봤더니 호오~, 과연 그렇더라.”고 말하며 “이창호 이후 오랜만에 한 놈 발견했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바둑이) 누굴 닮았느냐는 물음에는 “내 쪽이다”며 극찬했다. 이 자리에서 바둑황제는 하루빨리 서울로 데리고 와 본격적으로 수업할 것을 권했다.

그 뒤 지석은 초등학교 입학 무렵 서울에 올라와 임선근 九단의 현현연구실에서 바둑을 배우다 2년 뒤 조훈현 九단의 집에서 한번 더 테스트 받을 기회를 얻었고 내제자(內弟子) 얘기가 오가면서 열혈 가랑 조九단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일종의 내제자 체험이었다. 조九단은 바둑TV에서 처음 두어보았을 때에 비해 아이의 “톡톡 튀는 기질”이 누그러져 있는 것에 실망하긴 했으나 “창호와 달리 지석의 바둑은 내 과(科)”라며 여전히 탐냈다.

하지만 연때가 맞지 않았다. ‘내무부장관(부인 정미화 씨)’의 재가가 끝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조九단은 살던 평창동 집이 너무 낡아 신축을 앞둔 시점이었어서 내제자로 받아들이고 싶어도 데리고 있을 곳이 없었다. 정미화 씨의 회고.

“확실히 지석이는 바둑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창호와 다른 과였다. 아래

위층을 뛰어다니며 온집안을 휩쓰는 장난꾸러기였고 공부보다는 놀기를 더 좋아하는 어린애였다. 창호는 우리 애들과 좀 놀아주라고 하면 마지못해 노는 척 시늉만 하다 슬며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다시 공부를 하곤 했는데 지석이는 컴퓨터 게임에 매달리거나 형 누나들과 노는 데만 정신을 팔았다. 덕분에 지석이 아빠에게 애는 바둑 둘 애가 아니라며 거절할 좋은 핑계거리를 얻었다”며 웃었다.

진짜 속사정은 조九단의 자녀 문제 때문이었다. 당시 입시를 줄줄이 앞둔 고2, 고3 연년생에 사춘기에 접어든 애들의 의사와 환경을 묵살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이다. 연로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형편이기도 했다.

김지석의 재능이 드러난 포석 한 장면을 골랐다. 흑1 이하 백12까지는 보통 화점에서 많이 등장하는 정석이다. 초점은 좌하귀 백A가 3·3이라는 것.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해 보이는 포석 진행이지만 조훈현 九단은 “흑의 안목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시야가 넓다는 얘기가.

〈참고도〉는 눈목자걸침에서 협공당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정석이다. 그러나 백A로 정석을 마무리하지 않고 10으로 손을 돌리면 백이 폭넓은 국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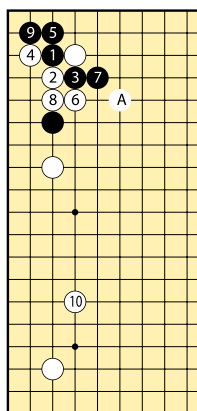
〈실전〉 흑13~23으로 좌상변을 교환한 뒤 흑25로 눌러간 수가 김지석의 감각이다. 국후 김지석은 흑이 두기 편해져 이미 여기서부터 희망을 가졌다고 했다. “우상귀와 우하귀를 차지한 흑으로서는 전체적으로 실리가 모자라지 않으니, 이제 여기서 싸움의 주도권을 잡기만 하면 그것으로 반상을 만족하게 이끌 수 있다. 갈라진 백은 싸움을 주도할 힘이 없다.” (문용직 五단) 조훈현이나 이세돌 九단 류의 빠른 판단력이다.

따먹기 대마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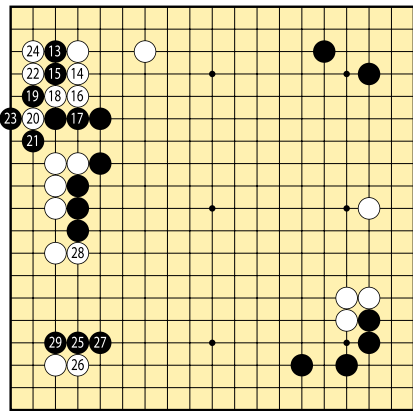
김지석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아버지 김호성(48) 씨가 전남대학교 교수로 가면서 광주 아이로 자랐다. 두 살 많은 형 우석을 따라 어깨너머로 글자 공부며 구구단을 배우다가 바둑학원도 함께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엔 너무 어

리다고 받아주지 않으려 했다. 그때가 다섯 살. 세종바둑학원 김정열 원장(현 서울 골든벨바둑학원장)은 우리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나이로 바로 바둑을 가르치지 못하고 ‘자세상’ 같은 걸로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사범의 말을 어찌나 하늘 같이 여기던지 “꼼짝 말고 사활문제를 풀라”고 하면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 데도 앉은 채 오줌을 싼 적이 있을 정도로 바둑을 대하는 태도는 으뜸상 감이었다.

지석은 1년 만에 1급으로 올라섰다.



〈참고도〉



〈실전〉

바둑을 배운 지 7~8개월이 되도록 정석이라고는 화점 붙여뺏기 하나만 가르쳐주었는데도 유독 잡아먹는 걸 좋아하던 꼬마는 지역대회 유치원부문에 나가 덜컥 사고(우승)를 쳐버렸다. 바둑은 수읽기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원장은 사활을 집중적으로 공부시켰고 심봉사 어린 딸 젓동냥 다니듯 기원을 전전하며 실전경험을 쌓아주었다. 학원에서 지석의 별명은 ‘따먹기 대마왕’ ‘걸어다니는 현현기경’이었다. 수읽기가 강하고 전투적인 기풍은 이때부터 형성되었다.

서울로 올라갈 때까지 김정열 원장에게 배우던 지석은 오규철 九단에게도 10개월가량 집중조련을 받았다. 오규철 九단은 “속도나 기재를 타고났다. 수를 아주 빨리 보고 사활 묘수가 밝다”며 한마디로 “굉장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서울에 올라온 뒤로는 스승 임선근 九단이 ‘잠 안 는다’고 한탄할 정도로 지체를 보였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연구생이 되긴 했으나 서울에서 2년

“열 살에 신동(神童), 열다섯 살에 재사(才士), 스무 살이 넘으면 범인(凡人)”이라는 일본 격언이 있다.

어렸을 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천재가 성인이 되어서는 평범한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위의 지나친 기대나 관심이 견디기 힘든 하중을 가하기도 하고 뭔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나 부담을 떨치지 못해 좌절하기도 한다. 때로는 자기 재능만 믿고 자만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

김지석(金志錫)

‘다섯 살 바둑신동’ 김지석을 기억하는지. 요즘 영남일보 주전으로 한국 바둑리그와 국내 최대대전인 강원랜드배 명인전에서 펄펄 날고 있는 프로 四단 김지석이 언론매체에 대서특필되었던 바로 그 바둑신동이다.

1989년 6월 13일생이니 어느새 열여덟 살, 이마에 좁쌀 같은 여드름이 오돌도돌 돌아나기 시작한 171센티미터 키의 현현장부가 되었다. 2003년 11월 97회 일반인입단대회에서 1등(9승 1패)으로 입단할 때가 14세. 조훈현(9세, 62년)이나 이창호(11세, 86년), 이세돌(12세, 95년)의 입단에 비하면 처지는 기록이지만 한국기원 연구생 1조의 실력이 프로 四, 五단과 맞먹고 적체 인원이 넘쳐 연령제한(18세) 안에 입단하기만 해도 다행인 요즘 잣대로 보면 14세 입단은 빠른 편이다. 2000년 이후 입단한 남자가사 가운데 강동윤(2002년)과 박정환(2006년)만이 13세에 입단했을 뿐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일찍이 5세에 신동 소리를 들던 천재가 14세에 입단했고 다시 4년이 지나서야 이름값을 하기 시작했다면 애초의 기대보다는 늦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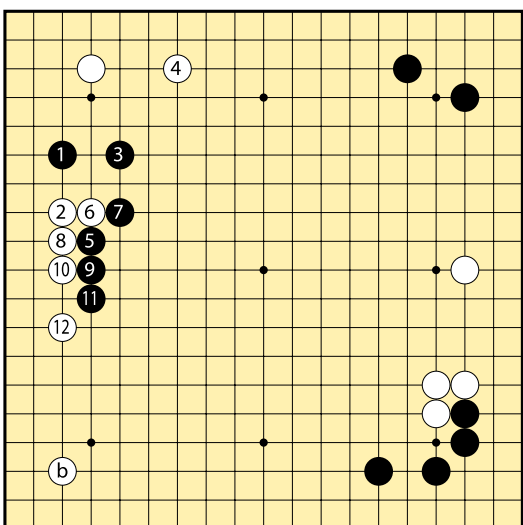
14세에 타이틀을 딴 이창호 九단은 열외로 하자. 이세돌 九단은 12세에 입단해 17세에 국내 타이틀을 차지했고 19세에 세계 타이틀을 땀다. 박영훈 九단은 14세에 입단했지만 16세에 국내 타이틀 맛을 봤고 역시 19세에 세계 타이틀을 허리에 둘렀다. 최철한 九단도 12세에 입단해 18세에 국내 타이틀 보유자가 되었다. 김지석이 입단하던 2003년 11월이면 17세의 송태곤(99년 13세 입단)이 후지쯔배에서 준우승을 하며 눈부신 활약을 할 때다.

김지석 四단의 행보를 더디

[장면1] 2007 한국바둑리그 4라운드

○목진석 九단 (서울 신성건설)
●김지석 四단 (대구 영남일보)

239수 끝, 흑 불계승



넘게 있는 동안 지식의 바둑은 연구생 8~9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준에 그쳤다. 자연 신동에 대한 관심도 사그라졌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품는다

현현연구실에서의 수업은 주로 연구생 형들이랑 바둑을 두는 형식이었다. 그 시절을 김지석은 이렇게 떠올린다.

“처음은 잘 생각나지 않는다. 하지만 중간은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많았다. 바둑이 별로 재미없었고 노는 게 더 좋았다. 너무 어렸을 적부터 바둑을 해서 인지 다른 친구들과 뛰놀고 싶었다.”

하지만 아버지 김호성 씨의 증언은 좀 심각했다. 어린 나이에 보내서인지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일종의 왕따를 당한 것 같다는 얘기였다.

아이가 고집도 세고 말귀도 잘 못 알아듣는 나이다 보니 선배들에게 고분고분했을 리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화장실에 집어넣고 불을 꺼버리는 이지메도 당했던가 보다.

겉이 많은 애가 밀폐된 공간에서 1시간 이상 눈물범벅이 된 경험은 악몽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어느 학원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지식의 나이가 너무 어렸다.

여섯 살 때 형 조상연 六단을 따라 일본에 건너간 조치훈 九단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다. 조치훈도 놀기만 좋아하는 장난꾸러기였고 사형들에게 이불을 덮어씌우는 멍석말이 이지메를 당한 뒤로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전등을 끄고



잠을 자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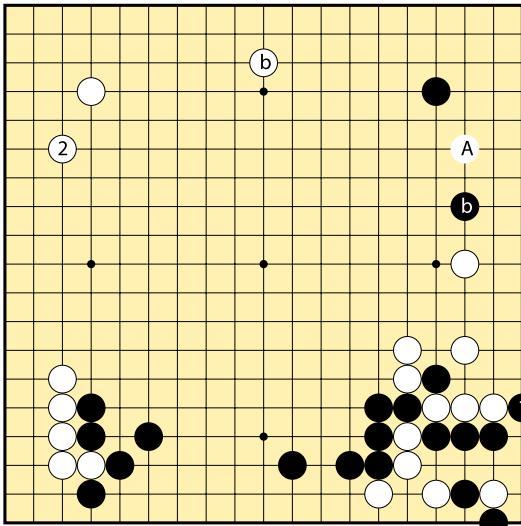
그렇지만 지식은 어린 마음에도 자기 뒷바라지를 위해 가족이 광주와 서울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둑이 싫었어도 그만두겠다는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했다. 결국 연구생 9조로 내려앉던 초등 3학년 때 광주로 내려갔다. 내려가선 한달 만에 10조로 또 주저앉았다. 안타깝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10조에서도 탈락하면 바둑을 접자고 아이와 다짐했다. 어린 아이 입에서 죽고 싶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신이 지친 상태였다. 조훈현 九단이 다시 지식을 테스트해본 뒤 의사해했던 원인이 이것이었다.

지식은 처음 바둑을 배웠던 학원을 다시 찾았다. 포레가 많아서인지 그곳은 그냥 마음이 편했다고 한다. 그때부

[장면2] 51기 국수전 예선결승

○한상훈 初단
●김지석 四단

267수 끝, 흑 불계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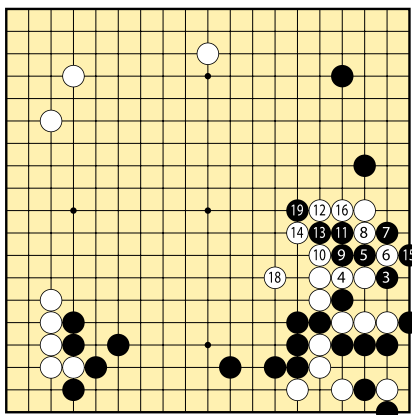
터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연구생 리그에 참여했고 4~5조까지 치고 올라가자 다시 보파리를 싸들고 상경해 권갑용바둑도장에 들어갔다. 그리고 3년 만에 입단했다.

한국리그를 발판으로

입단 뒤에도 지식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입단 1년차가 가장 겹도 없고 물이 오를 때라 윤준상 六단이나 한상훈 初단처럼 ‘初단 돌풍’을 심심찮게 일으키는데 잠잠했다. 2004년 20승 14패. 2005년 35승 21패. 이때까지 10회 삼성화재배 본선에 진출한 것이 최고 눈에 띄는 성과였고 본선 1회전에서 경험 부족으로 요다 노리모토(依田紀基) 九단에게 지기는 했지만 띄엄이 시들지 않았음을 알렸다.

2006년에는 44승 26패를 기록하며 점차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디딤돌이 되어준 기전은 한국리그였다. 예선 2회전에서 서건우 四단에게 져 탈락했으나 제일화재에서 발전성을 믿고 와일드카드로 지명했고 본선에서 8승 7패로 제몫을 했다. 김승준 九단은 이 점을 눈여겨봤다.

“기사에게는 바둑인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성장 계기가 있다. 2006년 초반 해도 랭킹 20위 안에 들지 못해 예선 경쟁을 벌여야 했던 지식이었다. 하지만 와일드카드로 나가 큰 승부를 몇번 치르고 나더니 하반기에는 이미 바둑의 내용이 달라져 있었다. 그 전에는 재주는 인정했지만 성적이 별로여서 그리 주목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작년 한국바둑리그를 계기로 자신감을 얻으면서 올해는 랭킹 20위 안(7월 랭킹 17위)에 거뜬히 든 것은 물론 강원랜드배 명인전에서는 선두



<실전>

를 달리고 있다. 본인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다른 것도 보완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과 당을 정도로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인다. 아직 이세돌 최철한 같은 포스는 약하나 성장 단계에 있는 기사이니까 점점 달라질 것이다.”

김지석 四단을 이야기할 때면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뱀뱀 동갑내기 강동운 五단이 거론된다. 1년 6개월 먼저 입단한 강동운은 김지석과 더불어 차세대 주자로 늘 꼽히는 기사이면서 동시에 송아지피동갑내기인 박영훈-최철한의 관계에 빗대곤 한다. 박영훈이 발빠른 아웃복서라면 최철한은 두터운 인파이터로 대비된다. 강동운이 상당한 실리파인데 비해 김지석은 치열한 싸움바둑이다. 김승준 九단은 이 둘을 어떻게 볼까.

“저마다 관점이 다르겠으나 나는 김지석의 잠재성장력을 더 높게 본다. 이세돌의 바둑에서 보다시피 요즘 바둑은 수비형보다는 전투형이 정상으로 가는 데 더 이점이 있다는 생각이다.”

싸움바둑이 왜 이점이 있다는 걸까. 김명완 七단의 소매를 잡고 쉽게 설명해 달라고 졸랐다.

“글쎄~,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으나 포커 홀덤을 쳐도 낮은 레벨에서는 지키는 스타일이 승률이 좋다. 그러나 상위 레벨로 가면 엄청 지르고 ‘뺑카’를 치는 스타일이 결국은 판다. 바둑도 이제 모양을 잡는다거나 지키는 건 누구나 다 잘 한다. 끝내기도 다 수준급이다. 각 부분에 대한 연구가 웬만큼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세돌이나 철한이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초장부터 치열하게 싸우는 쪽이 뭔가를 남기거나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김지석은 어떻게 볼까. “예전에는 포석도 밋밋했던 거 같은데 요즘은 덩 탕인지 밋밋하게 두어서는 이기기 쉽지 않다.” 끝내기 수준도 다 발군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기다리는 바둑’의 약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다.

김지석 바둑의 요체는 싸움

김지석은 탤런트 뽑치는 미소년이다. 장담컨대 앞으로 성적을 내면 소녀팬들이 가장 많이 따라다닐 기사다. 유창혁 九단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곱상한 외모의 기사들이 보기와는 달리 무시무시한 공격바둑을 즐기는 걸 보면 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듯하다.

김지석 바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지독한 싸움바둑’이다. 인파이터라도 한방의 살인편지를 휘두르는 조지 포먼 스타일이라기보다는 탱크처럼 끊임없이 밀고들어가는 조 프레이저 스타일에 가깝다. 맷집(끈기)도 좋고 배짱도 두둑해 싸움꾼으로서 갖출 건 다 갖춘 셈이다. 일찍이 여섯 살 때 ‘전신(戰神)’ 조

훈현이 ‘자기류’라고 인정한 바둑이니 전투실력이 여간할까.

전단(戰端)을 만들어가는 지식의 싸움감각을 보자. <장면2>는 올해 국수전에 처음으로 본선무대에 명패를 내밀었는데 가뜰이나 상한가를 치고 있는 한상훈 初단과 맞붙어 더욱 관심을 끈 예선결승이다. 한상훈도 수읽기가 세고 싸움이라면 마다않는 역전형의 기사인데 저돌적인 면에서는 한수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백A로 전개한 장면에서 흑은 보통 2에 걸치는 게 일반적인 발상인데 김지석은 흑1로 찔렀다. 백은 2로 굳혀 볼 만이 없는 모습. 흑a가 폭이 넓어 백A로 갈라치는 게 눈에 거슬려 선공을 택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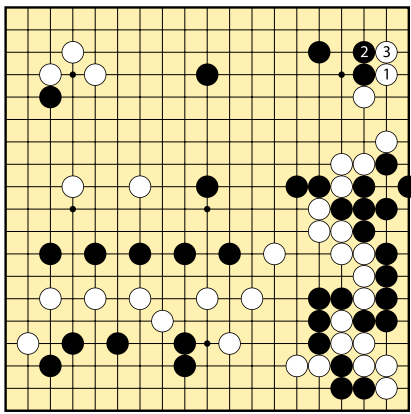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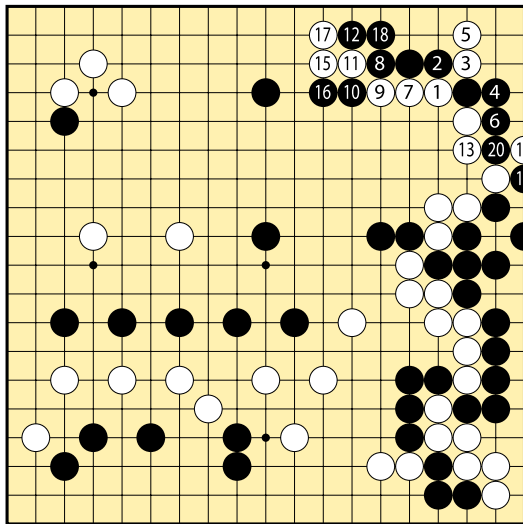
“우하귀 자체가 크고 상대가 침착한 스타일이라 받을 줄 알았다. 안 받아주면 실전처럼 싸우고...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김지석의 이 한마디에 그의 장단점이 모두 녹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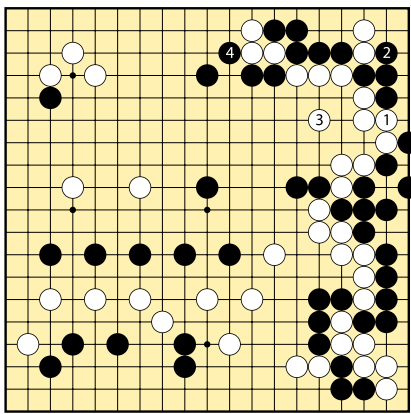
[장면3] 35기 강원랜드배 명인전

○김지석 三단
●김승준 九단

168수 끝, 백 불계승



<참고1도>



<참고2도>

〈15면 이어서〉
백이 손을 뺐으므로 〈실전〉 흑3 이하로 몸싸움을 시도했다. 어쨌거나 불문곡직(不問曲直)하고 흑19로 딱 끊어 싸움을 전판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김지석류. 〈장면3〉은 리그성적 4승 2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명인전 가운데 한 판이다. 한국바둑리그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으나 단체전이다. 개인전에서는 지금 명인전에서 올라고 있는 성적이 최고이다. 올해 강원랜드배로 부활한 명인전은 우승상금 1억원의 국내 최대 기전인 데다 타이틀 보유자를 새로 가리기 때문에 리그 2위 안에만 들면 챔피언 결정전에 나설 수 있으므로 지식으로서의 절호의 기회다.

백은 우하귀에서 상당한 이득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상변만 수습하면 알기 쉬운 국면이다. 〈참고1도〉처럼 두면 간단히 안정할 수 있다. 그런데 김지석은 백1로 강하게 찢히더니 흑18까지 복잡한 싸움판을 벌였다. 여기서도 김지석은 강력하



게 백19로 단수처서 패싸움을 시작했다. 정말 대단한 배짱이다.

형세가 좋으므로 웬만한 사람이라면 〈참고2도〉 백1·3으로 두어 얼른 자기 말을 살려둔 다음 다른 큰곳으로 향할 텐데 강공일변도다. 그러나 너무 강하면 부러지는 법이다. 나중에 흑이 팻감을 잘못 쓰는 바람에 이기기는 했지만 하마터면 실족할 뻔했던 바둑이다.

왜 그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뒤통수를 굵적이며 웃는다. “확실히 이겨 있었으면 패를 안 했을 것이다. 약간 이긴 정도라 보았기에 확실히 끝내려고 달려들었다. 또 수가 된다고 보고 결행한 것인데 착오가 있었다.”

수읽기를 할 때 싸움과 타협의 기로에서 어느쪽을 먼저 생각하느냐고 묻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수줍은 목소리로 “싸움!”이라고 말한다. 이게 이창호 바둑과의 차이랄까. 반집만 좋아도 돌아가는 이창호에 비해 김지석은 약간 좋은 정도로는 칼을 뽑는다.

최규병의 김지석론

이쯤에서 한국바둑리그 영남일보팀의 최규병 감독 말을 들어볼 차례다. 최규병 九단은 김지석을 거침없이 2지명으로 뽑은 사람이다. 기대도 크거니와 애정이 넘친다.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그도 신동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다. 최九단의 한마디 한마디는 김지석 바둑에 대한 총평이자 조언이었다.

- 2지명으로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7월 중순 현재 5승 1패로 디승 선두권을 유지하

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대박을 터뜨린 셈인데.

“다른 팀 2장에 비해 지명도는 지식이 낮을지 모르나 그 당시는 성적도 괜찮았고 작년 한국리그 활약도 좋았다. 이제 입단한 지도 좀 되었으니 기세를 타는 상황이라고 봤다. 무엇보다 한국 바둑리그는 속기전이다. 순간적인 수읽기 능력과 결단력을 1차적으로 요하는 기전이다. 지식이는 수읽기가 강하고 배짱이 좋아 속기전에 맞는 기사다. 대방 노블랜드와의 첫 게임에서 주장 박영훈을 잡은 것이 기세를 타고 자신감을 얻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기대가 컸던 신동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윤준상이나 강동윤에 비하면 지식이는 신인왕전에서조차 우승을 못했으니 틀린 말이 아니다. 그만큼 신인종이 두텁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하지만 세돌이도 입단 5년쯤 되어서야 슬슬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프로들은 큰 차이가 없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모르나 이창호, 이세돌 급의 인재들은 많다. 따라서 최소 3~5년 정도의 각고의 수련 없이는 정상권으로 갈 수 없다. 지식이도 이제부터 시작이다. 개인적으로 3년 정도 더 연마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군입대, 대학진학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았다. 특히 군문제가 걸린다. 이창호를 비롯한 이세돌, 박영훈, 최철한 등 정상급 기사들은 군면제를 받았고 이걸 기사생명에 큰 플러스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지식은 아직 나이가 있으니 두고 보아야겠지만 주변이나 가정에서 이러한 변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 정상권으로 치달다가 도중에 주저앉은 사람도 많은 게 승부세계다. 약간의 재주와 명성만으로는 정상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세돌도 꾸준히 정진했기에 이창호 벽을 넘어설 수 있었다

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 김지석을 이세돌류로 보는 사람이 많다. 비교한다면?

“지식이도 모험을 즐기는 바둑이니 이세돌류이긴 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끌고가는 힘이 아직은 약하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끈기는 좋은데 전체를 조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바둑의 철학이랄까, 정신적인 깊이가 아직 어리다는 느낌이다. 덜 여물었다는 건 한마디로 공부 부족하다는 얘기다. 요즘의 이세돌 바둑을 보면 뭔가 깊이가 느껴진다. 바둑이 자유자재, 천의무봉(天衣無縫)한 인상을 받는다. 화성(和聲)도 대위법도 없는 단선율의 음 악(monophony)과 다성 음 악(polyphony)이 있듯 똑같은 수도 그것만의 효능을 넘어서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좀더 추상적인 수가 있는데 지금 이세돌의 바둑이 그렇게 물이 오른 상태다. 김지석도 이세돌만큼 수련을 쌓고 부침을 겪으며 단련해야 가능하다. 이세돌이 32연승을 올리며 ‘무서운 아이’로 수면에 떠올랐을 때가 2000년이 었다. 그러고 나서도 정상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더 걸렸다. 자기관리에도 철저해야 한다.”

- 김지석은 앞으로 이세돌에게 어느 정도 위협적인 존재로 성장할 것인지?

“이세돌이 긴장할 만한 상대임에는 분명하다. 자기처럼 전투적이지 어리지... 그러나 누구나 이세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쩌다 한번 이길 수는 있지만 넘어서기까지는 부단히 공부해야 가능하다. 거듭 얘기하지만 김지석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도약이나 정체라는 오직 자기 손에 달렸다. 적어도 3년 뒤면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인/티/류

나는 내 아들이 참 부럽습니다!

- 아버지 박광호 씨가 말하는 내 아들 박영훈 -

박영훈 九단이 20번째 후지쯔(富士通)배를 차지하며 한국의 10년 연속우승에 화룡점정을 했다.

그 시간 박九단의 아버지 박광호 씨는 집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아들의 혈투를 지켜보고 있었다.

10여 년 전 연구생을 나온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아마대회를 전전하고 있을 때부터 그는 “이창호 九단과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나야 한다.”며 소년 박영훈을 독려했다. 입단은 힘들었지만 그 이후는 탄탄대로. 2년 만에 천원을 쟁취하고 이듬해에는 농심신라면배에 출전해 4연승을 거둬 세계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2004년엔 후지쯔배 정상에 서며 최연소(당시) 九단 승단의 기록을 세웠다.

제8회 삼성화재배에서 눈앞에 다가왔던 우승컵을 놓친 뒤 불과 6개월 만에 올린 쾌거였다. 그리고 2007년 7월, 마침내 꿈에 그리던 이창호 九단과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났고 거짓말 같이 승리했다.

취재를 위해 계획에 없던 공항마중을 부탁하자 박광호 씨와 어머니 박은규 씨는 흔쾌히 수락하며 기자에게 농담 섞인 당부를 잊지 않는다.

“나중에 영훈이가 왜 나왔냐고 뭐라고 하면 (기자분들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왔다고) 잘 좀 얘기해 주세요.”

성인이 된 아들의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부부의 모습에서 가정의 따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 먼저 축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관전하면서 애를 많이 태우셨겠어요. 응원도 집에서 하셨나요?

“하하.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판이 끝내기에서 승부가 갈려 몇 년은 늙은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바둑TV 틀어놓고 사이버오로는 물론 다른 인터넷 사이트도 모두 접속해서 해설을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중요한 대국이 있으면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합니다. 중국 사이트까지 들어가서 본 적도 있어요.”

- 박九단이 가기 전에 특별히 한 이야기가 있나요?

“7월 5일이 어머니 생일입니다. 후지

쯔배 결승하는 날과 항상 비슷하죠. 이번에도 바빠서 어머니 선물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는데 대신 우승트로피 가져올 테니 용서해 달라고 하고 떠났어요. 요즘 분당에 있는 최규병 九단 연구실에 있는 시간이 많아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 2003년에 삼성화재배 결승에서 조치훈 九단에게 아쉽게 패해 슬럼프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 금세 후지쯔배에서 우승을 해버렸죠. 이번에도 다소 성적이 안 좋았는데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켰어요. 후지쯔배와 특별한 인연이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시는 너무 어려서... 실망이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준결승에서 스승 격인 유창혁 九단을 이기고 올라갔죠. 결승은 그냥 덤이라고 생각하고 우승하면 좋고 저도 잘했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히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저와 영훈이가 꿈꾸던 이창호 九단과의 결승대결이었잖아요. 영훈이가 프로를 목표로 바둑을 공부할 때 항상 '이창호 九단과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래도 이기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웃음)

- 요즘 이창호 九단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팬으로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이창호 九단의 시대가 앞으로 10년은 더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그렇게 쉽게 내려올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예전 같은 성적은 내기 힘들겠죠. 도전기 위주로 흘러갔던 시절에 비해 속기와 선수권전이 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예전 성적과 비교하는 것은 이창호 九단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 거죠.

지는 판이 좀 늘긴 했지만 이창호 九단의 바둑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기긴 했지만 영훈이는 그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죠. 기전의 방식이 바뀌면서 예년 같은 독보적인 1인자는 못되겠지만 정상 그룹을 유지하면서 한국 바둑을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영훈이도 그 그룹에 속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 집에서 박영훈 九단은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는 좀 무서워하고 어머니하고만 친할 것 같은데...

“절대로 아니에요.(웃음) 어렸을 때부터 친구처럼 편하게 지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격식이나 예의를 중시하는 것도 아니고요. 편하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바둑 이야기도 많이 해요.

이건 비밀인데... 집에 가면 영훈이가 매겨 놓은 세계랭킹이 있습니다. 계

속 업그レード 되죠. 저도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하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영훈이 순위가 생각보다 높아서 제가 “임마, 넌 맨날 지면서 랭킹이 왜 이리 높아?”라며 핀잔을 주곤 하죠.”

인터뷰 중간에도 박광호 씨는 지인들의 축하전화를 받느라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잘되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어 있다. 만나기 전에 상상했던 만큼 엄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다.

아버지의 일기와 아들의 랭킹표를 공개할 수 없겠냐는 끈질긴 요청에 박광호 씨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약간의 힌트만 줄 뿐이었다. “부자간에 즐기는 취미생활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며 웃는다. 박광호 씨는 박영훈 九단의 아버지이기 전에 못 말리는 바둑애호가다. 요즘에도 각종 바둑 소식을 꼼꼼히 체크하며 아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 아드님이 지금까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와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요?

“(옆에 있는 박영훈 九단의 어머니와 잠시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뉘니뉘니 해도 입단할 때죠. 아들에 대한 믿음이 커서였는지 입단은 쉽게 할 줄 알았어요. 목표가 프로가 아니고 일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입단이 늦어지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그래서 입단이 확정되었을 때 가장 기뻐했습니다.”

- 박영훈 九단에게 아버지로써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아무도 동의해 주지 않지만 저는 40세 정도가 바둑의 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추세가 젊은 기사들이 성적을 내며 30세만 넘어도 승부를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치훈 九단이나 조훈현 九단이 보여주는 프로정신과 자기관리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준 九단이 요즘 다시 성적을 내고 있죠? 노력하고 연마한다면 그 재능은 신예에 비해 못하지 않다는 증거죠.

우리나라는 선배님들이 영훈이를 비롯한 후배들을 너무 빨리 키워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치이고 당하면서 성장해야 될 시기인데... 영훈이가 40세 정도 될 때면 지금보다 한점은 더 늘어있길 바랍니다. 자기관리와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영훈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승부를 놓는 것은 프로로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九단 어깨가 무거워지겠는데요. 어떤 조언을 자주 해 주시나요?

“하하. 영훈이는 아직 이런 이야기를 들을 단계가 아닙니다. 제 눈엔 어린아 이로만 보이는데요. 지금은 그냥 ‘감기 걸리지 말아라.’, ‘잠 잘 자라.’ 정도이죠. 다만 한 가지 주문하는 게 있다면 계속 승부를 즐기라고 합니다. 초일류들과 벌이는 짜릿한 승부 자체를 즐기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저는 영훈이가 참 부럽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바둑을 두면서 살 수 있으니까요. 초심을 잃지 않고 훌륭한 프로기사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요즘 박광호 씨는 프로기사 아버지들의 모임에 나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한다. 약 10여 명의 회원이 있는데 어



머니들이 모이는 ‘모아회’에서 연말에 부부동반 모임을 한 것을 시작으로 가칭 ‘부아회’를 만들었다. 공감대 형성도 되고 통하는 부분이 많아 가벼운 저녁식사로 시작한 자리가 늦게까지 이어지기 일쑤라고.

아이들이 큰 승부에서 만나거나 한 명이 성적이 안 좋으면 부모들끼리도 서먹하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도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이미 그 단계는 넘어섰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밥이나 사라고 하죠. 서로 의식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살아요.”라고 웃으며 대답한 뒤 한 마디 보충한다.

“영훈이가 누구한테 지고 오면 아버지를 찾아가 아들의 복수(?)를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들끼리도 치수가 다 정해졌어요.”

요즘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이버오로 이인철 기자/cloudbk@cyberaro.com〉

켰을 수도 있었지만 기특하게도 금세 잊었어요. 얼떨결에 올라가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어서일까요?(웃음) 부모로서도 당시 많이 속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전화위복이 된 것 같습니다. 영훈이는 조용히 올라가다가 일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평소에는 32강 16강에서도 잘 지곤 하죠. 아직 실력이 안정되지 않아 미숙한 부분이 많은 탓이겠죠. 그런데도 결승에 네 번 올라서 세 번 우승한 걸 보면 신기해요. 사람들이 실력에 비해 상복이 많은 것 같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지켜보던 가족들이 지칠 만하면 좋은 성적을 내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 지난 후지쯔배 우승 때와 감회가 다를 것 같은데요?

“영훈이가 일본에 간 다음에 제 일기를 들춰봤습니다. 영훈이가 입단하기 전부터 성장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거든요. 요즘에도 큰 이슈가 있으면 당시의 느낌을 적어두곤 합니다. 2004년에는 결승보다 병역특례가 걸린 준결승전에 신경이 많이 가더군요. 요즘 군대문제로 세상이 시끄러우니 보시는 분들이 언짢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특 집

初단 신드롬, 돌풍인가? 거품인가?

취재/월간『바둑』차영구 기자

단위(段位)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 갓 입단한 初단들이 고단자들과 대국할 기회는 극히 한정돼 있었다. 제도적으로 이미 1, 2차 예선으로 엄격히 구분되어졌기에 일단 저단진간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필요조건이 수반돼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 저단진의 약진, 특히 한상훈을 필두로 한 初단들의 활약이 언론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다. 입단 전 연구생리그에서 엄청난 내공을 쌓아온 이들은 입단하자마자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양 각종 기전에 명함을 내밀고 있다. 못 강호들과의 대국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바둑을 펼치는 初단들의 당돌함을 보면 '불감청고소원(不敢請固所願)'이라는 문구가 딱 들어맞는다고나 할까.

같은 프로기사들조차 얼굴도 이름도 생소한 새내기들이 국내대회 본선 진출은 물론 세계대회에서까지 승전고를 올리는 등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부쩍 늘고 있다.

과연 입단한 지 얼마 안 되는 '수졸(守拙·初단의 별칭)'들의 반란이 반짝 일다 없어지는 '일회성 반짝이' 일지 아니면 '대세의 흐름' 일지, 바둑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초단 신드롬'을 짚어본다.

7월 25일 현재 (재)한국기원 소속 初단은 25명. 전체기사 219명 중 11.42%의 미미한 비율이지만 이들의 실력은 가히 '토네이도' 급이다. 25명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13명, 여자 9명, 외국 출신 3명이다. 이들 중 배준희와 한상훈은 실력으로 '꿈의 무대'라는 세계대회 본선에도 진출했었다.

사실 이전에도 初단 시절 세계무대를 밟은 예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금은 초특급 기사의 반열에 오른 이세돌이 97년, 윤준상이 2002년 각각 LG배 세계기왕전 본선진출을 初단 시

절 거머쥐었다. 初단 돌풍은 특히 모든 기사들에게 예선전을 열고 있는 삼성화재배에서 절정을 이뤘다. 2000년 김주호·박승철·이용수가 파란의 3중주를 연주하며 예선을 통과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킨 것이 그 시작이었다(김주호와 박승철은 본선1회전에서 중국의 왕 이후이와 일본의 조선진을 격파하는 이변을 이어갔다). 2002년에는 최원용·박진솔 初단(입단 79일)이 예선 통과에 성공했고, 2005년에는 유재호기 初단으로 삼성화재배 본선에 올라 조치훈 九단을 물리쳤다. 지난 3월 二단으로 승단한 김형우도 初단 시절인 2006년 중국의 왕 시(王檄) 九단을 꺾고 제 11회 삼성화재배 통합예선을 통과했고 배준희 初단도 중국의 콩 지에(孔杰) 七단을 제압하는 기염을 토하며 본선무대를 밟았다. 국내기전의 성적도 무시할 수 없다. 가까운 예로 현재 군생활 중인 박정근이 初단 시절인 2005년 제 10기 박카스배 천원전에서 준우승했고 같은해 김동희는 비씨카드배 신인왕전에서 준우승했다.

지난 예를 살펴보다도 初단들의 활약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요사이 初단들의 활약은 한두 명에 의한 것이 아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한상훈 初단이 LG배 세계기왕전에서 중국의 1인자 구 리(古力) 九단을 돌려보내며 8강에 진출한 것이 初단 돌풍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그렇다면 初단들이 입단하자마자 본선 무대를 넘나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점점 높아지는 입단자 연령

통계적으로 볼 때 2001년 14.1세를 기록했던 입단자 평균 연령이 매년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리더니 2004·2005년에는 16.6세까지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입단한 박정환·김승재의 입단으로 평균 연령이 0.4세 낮

아졌지만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고 있다. 2007년 최고의 블루칩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상훈 初단은 18세 하고도 7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입단문턱을 넘었다.

바둑계에서는 18세를 넘기면 프로가 돼도 성공할 수 없다는 통

검증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단서를 달았다. 옆에 있던 기성(棋聖) 타이틀 보유자 박영훈 九단 역시 “확실히 예전보다 세진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꾸준히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죠.”라고 거들었다.

허영호 六단의 스승이자 오랜 바둑도



을 그었지만 당시만 해도 연구생 제도는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시절이었다. 한상훈 初단은 늦은 나이에 입단하고도 성적을 내고 있는 드문 케이스다.

이른 나이에 입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는 box2(우측?)의 '한·중 주요기사 입단 연령 비교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07년의 初단을 보도하는 매스컴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실력 인정'과 '거품'의 두 부류로 나뉘지만 공통점이라면 일단은 더 지켜보자는 쪽에 의견이 모아진다는 점이다.

2007년 다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목진석 九단의 평가는 어떨까?

“初단들이 일단 괜찮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 거품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만해도 근래 初단들과의 대국 성적이 썩 좋은 편이 아닙니다. 한상훈에게는 한 번 이긴 적이 있지만 윤찬희와는 1승 1패, 배준희 한테는 두 번 모두 졌습니다. 그렇다고 初단들 모두가 강자 대열에 올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상훈은 왕위전 도전자결정전까지 올랐고 LG배에서도 구 리를 이기는 등 이미 실력을 입증한 것 같지만 나머지 初단들은 본선에서 뚜렷하게 성적을 낸 게 없으니까 일단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십단(十段) 타이틀 보유자인 안조영 九단도 인정하는 쪽이다.

“初단들의 실력이 이전보다 나아진 것만은 틀림없지만 적어도 2~3년 정도

씩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력인지 거품인지는 2~3년은 두고 봐야겠지요.”라며 목진석·안조영·박영훈 九단 등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신예들이 어려운 상대 중 한 명으로 꼽는 '원펀치' 원성진 七단도 비슷한 의견을 나타냈다.

“예전보다 확실히 상향평준화 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재작년부터 강해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아직 속기바둑에서는 경험 부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지만 3시간 짜리 바둑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는 경험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연구생들을 지도하는 연구생 사범들은 최근의 初단 활약상에 관해 의견을 약간 달리했다.

연구생 총괄사범인 김수장 九단은 “한상훈 初단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그 외 初단들의 성적은 예전 입단한 初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입단하고 나면 1년 정도는 자신감도 불고 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게 다 반사입니다.”라고 최근의 初단 돌풍 신드롬 현상에 동의하지 않았다.

역시 연구생 지도를 맡고 있는 한종진 七단도 ‘언론보도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 七단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初단들의 실력이 예전보다 훨씬 세진 것이 아니라 승부바둑에 강해 쉽게 지지 않을 뿐입니다. 한창 성적을 내고 있는 한상훈도 대진운이 좀 따라 승률이 좋은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상훈을 비롯한 初단들이 한 단계 올라서느냐 낙오하느냐는 거품이 한번 빠지고 난 후 다시 올라설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늠할 것.”이라며 연구생 사범답게 初단들에게 더욱 분발할 것을 주문했다.

한종진 七단은 대표적인 거품으로 2007한국바둑리그에 初단들이 5명이나 선발된 점을 들었다.

“상위 랭커에게 한 두판 이겼다고 해서 初단들을 너무 과대 평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한국리그에서 初단들의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라고 ‘거품론’에 한 표 던졌다. (2007 한국바둑리그 初단 성적은 7월 10일 현재 4승 12패, 승률25%다.)

본지 해설위원을 맡고 있는 옥득진 五단은 최근 일련의 初단들에 관한 보도가 과대포장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옥득진은 “본인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겠지요.”라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한상훈 初단 같은 경우에도 최소 2~3년 정도 지금의 성적을 유지해야만 일류기사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진단했다.

初단들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3가지 이유

요사이 거세게 부는 初단 돌풍의 이유를 조선일보 바둑담당기자인 이홍열 부장은 다음 3가지 요소로 집약했다.

첫째 ‘프로의 좁은 문’. 기존의 프로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는 연구생 3조까지의 30여 명이 매년 9장의 입단티켓을 놓고 피 말리는 경쟁을 벌이는 구조는 입단하자마자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입단 후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꼽았다. 예전과 달리 입단 후에도 각종 연구회나 출신 도장에서 연구생 시절에 준할 정도의 강도로 꾸준히 담금질을 시키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프로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입단자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추세라고.

셋째 ‘기전의 속기화’다. 중견기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존의 젊은 강자들도 갖 입단한 새내기 특유의 순발력을 따라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들었다. 세 번째 사항은 기존 프로들의 생각과는 약간 다르지만 아무튼 입단 전보다 입단하고 나서 더 공부를 많이 한다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만큼 初단들의 고공행진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최고의 初단 유망주는?

인터뷰에 응한 프로기사들은 최고의 初단 유망주로 잘 나가는 한상훈 대신 박정환을 주저 없이 ‘0순위’에 올려놓았다.

사이버오로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프로기사 중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기사 1위에 오르기도 했던 박정환은 입단자들의 연령이 늦어져 가는 추세를 뒤엎으며 13세의 어린 나이에 입단해 주목을 끌었다.

박정환과 비슷한 시기에 입단한 김지석 四단이 입단 초창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지만 갈수록 기량이 향상돼 2007년 들어 다승과 승률 5월에 꾸준히 이름을

초단 돌풍의 핵, 한상훈 初단

- 입단하자마자 승률 75%가 넘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요?

“한판 한판 열심히 한다는 생각으로 대국에 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적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데뷔 후 90%가 넘는 승률을 올렸지만 요새는 좀 떨어졌습니다. (프로무대 데뷔 후 한初단은 16승 1패까지 기록했었다.)

- 프로가 된 후 연구생 시절과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입단 전에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짜여진 일과대로 움직이면 됐거든요. 특히 연구생들은 주말에 리그전을 치르잖아요. 입단 후 주말에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양건 사범님이 운영하는 ‘소담연구실’에서 리그전을 치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 연구생 시절 했던 공부 중 프로 실전에서 가장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역시 연구생리그에서 두어 왔던



실전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신에 대한 압박감과 있고 해서 도장에서 연습바둑을 두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물론 연구생 시절 공부가 기본바탕이겠지만 입단한 이후 다른 프로 사범님들과의 승부대국을 통해 실력이 더 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 최근 한初단을 위시한 初단들의 약진이 두드러 집니다만, 한初단이 보기에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김승재 初단이 보는 입단 동기생 한상훈 初단

입단동기 한상훈 初단의 활약을 바라보는 김승재 初단의 심정은 어떨까?

지난 12월 입단한 후 연수기간을 거쳐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전에 출전한 김初단도 국수전과 오스람코리아배 본선에 오르는 등 사실 대단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입단 동기 한상훈 初단의 활약상에 빛이 조금 바란 감이 없지 않다.

농심신라면배 예선전 현장에서 김初단을 만나 몇 마디 물었다.

- 입단동기인 한상훈 初단의 활약상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도 더욱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죠. ^^ (옆에 있던 옥득진 五단은 입단 전보다 더 열심히라며 김初단을 칭찬했다. 현재 옥득진은 김初단과 같은 도장에서 사범으로 활동 중이다.)”

- 김初단도 그렇고, 初단들의 성적이

것 같은 初단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입단을 한 만큼 다들 실력은 갖추고 있다 봐야겠죠. 그 중 한 명을 집어내려면 아무래도 나이도 어리고 기재 넘친 바둑을 두는 박정환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 연구생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1~3조에 속한 친구들은 프로에 버금가는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연구생 중 유망주를 한 명 소개한다면?

“1조에서 3조까지가 비슷하지만 미세한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 유망주라면 도장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이현호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연구생 랭킹 1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요. 아무튼 바둑이 무척 썩습니다. 친구로 지내던 김현찬도 저랑 막상막하의 실력이었는데 입단을 못하고 연구생을 나와 안타깝습니다.”

눈에 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연구생들의 실력이 많이 좋아진 데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구생 1조 멤버들은 최소한 저보다 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리는 것처럼 박정환도 창의적인 면이 엿보인다고 높은 점수를 주었다.

한편 여류기사들의 실력도 나날이 향상돼 중견기사들과의 맞대결이었던 지지옥션배에서 승리하며 더 이상 가지 없는 장미가 아님을 입증했다. 특히 입단 5개월 차의 박지연이 제1기 지지옥션배에서 정대상 김석흥 김동엽 등 중견기사들을 연파하며 3연승했고 고주연·백지희 初단도 이홍열·장수영 九단에 1승씩을 챙기는 등 여성 初단들의 파위가 녹록치 않음을 보여준 바 있다.

한상훈을 위시한 初단 들의 돌풍 행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1년 반짝 신세가 되지 않으려면 일단 ‘2년차 징크스’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관건이다. 프로야구를 보면 데뷔 첫째 화려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이 ‘소포모어 징크스(sophomore jinx)’에 걸려 추락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신인 때 좋은 활약을 보이다가도 그 다음해에 부진한 활약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전력 노출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바둑계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初단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다.

입단 사관학교, ‘연구생 제도’

입단하자마자 성적을 내는 初단들을 보면서 그들을 양산해 내는 입단제도에 궁금증이 미칠 것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입단제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재)한국기원에서는 1년에 9명의 입

단자를 배출하고 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자(7명) : 입단대회 4명(보·기울 각 2명씩), 연구생 내신 2명(6개월에 1명씩), 지역 연구생 입단대회 1명

여자(2명) : 여자연구생 입단대회 1명, 여자연구생 내신 1명

입단대회에는 여자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여자 입단자가 6명까지 나올 수 있지만, 남성에 비해 기량이 떨어지는 관계로 입단대회에서 여성이 입단한다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실정이다.

〈7면 계속〉

《23면 이어서》

입단을 준비하는 고시생 격인 연구생은 남자 120명, 여자 48명 등 총 168명이다. 남자 연구생은 통상 1조에서 5조까지를 1군, 6조에서 10조까지를 2군이라 하며 담당 연구생 사범도 1군 2명(김수장 九단 박승철 五단), 2군 2명(천풍조 八단 한종진 七단), 여자 2명(강훈 九단 이영신 四단)씩 모두 6명이 별도로 임명돼 해당 연구생들을 관리하고 있다.

남자는 각 조 12명씩 1~10조로, 여자는 12명씩 1~4조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은 입단을 위해 매 주말마다 리그전을 통해 기량향상을 꾀하고 내신점수를 얻는다. 연구생들은 1년에 12회차 리그를 벌인다. 11번의 대국이 끝나는 한 회차 리그를 종료하면 각조 상위 4명은 상위조로 올라가고 하위 4명은 아래조로 강등된다. 남자 10조와 여자 4조의 하위 4명은 연구생 자격을 잃고 연구생 선발전부터 다시 참가해야 한다.

연구생이 되기 위해서는 1년에 4차례 열리는 연구생 선발전에 출전해야 한다.

연구생 선발전 출전자들은 대국 결과에 따라 순번을 부여받는데, 연구생에 결원이 생기면 상위 순번자부터 연구생 리그에 올라 갈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입단을 앞두고 있는 연구생 톱클래스의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원성진 七단은 “요새 입단하자마자 성적을 내는 것을 보면 연구생들의 실력이 세졌다고 생각합니다.”며 “몇몇 연구생들은 지금 입단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실력을 갖췄지만 맞대결해서 밀린다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직은 프로와 차이가 있다는 의견을 비쳤다.

한종진 七단은 “연구생 1조에서 3조까지는 프로 실력이라고 볼 수 있지만 더 냉정하게 보면 1조 정도가 프로와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이길 수는 없지만 아직은 젊은 프로 강자그룹에게는 밀린다고 봐야죠.”라고 단언했다.

김수장 九단의 의견은 많이 달랐다.

김九단은 “현재 연구생들이 승부에 능할지는 모르지만 기술적으로는 보완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연구생들에게는 만 18세가 되면 ‘퇴출’이라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 지도사범의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1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나이제한이라는 족쇄가 있어 입단을 위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다.

한국기원 본원의 남자연구생들에게는 1년에 여섯 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입단하기가 이렇게 바늘구멍이 되자 좋은 내신성적을 얻고 입단대회 통과를 위해 연구생들의 바둑이 천편일률적으로 흐르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생들이 차분하고 침착하게 판을 짜며 중반전에서 끝내기로 승부를 보려고 한다는 게 연구생 사범인 한종진 七단의 지적이다. 요는 창의적인 바둑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 수밖에 없는 것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나 입단대회 같은 중요한 바둑에서 승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고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나이 많은 입단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바둑 담당 박치문 전문위원

스승 김원 七단이 바라보는 제자 한상훈 初단



- 제자의 성적이 엄청납니다. 예상은 했었는지요?
“워낙 고생 끝에 입단을 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낼 것이라 생각

은 했지만 이 정도일지는 사실 몰랐습니다. 입단 첫째 성적이 중요하다고 누누이 강조는 해 왔습니다.”

-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입단 기본적으로 공부량이 많습니다. 게다가 꾸준하고요. 사실 입단 대회에서 자주 실패하다보면 알게 모르게 힘든 면이 많은데 이런 어려운 점을 잘 극복한 것이 좋은 성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 어렵게 입단했는데, 입단이 늦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상훈이가 좀 떠는 편입니다(웃음). 나이도 자꾸 차고 하니까 입단에 대한 중압감이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제 실력 발휘를 못한다고 봐야겠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좀

은 입단 관문을 앞두고 평정심을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입단이라는 것이 실력만 있다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정신적 부담감이 커져서 최근 연구생들의 바둑이 승부로만 기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바둑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건 현재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 한상훈 初단과는 언제 만났나요?

“초등학교 3학년 시절 처음 만나서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때는 분당에 있었을 때인데 그 후 인천, 또 지금의 서울 흥은동으로 이사하면서 계속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 중간중간 환경이 바뀌면서 힘들었을 텐데 잘 따라주어 대견합니다.”

- 제자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니 몇 년 더 경지에 오를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제자 이외에 유망한 初단 한 명을 꼽는다면?

“다들 유망합니다만 굳이 한 명을 선택하려면 지난 4월 연구생 내신 1위로 입단한 강윤택이 아닐까 싶네요.”

들리는 여러 의견을 취합해 중지를 모을 시점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

중국

만 15세 이하로 입단대회 참가 제한
씨에 루이(謝銳)·체단주보 기자,
번역·김경동 사이버로 콘텐츠팀장

2006년 이전까지 매년 20명의 입단자가 배출됐다. 18세 이하의 남자 18명과 21세 이하의 여자 2명의 기사가 입단의 영광을 누렸다. 2006년부터는 입단방식을 조금 손 봐 매년 7월 경 실시되는 입단대회에서 여자는 상위 2명이 그대로 입단하고 남자는 상위 14명이 입단, 15~22위 내의 선수들 중 추가로 4명을 선발하기 시작했다. 이와는 별도로 여성들에게는 매년 열리는 전국여자개인전 우승자에게 특별입단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 케이스로 입단한 기사로는 탕 잉(唐盈) 初?단, 왕 상윈(王祥雲)·송용혜(宋容慧) 初단 등이 있다. 2007년도에 열린 입단대회는 7월 11일부터 25일까지 우한(武漢)에서 열렸다.

중국의 입단대회에는 중국기원이 인정하는 아마5단 이상이 출전할 수 있다. 중국에는 한국의 연구생이나 일본의 원생과 같이 입단을 준비하는 엘리트 조직이 없는 게 특이하다.

2007년의 경우에는, 남자는 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자는 198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참가자격이 주어졌다. 특이한 점은 연령조작 방지를 위해 뼈연령 측정을 통과한 기사만이 참

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입단대회는 예선 8라운드, 본선 13라운드로 오전·오후 한판씩 펼쳐진다. 여자는 참가자 인원수에 따라 대국 형식이 그때그때 결정된다고.

중국의 初단들은 아함동산배 속기전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프로기전에 출전하는 게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등급점수가 일정점수 이상 되지 않으면 대회 자체에 참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갓 입단한 初단들의 등급점수는 낮기 마련이다. 따라서 대회에 참가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初단들이 워낙 많아 중국 기원에서조차 정확한 初단 수를 파악하지 못할 정도라고. 한국의 한상훈 初단 같이 세계기전에 나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중국의 九단과 初단의 실력 차는 정선에서 두 점 정도는 족히 차이가 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망주로 꼽히는 初단 기사로는 라오 상윈(廖行文)과 탕 웨이싱(唐韋星)이 첫 손에 꼽힌다.

1994년 생인 라오 初단은 광시(廣西) 출신으로 2005년 응씨배 세계청소년대회에서 우승했으며 2006년 입단했다. 입단 후 이광배에서 왕 야오(王堯) 六단과 류 싱(劉星) 七단을 꺾고 16강에 올라 화제를 불러모았다.

꾸이저우(貴州)에서 1993년 태어난 탕 웨이싱 初단은 2005, 2006년 중국만보배에서 연속 우승했으며 2006년에는 세계 아마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했다. 그 해 입단한 탕 初단은 현재 중국 갑조리그 베이징 신흥팀에서 활약 중이다.

일본

'지옥문' 입단대회, 매년 5~6명밖에 안 뽑아

시무라 토모히코(志村朋彦)·월간 고월드 편집장

일본은 매년 입단자를 5~6명씩 선발한다. 한 해는 5년, 한 해는 6명씩 격년제로 선발하는 게 특이하다.

기사 채용은 크게 일본기원 본원 입단대회인 하계 및 동계 채용과 일본기원 중부(中部)·관서(關西)채용, 여류특별 채용시험 등 네 종류로 나뉘어 치러진다.

일본기원 원생에게만 출전자격이 주어지는 하계채용 시험의 시기는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입단이 결정된 한 명의 기사는 일단 시채용(試採用) 기간(期間)으로 대국에 참가하게 된다. 본채용(本採用)은 익년 4월 1일부터다.

8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동계채용 시험에는 일반인과 원생이 모두 참가 가능하다. 대회는 원생(현재 100명이 있다) 가운데 가장 하위 클래스와 일반인이 대국하고, 상위 여섯 명이 다음 회전에 진출한다. 그 여섯 명과 원생 상위 클래스 열 명이 리그전을 벌여 상위 두 명이 입단한다.

중부와 관서 채용시험은 격년으로 채용방법이 변한다. 한 해는 중부총본부와 관서총본부의 원생이 각각 한 명씩 두 명이 입단하고 그 다음 해에는 중부총본부와 관서총본부에서 상위 두 명씩, 모두 네 명이 리그전을 벌여 한 명만 입단한다.

《28면 계속》

〈27면 이어서〉
여류 특별 채용시험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열린다. 원생과 일반인이 예선을 치러 여섯 명이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 1위가 입단한다.
입단대회의 참가자격은 2008년부터 23세 미만으로 나이를 제한했다.
일본 역시 중국처럼 입단 후 바로 성적을 내는 初단 기사는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 재능 있는 기사들이 입단하지만 실력은 입단 후 개화(開花)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본에서는 初단이 九단에게 승리하는 것이 매우 드물다. 과거 고바야시 이즈미(小林泉美) 六단이 初단 시절 NHK배에서 나카노 히로나리(中野寛也) 九단을 꺾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최근에는 기전 시스템이 변경돼(예선 C→B→A→본선) 예선에서 初단과 九단이 맞붙는 기회가 늘었다. 따라서 初단이 九단을 꺾는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 갓 입단한 初단이 九단을 꺾는 일은 거의 없다고. 참고로 일본기원에서 발행하는 주간지인「슈칸고(週刊碁)」에서는 막 입단한 기사와 九단 기사간에 두 점 대국을 '신(新)초단 시리즈'라는 타이틀로 벌이고 있는데 두 점에도 初단이 이기는 경우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전도유망한 初단 기사로는 가나가와(神奈川)현 출신의 가나자와 마코토(金澤眞) 初단이 꼽힌다. 명인(名人)과 본인방(本因坊) 타이틀 보유자인 다카오 신지(高尾紳路) 九단과 같은 후지사와

(藤澤秀行) 동문(同門)인 가나자와 初단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04년 전국

소년소녀바둑대회에서 우승했고 올해 열다섯의 어린 나이로 입단해 일본바둑

계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기사제공 : 월간바둑〉

한·중 주요 기사 입단 연령 비교

한국		중국	
조훈현	9세	창 하오	10세
이창호	11세	씨에 허	11세
이세돌	12세	후 야오위	11세
최철한	12세	천 야오예	11세
원성진	12세	저우 루이양	11세
강동운	13세	구 리	12세
박영훈	14세	콩 지에	12세

프로기사 입단자 평균 연령

입단연도	입단자 평균연령
2000년	14.8세
2001년	14.1세
2002년	14.6세
2003년	15.1세
2004년	16.6세
2005년	16.6세
2006년	16.2세
※박정환(13세 4개월)·김승재(14세 4개월) 입단 영향으로 낮아짐	
2007년 현재	16.5세
※2004년부터 입단자 평균 연령이 16세를 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3년 전부터 갓 입단한 初단들의 실력이 세졌다는 것과 일치한다.	

국내·외 기전 본선 진출한 初단 명단(순서는 입단순)

이름	생년월일	주요 전적	2007 전적(7/10 현재)
배준희	1987.05.10	06년 삼성화재배, 07년 명인전·비씨카드배·SK가스배 본선, 07바둑리그(제일화재)	
권형진	1990.01.11	07년 오스람코리아배 본선	
박승화	1989.02.10	06년 십단전, 07년 왕위전·바둑왕전·비씨카드배·SK가스배·오스람코리아배 본선, 07바둑리그(울산디아체)	
최기훈	1988.04.02	07년 국수전·십단전 본선	
박정환	1993.01.11	07년 십단전·오스람코리아배 본선, 07바둑리그(월드메르디앙), 현역 최연소 기사	
윤찬희	1990	07년 왕위전 8강, 오스람코리아배 본선, 07바둑리그(신성건설)	
한상훈	1988.05.01	07년 LG배 8강, 왕위전 도결, 오스람코리아배 본선, 07바둑리그(대방노블랜드)	
김승재	1992.08.11	07년 국수전·오스람코리아배 본선	

국내·외 기전 본선 진출한 初단 통산 전적 (2007. 7. 10일 현재)

이름	입단일	전적	승률	이름	입단일	전적	승률
배준희	2005. 12	42승 29패	59.15%	박정환	2006. 5	29승 17패	63.04%
권형진	2005. 12	21승 20패	51.22%	윤찬희	2006. 9	29승 15패	65.91%
박승화	2006. 3	43승 20패	68.25%	한상훈	2006. 12	28승 11패	71.79%
최기훈	2006. 5	21승 16패	56.76%	김승재	2006. 12	11승 7패	61.11%

구기호의 핫이슈 토론

기전 속기화 추세 이대로 좋은가?

본 코너는 바둑계의 이슈 토론 마당입니다. 바둑계의 문제점(혹은 개선점) 등을 본지(02-2264-5447)에 연락주시면 「구기호의 핫이슈 토론」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때 : 7월 9일 □ 장소 : 한국기원 이사장실
□ 토론자 : 김수장·김승준·박영철·임진영(가나다 순)
□ 사회 : 구기호 본지 편집장

과거 바둑의 이미지는 장고(長考), 심모원려(深謀遠慮), 무궁무진한 수 등 신비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의 이미지가 최근 TV기전이 활성화되면서 속기전으로 변모돼 웬지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또 일부에서는 속기화에 따른 바둑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둑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기전, 속기화 추세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핫이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토론을 위해 한국일보 명인전 관전기를 맡고 계시는 박영철 기자, 바둑TV 임진영 PD, 프로기사 김수장 九단, 김승준 九단 네 분을 모셨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화 추세 이대로 좋은가?'입니다. 모두 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기전 현황을 보면 국내 15개 기전 중 무려 9개 기전이 속기전입니다(표1~2 참조). 이 정도면 전체 기전 수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의 추세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영철 : 10년, 20년 전만 해도 속기전은 공중과 3사가 주최하는 KBS바둑왕전, MBC제왕전, SBS연승바둑최강전 등 3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두 개가 없어지고 요즘은 KBS바둑왕전 하나만 남았는데, 최근 바둑TV에서 주최하는 기전이 늘어나면서 속기전 수가 급격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꼭 속기전 수가 는 것 때문에 속기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두어지는 한국바둑리그 때문에 속기화 문제가 대두됐다고 봅니다. 거의 매일매일 두어지고 바둑TV를 통해 중계되다 보니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김수장 : 저도 박기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

감합니다. 기전 수가 늘어난 건 있지만 지금처럼 한국바둑리그가 매주 두어지지 않고 있다면 아마도 속기 얘기는 관심 밖일지도 모릅니다. 속기화 추세에 대해서는 시대의 흐름인 만큼 따라가는 게 저뿐만이 아니라 기사들의 생각일 겁니다. 김사범도 그렇지 않나요?

김승준 : 예, 저도 김수장 사범님 의견과 다르지 않습니다. 속기화 추세는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4, 5시간 제한시간을 사용하는 바둑은 요즘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봐야죠.

속기화에 따른 바둑의 본질 훼손 우려돼

사회자 : 과거보다 기전이 는 것은 바둑계가 환영할 일입니다. 다만 그 기전의 증가가 속기 기전으로 지나치게 편중됨에 따라 몇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

해 토론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둑의 질 저하 우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장 : 속기로 두다 보면 당연히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바일 것입니다. 30초 초읽기로는 사실 계가도 힘들 때가 많으니까요. 또 실수도 실력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실수로 승부가 갈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바둑리그의 예를 보더라도, 출전하는 기사들은 모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고수들인데 막상 대국 내용을 보면 명성에 걸맞지 않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뒤서 이긴 바둑보다 상대 실수로 이기고 지는 바둑이 너무 많습니다. 명국을 구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김승준 : 저도 한국바둑리그에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실수를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수읽기가 안 돼 감에 의존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마가 잡히는 일이 자주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사회자 : 그 정도면 지금의 제한시간은 무리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10분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제한시간(초읽기)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도 있

을 것 같은데, 방송사측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영 PD가 보시기에 TV기전이 속기화되는 이유를 뭐라 보시는지요?

임진영 : 한국바둑리그뿐만이 아니라 TV기전 대부분은 제한시간이 10분으로 똑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지루하지 않고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인데요, 거기에 맞추다 보니 제한시간은 부득이 10분으로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사회자 : 제한시간을 10분으로 해야 2시간 내에 바둑이 끝난단 말씀이군요? 강원랜드배 명인전은 제한시간이 2시간 아닙니까?

임진영 : 강원랜드배 명인전만 예외적으로 제한시간을 2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 정상급 기사 10명이 바둑을 두는 데도 불구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시청률이 더 높지는 않습니다. 결국 2시간 정도가 시청자들로서는 보시기에 편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사회자 : 임PD께 질문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둑TV에서 속기전 위주로 가는 게 시청자들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프로그램 제작상의 문제는 없나요?

임진영 : 프로그램 제작은 속기전이나 일반기전이나 똑같습니다. 제작상의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사회자 : 그렇다면 생방송을 피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진영 : 바둑이 스포츠라면 당연히 생방송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김수장 : 바둑TV 입장에서는 스폰서도 고려해야 하니까 당연히 생방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저것 광고도 붙을 것 아닙니까.

임진영 : 바둑도 결과는 나오지만 그나마 교육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굳이 다른 스포츠 중계처럼 생방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시청률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가령, 야구경기를 예로 들어 3-1로 이미 끝난 경기를 1~2시간 정도로 편집해 녹화방송으로 내보낸다고 했을 때 과연 흥미진진하게 볼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스포츠뉴스 시간에 하이라이트로 보고 말 겁니다.

사회자 : 바둑도 마찬가지로 일 거라는 주장이시군요?

임진영 : 바둑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하지 않는다면 박진감과 관심도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설문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자 : 바둑의 질 저하는 우려되지만 시청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속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종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편집해 녹화방송을 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는 말씀이셨구요. 자, 이 문제는 이쯤해서 마무리하고, '속기화가 세계대회에서의 부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준 九단이 준비한 자료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세계대회에서의 부진 요인도 속기화 때문

김승준 : '왜 갑자기 국제대회에서 한국바둑이 힘을 못 쓰고 있는가'에 대해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다가 속기화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나뉘드린 <표3~5>를 보시죠. 2000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국제대회 성적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00~2005년은 한국바둑이 23번 우승을 차지해 최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이 우승을 놓친 것은 불과 5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올해(6월)까지의 성적을 보면 상황이 크게 역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우승한 건 2번뿐인데, 중국과 일본, 대만이 우승한 건 5번이나 됩니다. 국제대회가 생겨난 이래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공동연구가 장점이 있다는 것은 소소히 때부터 어느 정도 증명이 됐습니다만 이창호 九단이 공동연구를 안 한 지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창호 九단이 그동안 어떻게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대국을 통해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몇몇 기사들은 공동연구를 아직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기사들은 대부분 실전을 통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철 : 난 사실 옆에서 보는 사람 입장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속기 때문에 한국기사들의 국제기전 성적이 나빠졌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기사들의 기량이 떨어졌다는 것이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전을 통해 공부한다는 것은 이상한 거라고 보는데, 평소 연구구를 해서 두



는 것 아닙니까? 속기라는 것은 평소 연구량을 늘리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승준 : 속기화 때문이라고 100%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0~40%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특출난 이창호 이세돌만 있다가 뒤를 받쳐주지 못해 맥이 끊겼다고 말씀하신 것에 어

느 정도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최근 외국기사들이 5번 우승할 때 우승자를 보면 구 리(古力·2회 우승), 뤼 시허(羅洗河), 창 하오(常昊), 저우 천원(周俊勳) 등 과거에 맨날 이창호나 이세돌한테 지던 사람들이 우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창 하오의 성적이 아주 좋지요. 저는 그 이유를 중국바둑리그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 무슨 근거로 그렇다는 것입니까?

김승준 : 중국의 경우를 보면, 2000년부터 중국리그를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리그는 4판 중 1판만 속기전이고 나머지는 2시간 40분짜리입니다. 대부분 국제대회에 나오는 일류기사들은 속기전보다 2시간 40분짜리 바둑으로 22판 정도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기전이나 다름없으니까 다들 열심히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바둑리그는 전부 속기전이고, 제한시간 2, 3시간 바둑은 2, 3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상승작용을 일으켜 지금에 와서 중국이 결실을 맺었다고 봅니다. 우리는 국내대회에서 전혀 연습이 안 돼 있다가 국제대회에 나가면 어색해져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중국리그처럼 시간을 다양하게 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박영철 : 그 부분은 전문성이 있는 것이어서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한시간을 늘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아무래도 3시간 바둑을 계속 두다가 세계대회에서 3시간 바둑을 두는 것과 우리처럼 평소에 10분짜리 속기를 두다가 갑자기 3시간 바둑을 두는 것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장 : 김승준 사범 말씀은 국제기전은 3시간인데, 중국은 바둑리그를 통해 일류기사들은 2시간 40분짜리로 연습량을 충분히 쌓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불과 2~3개 기전에서만 3시간 바둑을 두기 때문에 국제기전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 그런 애갑니까? 그래서 우리도 3시간짜리 기전을 좀 더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가요?

한국바둑리그의 다양화 필요

김승준 : 제가 주장하는 것은 3시간짜리 기전을 늘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강원랜드배 명인전과 박카스배 천원전을 3시간으로 해봐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기전을 더 늘린다고 해도 국제대회에 나가는 기사들은 1인당 몇 판 더 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걸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국바둑리그와 같이 여러 판을 둘 수 있는 기전에서 시도했으

면 하는 것입니다. 한국바둑리그 같은 14판을 둘 수 있잖습니까. 국제대회에 나갈 정도면 1지명자인데, 그럼 14판을 모두 소화한다고 봐야죠.

김수장 : 최소한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기사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군요.

박영철 : 앞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토론 주제는 바둑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바둑리그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니까요. 한국바둑리그가 작년부터 공통처럼 커져서 생긴 문제입니다. 사실 기전을 따져보면 다른 기전도 많은데, 한국바둑리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잖습니까.

김수장 : 그런 의미도 있고, 대부분 바둑TV에서 방영하는 기전이네요. 그러니까 3시간으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구요.

박영철 :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건 TV기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인데, 내가 TV회사 사장이라도 속기로 하고 싶어요. 앞으로 한국기원이 바둑TV와 협의를 잘 해서 다양하게 할 필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임진영 : 김승준 사범의 주장에 100%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흥미유발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고려해볼 직하다고 봅니다. 한국바둑리그는 계속 발전하는 대회입니다. 지금의 대회방식이나 제한시간을 고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바둑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 대회가 발전할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회자 : 마지막에 김승준 九단이 국제기전 부진의 대안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 한국바둑리그에서 채택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번 토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자 중 최연장자이신 박영철 기자님이 정리를 해 주시지요.



박영철 : 속기 추세를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시청자들을 위해서도 기사들을 위해서도 지금보다는 더 다양하게 갈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한국기원이 주최사하고 잘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기보의 질 저하 문제는 바둑이 스포츠를 표방한 만큼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명국을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고 봐야죠.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도로 바뀌어야 할 겁니다. 조금은 쓸쓸하지만.

사회자 : 오늘 토론 첫 시간이었는데 발전적인 많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